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2020 총회

이슬람아카데미

2020년 7월 16일 10:00 _ 총회회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인사말

개혁주의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

총회장 **김종준** 목사

할렐루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이 일상화되었고, 비대면 · 화상회의 ·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가 전성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뉴-노멀(New-Normal)의 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잘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보다 더한 위기 상황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테러의 위협과 이슬람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 유럽과 미주에서 급성장한

이슬람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찾아가던 선교 사역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는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과 공포, 종교의 갈등, 영적인 어둠이 심화되면서 종말론적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총회 교육부 이슬람대책위원회에서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와 『총회이슬람대책아카데미』는 그 자체로 유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무슬림과 그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총회 차원의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슬람의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를 통한 방향과 미래 전략은 국내 무슬림 선교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효율적인 선교전략에 근거한 선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그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슬람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와 이해를 통해 올바른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문화적 장벽을 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혁주의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신 총회교육부 산하 이슬람대책위원장과 임원들, 총회 교육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격려사

이슬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안을 모색하길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총회 산하의 전국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용주의와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속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사회적 차별과 갈등, 무한 경쟁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절대적 가치의 상실, 국제적인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들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사회적 가치보다 '나'라는 개인적인 가치와 인권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19의 재 확산과 그에 따른 글로벌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또 다른 비전과 혜안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의 이슬람은 1990년을 기점으로 한국 내의 저 출산과 고령화, 노동력 부족, 한류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급성장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한 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슬람 문화가 아무런 장애 없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테러와 공포의 대상,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 이슬람을 단순한 종교로만 치부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와 교회는 아직도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최되는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와 『총회이슬람아카데미』가 이슬람에 대한 개혁주의적인 입장과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에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슬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의하는 『총회이슬람대책세미나』의 강사들은 모두 국내 이슬람 관련 최고 권위자들로 이슬람 출신 선교사와 이슬람 전문가, 선교학 교수, 선교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역의 노하우와 현장 사역의 경험을 통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슬람 신앙과 코란 이해, 이슬람의 역사, 문화, 이슬람 선교 현장 이슈,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의 대안 등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풍성한 강의를 참석자 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하여 본 교단의 위상을 한층 발돋움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사랑과 축복이 항상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간사

도전(挑戰)과 응전(應戰)

총회이슬람대책위원장 정영교 목사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20년, 우리는 또 다시 밀려오는 이데오르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번성했다가 내리막길을 걷는 자리에서 성장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5대 교구 즉,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로마 중에서 로마를 제외하고 오늘날 모두 이슬람 지역에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날 유럽은 유라비아(Eurabia)가 되어가고, 수도는 런더니스탄(Londonistan)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슬람 인구 성장은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슬람 인구가 성장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금년에 한국에 약 2만 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난민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조차 유럽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공통체인 움마(Umma)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는 면에서 전체주의이며 이데오르기 입니다. 이제 한국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문화주의 시대에 이슬람은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기독교는 개혁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을 어떻게 보고 대안은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가 27년 만에 완성한 그의 역작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에서 문명의 역사를 한마디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의 저력을 갖추지 못한 문명과 민족은 스스로 도태되고 자멸 되어 온 세계사적 역사를 여실히 판명하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난관과 시련이 의지와 저항력을 키우고 직관과 분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명사관의 요체입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자처한 오스만 터키 술탄의 위협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슬람의 도전에 응전하여 성공하였고, 그 원리를 전수하였습니다.

이슬람은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국에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하여 개혁주의적 원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응전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개혁주의의 깃발을 세웁시다!

목차 2020 총회이슬람아카데미

인사말 | 총회장 김종준 목사 ····· 2

격려사 |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 4

발간사 | 총회이슬람대책위원장 정영교 목사 ····· 6

강 의

1강 유럽 이슬람 인구 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
/ 유해석 박사 ····· 9

2강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
/ 김성욱 교수 ····· 57

3강 이슬람의 여섯 얼굴과 선교적 접근
/ 김철수 교수 ····· 91

4강 한국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선교 변증적 대응
/ 김은홍 교수 ····· 109

5강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의 대안
/ 박성수 박사 ····· 151

이슬람아카데미

1강

유럽 이슬람 인구 성장이 한국에 주는 교훈

유해석 박사

유럽의 이슬람 인구 성장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유해석[1)]

Ⅰ. 서론

지난 2018년 9월 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비젼과 9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2)]이라는 "포용 국가" 를 발표하였다.

포용 국가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정책브레인인 포용 국가연구소 소속 학자들은 국가 모델설계를 위하여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서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모델은 서유럽과 북유럽국가들로 정하였다. 이 연구는 북유럽 사례를

---

1) 총신대학교(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q.)을 졸업했고, 영국 웨일스대학교 신학/이슬람학부에서 철학석사(M.Phil) 학위를 받았다. 또한 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과정을 수학하였고 칼빈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GMS 파송선교사로 오엠선교회와 협력해 이집트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총신대학교 교양교직과 겸임교수이며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있다. 또한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하다. 저서로는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생명의말씀사) 등 다수가 있다.

2) 박세환, "조금 낯선 이름 '포용국가전략회의', 문 대통령 '국민 삶, 국가가 책임'," 「국민일보」, 2018년 9월 6일.

바탕으로 포용성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면 대한민국도 혁신적 포용 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용 국가에 대한 내용은 2017년에 출판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 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 세계에서 실험된 다양한 정치 경제 모델 중에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동시실현에 성공한 유일한 대안은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 결론과 함께 우리는 유럽형 모델과 노르딕형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 원리가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원리라는 것도 발견했다"[3] 여기에서 노르딕 형이란 북유럽국가를 의미한다. 포용 국가는 서유럽과 북유럽을 모델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의 서유럽과 북유럽은 이슬람의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이다. '유라비아(Eurabia)'라는 단어는 유럽과 아랍사람들의 연합과 결속을 위하여 1970년대에 만들어진 잡지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4] 그러나 이제 '유라비아'라는 단어는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간다는 상징으로 바뀌었다. 중동 역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는 2004년 독일신문 벨트(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21세기 말에는 유럽의 인구는 무슬림이 다수가 될 것이다. 유럽은 서부 아랍의 일부가 될 것이다."[5]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이슬람 인구는 성장하여 현재 약 30만 명의 이슬람 인구가 있다.[6] 1990년 이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수입국가 가운데 이슬람 국가인 중앙아

3) 서성률 외,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 (서울: 21세기 북스, 2017), 8.
4) Philip Jenkins, *God's Contin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4.
5) Ibid.
6) 유해석 『기독교인을 위한 이슬람 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30.

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다.[7]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70%는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유럽 이슬람의 모습은 내일의 한국 이슬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럽의 이슬람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이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본 글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럽의 이슬람인구 성장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한다.

Ⅱ. 유럽과 이슬람의 관계의 역사

1. 이슬람의 시작에서 2차 세계대전까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마지막 전투는 비잔틴 제국과의 전투였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헤라크리우스(Heraclius, 제위 610-641년)는 10만 명의 병력을 끌고 무함마드 군대와 맞섰다.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한 이후 무슬림 세계는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을 정복해 나갔다. 634년부터 638년에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636년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시리아를 정복하였고, 637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 10년 후에 이슬람 군대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이후 70년 동안에 서쪽으로 진군하여 북부 아프리카 전체를 정복하였다. 북부 아프리카를 강화한 후에 8세기부터 15세기 동안 이슬람 군대는 이베리아반도와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프랑스와

7)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수입 국가는 모두 15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이다. 그 가운데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이다.

지중해 서부를 점령하였다.[8] 1453년 3월 29일은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한 날이다. 1480년 로마제국의 마지막 흔적인 이탈리아의 도시 오트란토(Otranto)를 파괴하였다. 그 도시에서 만 이천 명을 죽였고, 성직자들과 지도자들을 톱질로 사형시켰다.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오스만 터키는 유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고, 1683년 신성로마제국의 수도인 비엔나에 가까이 왔다.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유럽과 북유럽의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해적들로 인한 공포 속에 살았고, 무슬림 해적들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유럽과 이슬람 세계의 힘이 뒤바뀌기 시작하였다. 1757년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대가 이슬람 군대를 물리쳤다. 1798년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서 시대가 바뀌었음을 나타났다. 180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유럽은 전쟁과 힘으로 거의 모든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랍세계를 나누어서 통치하였다.[9] 이슬람은 19세기와 20세기 오스만 터키의 분열로 인하여 이슬람이 내리막길을 걷기까지 유럽의 최대의 적이었다. 유럽 역사의 암흑기부터 이슬람은 유럽에 대단한 위협이 되었다. 7세기와 8세기 사이에 이슬람 군대는 로마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프랑스 태생의 작가인 힐러리 벨렉(Hilaire Belloc, 1870-1953)은 1938년에 "유럽인들은 이슬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이슬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쇠퇴해가는 종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은 유럽문명을 상대했던 어마어마하고 집요한 적이며, 과거에 유럽을 위협했듯이 미래에서 위협으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이슬람이 유럽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후손들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사이에 끔찍한 투쟁을

8) Spyros A. Sofos and Roza Tsagarousianou, *Islam in Europ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13), 30.
9) Jenkins, 106-7.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10] 벨기에의 역사학자인 핸리 피렌(Henri Pirenne, 1862-1935)에 따르면 오늘날의 유럽은 이슬람에 의하여 그 지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슬람의 침략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통일된 유럽이 깨졌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삶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변하게 되었다.[11] 유럽과 이슬람은 역사적으로 함께 발생하였으며, 서로에게 도전하는 존재였다.

2. 2차 세계 대전 이후 대규모 이민 발생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이 끝난 후, 서유럽은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남유럽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포루투갈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민 그룹이었다. 또 다른 노동력은 동유럽인이였으나 이는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제약되었다. 그 대신에 유럽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눈을 돌렸다.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에서 노동이민자들이 들어왔다. 1973년까지 약 백만 명의 북부 아프리카 무슬림과 그의 후손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약 4백만 명까지 되었다. 현재 프랑스에 약 6백만 명의 무슬림 가운데 알제리인이 35%를 차지한다. 다른 35%는 모로코와 튀니지 출신이다. 프랑스 이슬람 인구 대부분이 북부 아프리카인이라면 터키인은 독일 무슬림의 대다수를 이룬다. 1961년에 터키인은 단지 수천 명에 불과했었지만, 1976년 약 1백만 명으로 성장하였고, 1990년 중반에는 약 2백만 명으로 늘었다가,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터키 이슬람 인구 중에 3분의 2를 차지한다. 독일은 매일 터키신문이 35만 장씩 팔리고 있다. 모로코인과 터키인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이슬람 인구의

10) Christopher Caldwell,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 (London: Penguin Books, 2010), 92.
11) Ibid.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네델란드에는 수리남에서 온 무슬림이 약 10%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수리남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국의 이슬람은 주로 인도인이다. 약 절반은 파키스탄인이고, 25%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무슬림이다.[12)]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의 인구 중 20%가 무슬림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인구의 40%가 외국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이민자이며, 인구 8명 중의 한명은 터키인이다. 비엔나 인구의 20%가 무슬림이다. 1990년 이후에 두 배로 성장한 것이다.[13)]

3. 영국, 프랑스, 독일 속의 이슬람 성장

유럽에 이민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이슬람이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정치가들이나 평론가들은 이슬람이 유럽의 "제2의 종교"라고 상투적으로 말하면서 자신들이 관대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덴마크의 종교학자 앤더스(Anders Jerichow)는 "우리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이민자들이 30%를 차지하는데도, 공청회를 개최하면 이슬람 종교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슬람을 유럽의 제2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미래의 힘을 감안한다면, 이슬람은 유럽의 제2의 종교가 아니라 제1의 종교이다. 몇몇 서유럽국가에서 교회와 모스크에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비슷하다. 그러나 전체 유럽의 상황을 보면 모스크에 참석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유럽은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가 경고했듯이 아랍세계의 전초기지로는 변하지 않을

12) Jenkins, 107-8.
13) Ibid., 112.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럽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14]

1) 영국의 현상

과거 영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꽃을 피워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었다. 그러나 영국의 기독교 인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에 이슬람은 가장 성장하는 종교가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국은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었다.[15] 188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8명의 이집트인과 44명의 터키인이 살고 있었다. 19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700명의 무슬림이 영국에 살고 있었다. 1930년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Cardiff)에 아랍, 소말리아, 인도, 및 이집트 인구는 1,800명 정도였다.[16] 1940년 초반에는 2,5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규모 이민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1939년 버밍햄의 인도인들은 1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45년 천 명으로 늘어났다.[17] 1951년 영국에는 백인이 아닌 국민의 숫자는 2만 명이 안되었다. 1961년에 영국에 무슬림 인구는 5만 명이었다. 이들은 인구의 약 0.01%였고 전국에 모스크는 7개였다. 그러나 201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무슬림 인구는 약5 000배나 성장하였다.[18] 2011년 인구조사에서 7%가 본인이 믿는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 비공식적으로는 이슬람

14) Caldwell, 142-3.
15) Melanie Phillips, *Londonistan* (London: Encounter Books, 2006), 1.
16) Neil Evans, "Regulating the reserve army: Arabs, blacks and the local state in cardiff, 1919-45," *Immigrants and Minorities*, London, iv (2) July 1985, 84.
17) Humayun Ansary, *The Infidel Within* (London: C. Hurst & Ltd, 2004), 40-6.
18) Richard R. Verdugo and Andrew Milne, *National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USA: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6), 312.

인구는 영국 인구의 약 10%에 가깝다고 추산한다. 이는 약 600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싱크 탱크인 이민 연구소(the migration observatory)의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통계학 교수가 2011년 이슬람 인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3년에 내놓은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이민 추세로 계속 간다면 2060년에는 영국에서 백인 영국인이 소수민족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무슬림 인구와 출산율에 근거하면 2030년에 약 15%에 이르고 2050년에 영국 총인구의 50%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9]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영국에서 출생 신고된 남자 아기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은 무함마드(Muhammad)와 그 변형으로 집계되었다. 무함마드는 2008년부터 가장 많은 남자아기 이름 1위였다. 여자 아기의 이름으로는 아멜리아(5328명)가 2011년 이후 줄곧 최고 많은 이름인데, 아멜리아도 아랍이름이다.[20]

영국 이슬람 인구 성장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토니 블레어의 연설문 작성자였고 정책에 관여했던 앤드류(Andrew Neather)에 의하면 "신노동당 정부는 대규모 이민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서 그 다양성을 통하여 우파들을 낡은 정치로 만들어서 사회를 바꿀 수있는 기회로 만들었다"[21] 고 하였다. 노동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보수당이 주도하여 1993년에 이민 기본법을 폐지하는 일이었다. 이 법은 기본 목적법(Primary Purpose Law)으로서 새롭게 영국시민권을 받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인들이 이민법에 반하면 가족이나 배우자를 본국에서 데리고 올 수 없는 법이었다. 이 법을 폐지하면서

---

19) David Coleman, "The shape of things to come: world population to 2050,"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5607125_The_shape_of_things_to_come_world_population_to_2050. 접속, 1919년 5월 9일.

20) 『한겨레』, 2015년 8월 19일.

21) Andrew Neather, *The Nondon Evening Standard*, 23 October 2009.

가족들과 배우자들이 대규모 영국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고 이 법이 폐지된 1997년 이후 10년 동안 영국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구가 50%가 증가하였다.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자 정계로 진출하여 국회의원 중의 14명이 무슬림이며, 내무장관에 사지드 자비드(Sajid Javid)도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며, 파키스탄 무슬림인 사디크 칸(Sadiq Khan)이 런던 시장에 당선되자 무슬림이 런던 시장이 된 것을 기념하여, 이슬람 구호(Islamic Relief)단체는 영국의 5개 대도시의 2층 빨간 버스 640대에 '알라에게 영광을'(Subhan Allah) 이라는 광고를 선보였다.[22)]

지금까지 영국의 이슬람 인구가 정착하게 된 배경과 현재 영국 이슬람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1997년 영국의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좌파의 사상과 장기집권을 위하여 무슬림이민자들을 많이 받고 그들에게 지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거로 뽑은 집권당이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얼마든지 법안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 뒤에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번 실수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2) 프랑스의 현상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에서 무슬림 이민의 첫 번째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있었던 약 3만 명 정도 되는 알제리인들

22) 김미나, "英 2층버스에, 알라에게 영광을,"「국민일보」, 2016년 5월 9일.

과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왔다. 대부분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오게 되었고, 175,000명의 무슬림들이 프랑스 군대에 징집되거나 원주민 부대에 편입되었다. 1920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재건을 위한 사업에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약 7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거의 같은 수의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도착하였다.[23)]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노동력이 필요하였다.[24)] 국가를 재건하기 위하여 노동력이 필요한데 당시에는 남유럽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이민 그룹이었다. 또 다른 노동력은 동유럽인이었으나 이는 냉전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제약되었다. 그 대신에 유럽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눈을 돌렸다.

1950년 프랑스 인구조사를 보면 21만 2천 명의 알제리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다. 1952년 프랑스 이민국은 무슬림의 숫자를 50만 명으로 늘려 놓았다. 벤세이키(Bencheikh)의 지적에 의하면 이 숫자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195년대 프랑스에서 무슬림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25)] 1980년 265개였던 모스크는 1999년 1500개로 늘어났다.

프랑스 무슬림들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준들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다. 초기 이민자들은 대부분 문맹이었다. 이민자의 자녀들은 프랑스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지위와 삶의 영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떠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낮은 사회 경제적

---

23) Spyros A. Sofos and Roza Tsagarousianou, *Islam in Europe* (England: Palgrave Macmillan, 2013.), 43.

24) Remy Leveau and Shrieen T. Hunter, "Islam in France", Shireen T. Hunter(ed.), *Islam, Europe's Second Religion: The New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Landscape* (Westport: Praeger, 2002), 4-5.

25) Remy and Hunter, 3.

지위를 가지고 있다. 높은 실업률은 이러한 열등한 지위를 잘 보여준다. 무슬림의 실업률은 평균 10.2%로 프랑스 평균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다.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을 실업률은 33%에 이른다. 이 수치는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브리카르데(La Bricarde)의 무슬림 실업률은 50%에 달한다.[26]

최근의 퓨 리서치에 의하면 2014년에 프랑스 무슬림 인구는 650만 명에 도달했다. 이는 총인구 6,600백만 명의 약 10%이다. 프랑스는 유럽이 어떤 나라보다 무슬림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만성적인 테러와 광범위한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이어갈 수 있다.[27] 파리에서 발행되는 신문 피가로(Le Fiagro)의 기사를 살펴보면 사회주의자들과 이슬람의 협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사회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프랑스 무슬림의 97%가 올랑드를 투표하였다. 그 선거 자체가 전체 표 가운데 110만 표의 차이로 올랑드가 당선되었다. 2012년 대선 중에 프랑스 무슬림 인구가 전체인구 중의 10%에 이르렀고 그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다. 무슬림들의 요구를 들어준 후보가 올랑드였다. 그는 불법 무슬림이민자들 가운데 50만 명의 사면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선거법을 바꿔서 프랑스 국적이 없는 무슬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사회당은 무슬림표로 인하여 정권을 잡게 된 것이다”[28]

3) 독일의 현상

독일은 이슬람과의 관계의 역사는 오스만 터키제국로 인하여 오랜

26) Christopher Caldwell, "The Crescent and the Tricolor," *The Atlantic Monthly*, 286, no. 5 (November 2000): 30.
27) Vincent, 179.
28) Ibid., 150.

역사를 지니고 있다. 1732년 초 프러시아의 황제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I, 1688-1740)는 그의 용병 20여 명을 위하여 1732년 포츠담(Potsdam)에 이슬람기도실을 만들었다. 그의 후계자 프리드리히 2세(독일어: Friedrich II, 1712-1786)는 1740년 술탄 모하메드 2세(Mohammed II)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수 세기 동안 양국 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보여주었다. 무슬림들이 독일에 2세기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지만 1925년까지는 모스크를 허가할 만큼 충분한 인원이 정착하지 않았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위하여 싸우는 수만 명의 외국인 무슬림을 위하여 이맘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도왔다.[29] 참고로 독일과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다.

터키인들은 1960년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하기 위한 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독일과 터키가 맺은 노동이민협정에 따라 이주 노동자(Gastarbeiter)로 독일에 왔다.[30] "당시에 미국의 대규모 원조로 인하여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1960년에 들어서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에는 독일인 노동자만으로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는 당시 고용상황을 집계한 통계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61년 50만 개의 일자리가 공급되었으나 독일 출신 구직자들은 18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이었다."[31]

첫 번째 고용협정은 1961년 터키와 처음으로 맺어졌다. 우선 132,800명의 터키인들이 독일로 이주하였다. 1963년 모로코와, 1965년 튀니지와 맺어졌다. 결과적으로 독일의 가장 큰 무슬림 그룹은 이 세 나라로부

29) Fetzer and Soper, *Muslims and the State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99.
30) Sofos and Tsagarousianou, 90.
31) 박규정, "독일사회와 무슬림 터키공동체," 이태숙.김종원『서유럽 무슬림과 국가 그리고 급진 이슬람주의』(서울: 아모르문디, 2009), 137-8.

터 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독일은 단기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독일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미숙련노동자들을 숙련된 노동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자들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32] 이러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 노동자들은 47만 명에 달하였다.

또 다른 이민의 물결은 19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까지 내전으로 인하여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민자들이 난민법 16조에 의하여 독일에 들어오게 되었다. 박해받는 자들에 대한 망명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연평균 7만 명이 난민이 들어왔고,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으로 또 다른 무슬림들이 이민의 물결을 일으켰다. 19만 3천 명이 들어왔고, 1991년에 25만 6천 명으로 급등하였다. 대부분 보스니아 사람들이었다. 1999년 발효된 시민법 개정으로 34만 명의 터키인이 귀화하였고 독일에서 터키인의 숫자는 240만 명이 되었다.

1961년 독일에는 6,500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었다. 1989년 180만 명이 되었다. 2002년 340만 명의 무슬림이 독일에 살고 있었다.[33] 프랑스 이슬람 인구 대부분이 북부 아프리카인이라면 터키인은 독일 무슬림의 대다수를 이룬다. 독일은 매일 터키신문이 35만 장씩 팔리고 있다.[34] 외국 노동자들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은 초기에는 무시와 차별을 당했지만 동일한 기독교 문화 배경, 유사한 피부색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독일사회에

32) Andreas Goldberg, "Islam in Germany", Shireen T. Hunter(ed.), *Islam, Europe's Second Religion: The New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Landscape* (Westport: Praeger, 2002), 30.
33) Fetzer and Soper, 102.
34) Jenkins, 107-8.

안착하였다. 그러나 무슬림 이주자들은 독일 사회의 일환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25%가 무슬림으로서 앞으로 인구 성장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35)]

독일에 거주하는 2세대내지 3세대 터키인들은 교육 및 직업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고,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주류사회의 장벽이 높고 또한 독일인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터키인의 65%가 자주 차별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독일 사회가 자신들을 2등 시민으로 다루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외국인 혐오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유럽 문화와 이슬람문화와의 차이로 인하여 '유럽 사회를 위협하는 이슬람,' '문화충돌'을 부각시킬 때 사회통합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4) 북부 유럽의 현상

1970년 스웨덴은 선진국 중 4번째 부유한 국가였으나 1995년 15위로 하락했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지난 20년 간 이민으로 인해 스웨덴 도시의 면면이 바꾸기 시작하였다.[36)] 2011년 스웨덴 사회 보험국과 복지 이사회에서 발표된 공식적인 정부 기록을 분석한 통계는 스웨덴이 거대한 다문화 붕괴에 잠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라스 얀손(Lars Jansson)은 이민으로 인하여 스웨덴 납세자들이 매년 270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하고 스웨덴의 이민자의 74%가 전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했다.[37)]

---

35) 유해석,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104.
36) Gavin Cooke, *Britain's Great Immigration Disaster*(Peterborough: FastPrint Publishing, 2012), 145.
37) David Vincent, *2030: Your Children's Future in Islamic Britain* (UK: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에서 천 명이 넘는 스웨덴 여성들이 무슬림 이민자에 의하여 강간당했다고 신고했다. 그 중에 300명 이상은 15세 미만이었고 2012년 수치와 비교하여 강간 건수는 16% 증가하였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강간이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다[38] 노르웨이 한네 허랜드(Hanne Herland)는 Alam! Thoughts on a Culture Crisis 라는 자신의 책에서 "노르웨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슬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39]라고 썼다. 노르웨이의 금발의 여성들은 무슬림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무리를 지어 다닌다. 2001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강간 사건의 65%는 무슬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남성들에 의하여 일어났다. 경찰 보고서는 오슬로에서 일어난 강간 통계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놓았다. 이 보고서는 2010년 당시 노르웨이 인구의 1.5%에 불과한 무슬림들이 나라 전체에서 일어난 강간의 50%를 차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40]

덴마크 정부 통계자료들과 이민과 통합에 대한 덴마크의 사회당 대변인인 리트 비에르가르드(Ritt Bjerregaard)의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복지의 총지출 중 40% 이상이 비생산적인 무슬림 인구를 지탱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이 덴마크의 통계다.[41] 2010년 덴마크의 일간지 윌란드 포스텐(Jyllands-Posten) 은 자체 내의 독립적인 조사를 실사하였다. "덴마크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가 복지 지출의 40%를 차지하며, 50%의 혐의를 받은 강간자들 그리고 코펜하겐(Copenha

Amazon, 2015), 182.
38) Vincent, 183.
39) Cooke, 149.
40) Vincent, 118.
41) Ibid., 29.

-gen)의 모든 범죄의 70%를 일으킨다. 또 다른 도시 타스트럽(Taastrup) 시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과 그의 후손이 전체 인구의 21%인데 모든 복지혜택에 대한 사기 사건의 75%의 배후라는 것을 보여준다."[42]

덴마크 정부가 200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근친결혼을 하는 이슬람 배경을 가진 이민자 자녀 중 3분의2가 10년 동안 덴마크 학교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4%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교육에 대한 추가 비용지출은 덴마크 학교재정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국립과학원(TNAS)의 연구에 의하면 근친결혼은 "IQ 70 이하의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일반 부모에서는 1.2%이며 근친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6.2%로 이는 400% 이상 높은 수치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악성종양, 선천적 기형, 정신적 지체 및 육체적 장애가 보통부모 사이의 아이보다 근친결혼을 통한 아이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의 지출을 높이게 된다.[43]

네덜란드의 대부분의 무슬림은 암스텔담에 거주하며 도시 전체 인구의 13%가 무슬림이다. 네덜란드 열린사회 연구소(Open Socity Institute Monitoring and Advocacy Programme)에 따르면 암스텔담에 사는 무슬림들은 모로코인 6만 3천 명, 터키인 3만 8천 명, 수리남 무슬림 7만 천 명, 이집트, 남아시아등 75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

2004년 11월 네덜란드의 다큐멘타리 감독인 데오 반 고흐(Theo van Gogh)가 이슬람의 여성관을 비난하는 내용인 '굴종'(Submission)이라는 다큐멘타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모로코

42) Vincent, 190.
43) Ibid.

무슬림 2세인 모하메드 보예리(Mohammsd Bouyeri)에 의하여 살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슬람과 유럽은 서로 적대적이며 상호배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답은 절망적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 출신 학자 바삼 티비(Bassam Tibi)는 버나드 루이스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유럽은 지금 "이슬람이 유럽화 되든지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4] 노르웨이에서 출생한 이슬람의 지도자인 뮬라(Mullah Krekar)가 "유럽의 인구 성장률을 보라. 무슬림 인구는 모기처럼 증가하고 있다. 서유럽의 여성들은 평균 1.4명의 자녀를 낳는다. 그러나 서유럽의 무슬림들은 평균 3.5명을 낳는다. 2050년까지 유럽인구의 30%는 무슬림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45] 덴마크의 국회의원 모텐(Morten Messerschmidt)은 "2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0, 40년 안에 유럽은 무슬림이 대다수의 인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유럽 문명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46]

Ⅱ. 유럽 이슬람의 성장원인

적어도 이민 초기에 무슬림들이 유럽 땅에서 눌러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유럽인구의 5-10%가 무슬림인구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유럽인은 없었다. 1970년대 후반에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는 프랑스에 200만 명의 이민자와 백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때, 노동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44) Spyros A. Sofos and Roza Tsagarousianou, 20.
45) Jenkins, 8.
46) Ibid., 6.

잠시 유럽에 와서 돈을 벌고 나서 자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그러나 조국에서의 억압과 차별을 피하여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민자와 난민자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다.[47] 무슬림의 숫자는 빠르게 늘어갔다. 아일랜드부터 러시아까지 이르는 유럽 전체에 1970년에는 1천 8백만 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 들어서 3천2백만 명이 되었다.

1. 이민

유럽은 현대 역사에서 최초로 이민자들의 대륙이 되었다. 유럽 사람들의 평균 19%만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답변하였다. 유럽인의 평균 57%는 자신의 나라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이민자를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민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반대가 늘어난다. 영국 사람들의 69%가 이민자가 너무 많고 이민자를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프랑스국민들의 73%가 외국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이민자를 반대한다고 답변하였다.[48]

2. 다산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이민 때문만은 아니다. 무슬림의 높은 출산율도 한몫하고 있다. 1991년 버밍햄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총인구의 7.1%에 육박했으며, 2025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여성의 출산율은 일인당 1.32명이고 개신교는 1.21명이다.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은 0.86이였다. 그러나 무슬림

47) Jenkins, 112.
48) Caldwell,, 5.

여성은 평균 2.34였다. 비엔나의 인구통계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 15세 이하의 오스트리아인들은 무슬림이 되고, 오스트리아인 대다수가 무슬림이 될 것이다. 벨기에에서는 무슬림의 출생율이 벨기에인들보다 2.5배 높다.[49]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은 한 여자가 평균 4명의 자녀를 낳고 있다.[50] 영국에서 무슬림 여성은 평균 6-7명의 자녀를 낳는다.[51]

유럽인들은 이민자들의 빠른 인구증가는 곧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슬람권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의 인구통계학은 유럽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고 하였다. 또한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 "결혼하라 그리하면 내가 많이 낳게 할 것이다."(Ibn Majah 1:599)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이슬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다.[52]

3. 결혼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부모가 주선한다. 독일 가족부에 따르면 독일에 살고 있는 터키여성의 경우에 결혼식을 하지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터키본토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일은 가장 흔한 일이다.[53] 최근 옥스퍼드 내 파키스탄 공동체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무슬림의

49) Ibid,, 97.
50) Graeme Wilson, 'A Major Minority', *The Sun,* 12 December 2012.
51) Macer Hall, 'Fury over 'babies for benefits' claim', *Daily Express,* 15 September 2011.
52) Caldwell, 12-3.
53) ibid., 185.

70-71%는 파키스탄에서 온 사촌과 혼인이 이루어졌다. 영국 파키스탄 무슬림 사이에서 혈연간의 결혼비율이 세대 간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54]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터키계 독일인들은 배우자를 터키에서 데리고 온다. 유럽 전역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결혼을 통하여 이민 오는 숫자는 1990년 23,000명에서 2004년 60,000명으로 증가했고, 시민권을 신청한 78%가 가족들과 관련된 신청이었다. 덴마크에서 터키와 파키스탄 이민 1, 2, 3세대의 다수가 본국에서 결혼상대자를 찾고 있었다. 터키 출신들의 90%는 본국에서 배우자를 데리고 왔다.[55] 결혼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유럽사회에 동화되기보다 분리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56]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꾸란 2:221). 반면에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꾸란 5:6). 무슬림 남성은 꾸란의 명령에 따라서 무슬림 여성,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기에 유럽 현지인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기독교 여성과 결혼을 한다. 그 사이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이슬람법이기에 세대가 갈수록 이슬람 인구는 늘어간다.

4. 개종

영국의 백인 무슬림은 21만 260명[57]이다. 영국에서 과거에 인구조사

54) A. Shaw, 'Kinship, Cultural Preference and Immigration: Consanguineous Marriage among British Pakistanis',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n.s.7 (2001). 327.

55) 여기에서 아시아라는 하는 것은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이슬람 국가에서 이민 온 나라들을 의미한다.

56) Caldwell, 184.

57) Richard R. Verdugo and Andrew Milne, *National Identity: Theory and*

를 할 때 종교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인구조사에 종교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5,200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 영국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3분의 2가 여성인데 이들은 결혼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사회에 환멸을 느껴서 개종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가 주는 소속감을 찾아서 이슬람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58] 독일 무슬림 인구 가운데 약 10만 명은 게르만 독일인이다.[59] 독일에서 일 년에 약 4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약 5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고,[60] 이탈리아 여성과 무슬림 남성간의 결혼도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전년 대비 10% 늘어난 2만 건에 이른다. 프랑스 개종자들의 4분의 1은 살라피스트(이슬람원리주의자)로 본다.[61]

5. 난민

난민들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집단이 아니다. 그들은 폭력과 부패로 얼룩진 사회의 산물이다. 전쟁과 테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난민들이 발생하고 그들은 망명을 요구한다. 최근에 이슬람 세계(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터키동부)에서 난민이 발생하였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에 몇만 명의 이라크인들이 난민이

Research (USA: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6), 312.

58) 김동조, 『유럽 속의 독일사회와 이슬람』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7), 142-3.

59) Jenkins, 226.

60)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유럽인들에 대한 참조 문헌: Ali Köse, *Conversion to Islam* (London/New York: Kegan Paul 1996); Jonathan A. Romain, *Your God Shall Be My God* (London: SCM, 2000); Anne-Sofie Roald, *New Muslims in the European Context* (Leiden: Brill, 2004); Mark Sedgwick, *Against the Modern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Karin van Nieuwkerk, ed., *Women Embracing Isla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2006).

61) Jenkins, 226.

되어 스웨덴으로 망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스웨덴은 2000년에 20만 명에서 40만 명의 이슬람 인구가 급증하였다. 2006년 유엔난민 고등관에 따르면 전 세계에 920만 명의 난민이 망명신청을 하였다. 2001년에 많은 난민 망명을 받아들인 덴마크는 3년 후에 망명 신청자 중에 10분의 1 정도만 망명을 허락해 주었다. 유럽국가 중에서 극히 소수의 국가만이 망명이 거부당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망명이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80%에 육박한다. 망명자들의 건강문제는 NHS(영국국가의료기관)에서 맡아야 하는데 많은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2002년에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110,700명 가운데 17.5%가 이라크인이었고, 8%가 아프가니스탄, 7.5%가 소말리아인이었다. 망명자의 대부분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다.[62] 최근에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오고 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2017년까지 독일이 약 141만 명, 프랑스가 약 40만 명 이탈리아가 35만 명, 스웨덴이 33만 명, 오스트리아가 17만 명의 난민들이 정착하였다.[63]

Ⅳ. 유럽의 다문화 시작의 배경

1. 노동력 부족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또 부상을 당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으로 인한 폐허를 복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갈수록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인종차별주의자들로부터

62) Peter G. Riddell, *Christian and Muslims* (London: IVP, 2004), 5.
63) 정시행.이상우, "전 세계 난민 6850만 명… 2차 대전 난민보다 많다,"「조선일보」, 2018년 6월 20일.

시작된 전쟁의 피해를 알고 있던 유럽인들은 다문화 사회를 건설함으로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값싼 노동력과 함께 이민자들이 유럽에 들어왔다.[64]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식민지 사람들을 이민 오게 함으로서 노동력의 부족을 채워나갔다.

2. 저출산

저출산으로 인한 유럽의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하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20살부터 24살의 여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를 갖는 것이 1.7명이라도 대답했다. 이탈리아의 출생률은 1984년 1.5명 아래로 떨어져서 현재는 1.28명 수준이고, 스페인도 비슷한 실정이다. 동부 유럽도 평균 1.2에서 1.3명을 낳는다. 독일의 출산율은 1.39명이지만 이는 대도시의 출산율이지 지방의 경우에 2차 세계 대전 마지막 해보다도 낮은 1.0명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여성의 24-30%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2050년에 20%의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65]

이슬람은 1970년에서 지난 2천 년 사이에 4배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럴 것이라고 본다. 이미 프랑스 인구의 10%는 무슬림이고, 2050년이 되면 20-25%를 차지할 것이다. 이미 무슬림은 25세 이하의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20%의 인구를 차지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1990년과 2005년 사이에 무슬림 인구가 2배로 늘었다. 이민은 계속해서 이슬람의 성장을 부추긴다. 유럽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이슬람의 성장은 더 큰 비중을

64) Humayun Ansary, *The Infidel Within* (London: C. Hurst & Ltd, 2004), 51.
65) Jenkins, 6-7.

차지할 것이다.[66]

3.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사회를 말한다.[67] 현재 유럽은 4명의 젊은이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18-34세로 젊은 편이며, 그들의 이민은 인구의 평균연령을 낮추기 때문에 처음에는 4:1비율보다 조금 높은 비율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며 이는 총인구의 엄청난 증가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노인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답은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1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인구가 2051년까지 1억1천 9백만 명이 달성되어야 한다. 2100년에는 3억 3백만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영국은 문명화된 국가가 아닐 것이다.[68] 유럽인구의 약 4분의1이 60세 이상의 노인이다.[69] 반면에 14세 미만의 인구는 16-20%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의 고령화는 계속될 것이다. 2050년에는 유럽 인구의 40%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 전체 평균연령은 현재 37세에서 52.3세로 높아질 것이다.[70]

---

66) Ibid., 118-9.
67) 최윤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51.
68) MigrationWatchUK, *Immigration and Pensions study* (1.24) 25 January 2010.
69) Caldwell, 14.
70) Jenkins, 7.

Ⅴ.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의 배경

동질문화권의 이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겨다 주지 않았다. 유럽 안에서의 유럽인 이주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이슬람과의 만남은 더욱 그렇다. 1,400년 동안 유럽과 이슬람은 서로 경쟁했으며, 서로 적대하고 때때로 서로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순수 이민자들은 일 년에 약 170만 명으로 집계된다. 20세기 중반에 서유럽에는 무슬림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21세기에 들어서자 프랑스에 500만 명, 독일에 400만 명, 영국에 200만 명의 무슬림을 포함한 서유럽에 1,700만 명의 무슬림이 존재했다.[71]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하였다.[72]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73]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자 2월 7일 영국의 신문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의 칼럼이스트 레오 미킨스트리(Leo McKinstry)는 유럽에서의 다문화

71) Caldwell, 5.
72) 『한국일보』, 2011년 2월 23일.
73) 『연합뉴스』, 2011년 11월 30일.

실패 원인을 4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이슬람 테러리즘 둘째,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셋째, 폭력적인 범죄 넷째, 마약이다.[74]

1. 무슬림에 의한 테러

이슬람의 세계관은 이슬람이 지배하는 평화의 집(Dar al-Islam)이고 나머지는 전쟁의 집(Dar al-Harb)이다. 무슬림들이 평화의 집에 살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전쟁에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래 전쟁은 테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슬람의 법에 의하면, 전쟁은 전투적 행위를 가리킨다. 이슬람에서 자살은 죄로 간주하고 자살을 하면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 규칙과 신앙은 이전의 이슬람 시기에도 존중되었다.[75] 그러나 현존하는 테러는 급진 이슬람에 의하여 재해석되었다. 원리주의 지도자들은 지하디스트들이나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유의 전사들'(freedom fighters)로 인식한다.

꾸란의 지하드는 이슬람의 구원관과 관련이 있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에 천국으로 안내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꾸란 4:74,[76] 3:169[77]).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하여 테러가 지하드로 바뀌자 테러가 이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행위가 되었다. 따라서 좌절하고 분노한 젊은이들에 의하여 테러가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자살폭탄 테러범은 또 다른

74) Leo McKinstry, "The Pm's Right Speak Out Against Multiculturalism", *Daily Express*, 7 February 2011.

75) Bernard Lewis, *Europe and Islam* (Washington: The AEI Press, 2007), 9.

76)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꾸란 4:74).

77)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노라"(꾸란 3:169).

테러범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우리가 런던에서 테러로 인하여 감시하는 사람은 수천 명(Low thousands, 보통 1천 명-3천 명)정도 될 것“[78] 이라고 말했다.

2. 무슬림에 의한 성폭력

유럽으로 오는 무슬림들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종속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이슬람문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남녀가 동등한 사회이다. 이슬람 남성들은 베일을 쓰지않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한다.[79] 이슬람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

영국 국회 청소년 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 부대표인 수(Sue Berelowitz)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4개월 동안 영국에서 2,409명의 소녀들이 아시안 조직폭력배들에 의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였다.[80] 영국에서 아시안 조직폭력배는 무슬림 조직폭력배를 의미한다.

3. 폭력적인 범죄

프랑스 감옥의 반 이상이 무슬림이며 어떤 감옥은 수감자의 80%가 무슬림인 감옥도 있다. 이탈리아 인구 중 무슬림은 2%정도에 불과하지

78) Michael Holden, 'London mayor says UK spies monitoring thousands of terrorism suspects', *Daily Mail*, 11 October 2014.
79) Caldwell, 174.
80) Andrew Norfolk, 'Role of Asian gangs is played down by report on thousands of child sex victims', *The Times*, 21 November 2012.

만 이탈리아 감옥의 평균 30%가 무슬림이다.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영국 감옥에서 이슬람 인구가 40%가 증가하였다.[81] 영국의 조사기관인 파수꾼(watchdog)에 의하면 영국의 교도소에 있는 15세에서 18세 죄수들 가운데 20%는 무슬림이다. 무슬림 수감자들 중 65% 이상이 18-30세 사이의 젊은 무슬림들이였다. 1991년에는 영국 교도소에 무슬림이 1,957명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무슬림 수감자가 11,68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2년 만에 596%증가한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 가장 강력범들을 수감하고 있는 캠브리지주(Cambridgeshire)교도소의 경우에 10명 중 4명이 무슬림이다. 런던의 벨마쉬(Belmarsh) 교도소의 경우에는 전체 수감자의 3분의 1이 무슬림이다.[82]

4. 마약

젊은 무슬림들은 학교의 무단결석, 반달리즘, 마약밀매, 범죄 및 조직폭력배들이 성장하였다. 브레드포드, 버밍햄, 런던의 빈민가에는 실업율, 도시부패 및 공동체의 부패를 경험한 젊은 무슬림들이 가족을 벗어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마약을 모아 팔고 있다. 1990년대 영국 감옥에는 무슬림 수감자들의 숫자가 급증했으며 그 중의 4분의 1이 마약관련혐의로 잡혀온 사람들이였다. 런던의 타워 햄릿(Tower Hamlets)의 자치구 경찰발표에 따르면 마약 관련 혐의를 받은 사람의 50%가 빙글라데시 젊은이들이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마초를

81) Elizabeth Poole, *Media Representations British Muslins Reporting Islam* (New York: I.B.Tauris & Co. Ltd, 2002), 20.

82) Lucy Crossley, 'Rising number of 'convenience Muslims' behind bars threaten order in jails and are tomorrow's extremists, warn prison officers', *The Times,* 1 April 2014.

이용하고 있다.[83] 이들은 마약 복용으로 인한 범죄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흑인과 소수민족이 전체 수감자의 42%에 이른다.[84]

VI.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 증가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1. 근친결혼

유럽에 살고 있는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본국에서 부인을 데리고 온다. 대부분의 부인들은 사촌 관계이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신부들의 인권침해는 심한데 보통 15세나 16세에 결혼을 하여 독일에 들어온다.[85] 2010년 BB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모든 파키스탄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55%)사촌과 결혼했다. 이러한 근친결혼으로 인하여 영국에 사는 파키스탄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13배 이상 유전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파키스탄 사람들의 출생율은 영국 출생율의 3%를 차지하지만 파키스탄 아이들 전체의 유전적 선천적 결손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33%를 차지한다.

덴마크 출신 심리학자 나콜라이(Nicolai Sennels)는 무슬림 근친결혼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무슬림 결혼 패턴의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낮은 지적용량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의 자료는 근친결혼은 무슬림들의 IQ가 10-16점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낮은 IQ와 비판적

83) Humayun Ansary, 218.
84) Richard Ford, Muslims '20% of young offenders', *The Times*, 7 December 2012.
85) Jenkins, 183.

사고를 금지하는 이슬람 종교로 인하여 무슬림들이 최첨단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공식적 통계로 '정신지체'로 분류되는 IQ 70보다 낮은 IQ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400배나 높다.[86] 또한 "악성종양, 선천적 기형, 정신적 지체 및 육체적 장애가 보통부모사이의 아이보다 근친결혼을 통한 아이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 근친결혼을 하게 되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2배가 넘는 것이다. 이는 영국 NHS (Nation Health Service, 국가의료서비스)의 지출을 높이게 된다.[87]

2. 샤리아 법의 도입

유럽에 사는 무슬림 공동체 밖에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지만 무슬림 공동체 안에 서는 이맘과 연장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신본주의적 이슬람 규범 안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세속법을 반대하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고 남녀평등을 반대한다.[88] 이슬람 수용 사례는 샤리아법의 도입이다. 영국에 무슬림 인구가 약 100만 명이 되었을 때, 1982년 영국 버밍햄에서 이슬람법을 적용하기 위한 영국샤리아위원회(Islam Sharia Council of the UK and Ireland)가 설립되었다. 무슬림들은 무슬림 법 샤리아(Sharia)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법체계가 설립되었다. 이후로 지역마다 샤리아 법정이 생겨났다. 샤리아(Sharia)는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샤리아를 적용하는 법정이 현재 영국 사법제도로 공식 편입되었다. 샤리아 법정의 부상은 영국법의 종말을 의미하며

86) Nicolai Sennels, 'Muslim Inbreeding: Impacts on intelligence, sanity, Health and Society,' *Europe News*, 9 August 2010.
87) Nicolai Sennels, 'Muslim Inbreeding: Impacts on intelligence, sanity, Health and Society', *Europe News*, 9 August 2010.
88) Jenkins, 17.

영국의 정의, 영국의 법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3. 모스크의 급격한 성장

모스크라는 말은 아랍어의 마스지드(Masjid: 원뜻은 '엎드리는 곳')에서 나온 말인데 기독교의 교회나 유대교의 시나고그(Synagogue)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이다. 물론 일주일에 한번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서로 통하지만, 동시에 무슬림 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만일 유럽인들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시작한 터키, 모로코, 알제리 등에서 무슬림들이 들어올 때, 5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모스크들이 늘어갈 것을 예측했다면 이민정책을 절대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89] 1980년대에 매주 두 개의 모스크가 세워졌다. 700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었다. 통계적으로 약 1800개의 모스크와 3000에서 5000개의 이슬람 센타와 꾸란 학교가 있다.[90] 유럽 전체에는 약 9천 개의 모스크(Mosque)와 기도처소(Musalla)가 있는데, 약 7천 개의 모스크가 서유럽에 있는데 그중에 80%가 서유럽 세 나라에 있다. 독일 2,400개, 프랑스 2,000개[91]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를 합쳐서 1,000개가 있다.[92]

89) Caldwell, 91.
90) 'Britain, Bengali but British', Go, Interserve, 2nd Quarter 1996, 8. 참고로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스웨덴에는 250개의 모스크가 있고, 덴마크에는 150개, 프랑스에는 약 1,500개의 모스크가 존재한다. 독일은 2,600개의 모스크가 있다.
91) Jenkins, 116.
92) Jytte Klausen, *The Islamic Challen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9.

4. 여성할례

무슬림 여성들에게 순결은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서양 여성들은 성적인 자치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 처녀성에 대하여 무슬림 부모들은 유럽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자신의 딸에 대한 처녀막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여성의 성욕을 절제시키기 위한 여성 할례는 유럽에 살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시행되고 있다. 암스텔담 자유 대학교(Fre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슬람 사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다. 여성 할례는 음핵을 제거하는 것과 음부를 꿰메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93]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약 17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영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법이 잘 지켜지지 않자 2003년에 더욱 강화하였다. 다른 나라에 가서 수술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11살 이하의 어린이 가운데 약 24,000명의 여자아이들이 이 수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언제 수술이 이루어질지 모른다.[94] 유니세프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2천 5백만 명의 여자 어린들과 여자 어른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95]

5. 흑인들의 이슬람 개종

1990년대부터 영국에서 흑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96] 그런데 흑인 무슬림 개종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

93) Caldwell, 174.
94) Lucy Bannerman, “I was so shocked. This has to stop,” *The Times*, 25 January 2014.
95) Ibid.

인들이었다.[97] 그러나 지금은 영국 흑인 사이에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다. 영국 무슬림의 3분의 1은 중동이나 아시아인이 아니다.[98]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99]

흑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유는 첫째, 흑인들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영국 교회는 인종차별적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이슬람은 영국의 교도소를 선교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이슬람교는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셋째, 노예제도에 대한 반성 없는 교회의 태도는 흑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넷째, 흑인들에 대한 이슬람의 관심과 흑인들의 종교가 원래 이슬람교였다는 무슬림들의 주장이 흑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왔기 때문이다.

6.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

유럽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슬람을 자국화하기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무슬림들에게 당신의 국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프랑스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프랑스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것이다.[100] 무엇이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가? 라는 질문에 무슬림 학생들의 3분의 1은 종교라고 답했고, 프랑스라고 대답한 학생은 단지 5%에 불과했다.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7년 싱크 탱크인

96) Richard S. Reddie, 7.
97) Ibid., 8.
98) Census, April 2001, Office for National Stats. istic.
99) Laura Smith, 'More Switch to Faith', *The Guardian*, 16 July 2005.
100) Caldwell, p. 139.

Police Exchange는 영국 무슬림의 3분의1(31%)이 자신이 영국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 무슬림들이 더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대상자 중에 절반만인 영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에 속해있다는 유대감이 45세 이상이 55%, 18세-24세가 45%로 조금 더 높았다. 영국 군대는 무슬림들을 영국군으로 입대시키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 영국군대에 입대하는 숫자는 영국인들에 비하여 20분의 1에 불과하다.[101] 유럽에서 이슬람의 열정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85%의 무슬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을 "매우 중요하다"고 묘사하였으며, 무슬림이 아닌 학생들은 35%밖에 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무슬림 학생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독실함이 더욱 많이 펼쳐있다. 터키 무슬림 학생들은 68%가 자신들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답했으며, 독일인 학생들은 6%만이 동일하게 대답하였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유럽 무슬림의 70%가 금식을 한다.[102]

7.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18세기 기독교를 공격한 계몽주의의 주무기인 '조롱'이였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989년 인도계 영국작가였던 살만 루디시(Ahmed Salman Rushdie)는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다. 이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이 하디스에 근거하여 무함마드가 악마로부터 계시를 받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소설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였다고 보고, 그에 대하여 살해 명령을 내렸

101) Ibid., 127-8.
102) Ibid., 143.

다. 프랑스인 학교교사인 로버트는(Robert Redeker)는 2006년에 프랑스 잡지 피가로(Le Figaro)에 논평을 쓰면서 “무함마드는 증오의 달인”이였다고 묘사했다고 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작가, 예술가, 그리고 정치논객들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제들을 언급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주제는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8. 이슬람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

유럽에 이슬람이 증가하면서 일어난 희생자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럽연합은 2천만 명이상의 무슬림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의 급속한 확산을 가지고 왔다. 유대인에 대한 무슬림의 증오는 충격적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온 이민자들이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로켓 발사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런던에서 있었던 반유대인 집회에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히틀러가 옳았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지만 경찰도 저지하지 않았다. 그 때 시위현장에 있었던 ‘유럽의 이상한 죽음’(The Strange Death of Europe)의 저자 더글러스 머리(Douglas Murry)는 “몇 천 명의 반유대주의자들이 런던 시내를 마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켄징턴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기 위하여 런던 시내를 가로질렀다. 여성들은 대부분 히잡이나 부르카를 썼고 남성들은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중동복장을 하고 있었다. 좌파와 연합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비슷한 시위들이 비슷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유럽사회의 동화를 거부한 무슬림 이민자들은 반유대주의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유럽에 온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이맘들로 인하여 타오르고 있다.[103)]

그렇다면 왜 무슬림들은 유대인을 미워할까? 꾸란에 나와 있는 유대

103) Vincent, 168.

인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꾸란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알라께서 그들을 저주했다(꾸란 5:78). 유대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이다(꾸란 5:64). 유대인들은 현세의 삶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꾸란 2:96). 알라께서 죄를 지은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로 바꿔 버렸다(꾸란 5:60; 7:166; 2:65). 유대인들은 성경을 변조했다(꾸란 2:75).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슬람의 최대의 적이 된다(꾸란 5:82).

9.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에 사는 이슬람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다. 명예살인이란 가족 혹은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혹은 조직 내 구성원을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유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것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문화에서 일어난다. 아랍어로 '명예'를 의미하는 단어 '샤라프'(sharaf)는 여성의 '정조'를 의미한다. 아랍세계에서 남성의 명예와 가문의 명예는 전적으로 가문 여성들의 정절에 달려있다는 의미이다. 명예살인은 그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며,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성의 명예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여성을 치부하는 사고방식이 명예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104]

다문화주의는 이슬람원리주의를 이슬람 국가보다 유럽에서 더욱 쉽게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105] 명예살인은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 2005년 독일연방범죄 조사국에 따르면

104) 오은경, 『베일 속의 이슬람과 여성』 (서울: 프로네스네, 2008), 19.
105) Jenkins, 186.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에서 45건의 명예살인이 이루어졌다.[106] 이슬람에서 남성은 자신의 여성인 부인, 또는 딸들과 그들의 공간인 집을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을 통하여 명예를 획득하며 사회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여 공적인 명예를 지킬 것을 강요받는다.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그녀를 벌주기 위함이라기보다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다.[107]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에 의하면 오늘 날 전 세계에서 무려 1년에 5,000명 정도로 하루에 평균 14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108]

10. 일부다처제실행

꾸란은 일부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109] 일부다처제가 허용된 것은 우후드(Ohud) 전투에서 많은 남성이 사망한 이후였다. 우후두 전투에서 700명의 무슬림 중에 70명이 사망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망인들과 포로를 돌보아 줄 성인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부다처가 제시되었다. 꾸란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구절을 보면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을 허용하고 있다.[110] 그러나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 경우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111] 모든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다

106) Caldwell, 178.
107)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남성이 부재 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꾸란 4:34)
108) 오은경, 20.
109) Ibid., 34.
110)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둘, 셋 또는 넷을 취할 것이다."(꾸란 4:3)
111) 최영길, 『이슬람의 전통과 생활관습』(서울: 알림, 2002), 81.

처제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슬람 인구 가운데 5-10%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영국정부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일부다처를 인권차원에서 받아들이며, 2008년 2월 연금공단(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는 일부일처 외의 결혼을 승인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112] 일부다처는 프랑스에 몇만 가구의 가족이 존재하며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113]

Ⅵ. 한국에 이슬람 인구 성장에 대한 제언(提言)

이슬람에 대한 반응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일 것이다. 루터는 터키인의 위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였다. “목사와 설교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부지런히 경고해야 한다.” 또한 마르틴 루터는 십자군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쟁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114]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을 적그리스도로 인식한 것은 아닐지라도 꾸란에 대한 그의 논박은 강경하고 단호했다. 루터가 무함마드와 꾸란을 비난하는 논점은 악마가 무함마드를 교사하고 있기 때문에 꾸란은 악마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이슬람의 확장은 전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루터는 기독교의 반 이슬람 논쟁자들의 반열에 서 있다. 그에 의하면 이슬람은 사탄의 세력으로서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세속적인 질서도 파괴한다고 주장했

112) Cooke, 99.
113) Caldwell, 183.
114) Hagemann, 156.

다.[115] 루터는 이슬람의 성장과 위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앗수르나 바벨론 제국으로 이해하였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이슬람의 상정을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한국교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 이슬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에 대하여 처음 연구하였던 사람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살았던 요한네스(Johannes)였다. 그는 무함마드(Muhammad, 570-632)가 죽은 지 약 20년 후에 태어났다. 만수르(Mansour)의 명문가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이슬람군주 무아위야 1세(Muawiyah 1, 602-680)아래에서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무아위야 1세의 뒤를 이은 왕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정책을 펴자, 요한네스는 예루살렘 근처의 마르사바(Mar Saba)수도원에 은신하였다.[116] 그는 자신의 신학적 저술인 『지식의 근원』"제 2부 이단에 관하여" 에서 이슬람을 이단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이단이었던 아리우스파 수도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슬람이 시작되었으며, 꾸란에서 예수님은 비록 알라의 말씀이며, 영으로 언급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다"[117] 이라고 했다. 꾸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17번 부정하고 있다.[118] 제네바의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J. Calvin)은 1550년에 집필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주해하

115) Ibid., 152-65.
116) 비교, Joachim Gnilka, *Bibel und Coran: Was verbindet, was sie trennt,* 3. Aufl. Freiburg, 2004. 오희천 역『성경과 꾸란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가?』(서울: 중심, 2005), 37.
117) Ludwig Hagemann, 152-74.
118) Abd al-Masih, *Dialogue with Muslim,* 이동주 역『무슬림과의 대화』(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p. 19.

면서 “무함마드가 배교자가 되어 그의 추종자들인 터키족을 그리스도에게서 따돌리게 되자 이 배신이 더 넓게 확대되었다.”[119] 고 하였다.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무함마드는 거짓 선교자이고,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근거로[120]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슬람은 기독교이단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슬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서 유럽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이슬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2.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2013년 5월에 한국기독교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2012년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이유로 ‘목회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19.6%),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17.7%), ‘헌금을 강조해서’(17.6%)등의 응답이 많았다.[121]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던 교인들이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73%가 기독교인들이다.[122] 이슬람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에는 교리적으로 성직자가 없다. 시아파에 이맘이라는 성직자가 있으나 시아파는 이슬람 전체 인구의 12%정도 된다. 또한 이슬람에는 헌금이

119)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미간행. FIM국제선교회 ‘크리스찬을 위한 이슬람세미나’ 공개강좌 강의안, 2013, 11, 재인용.

120)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2-3).

121) 『서울신문』, 2013년 9월 13일.

122)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가?,”「선교 신학」 38 (2015), 183.

없다. 이슬람의 교리 가운데 5행(行) 중에 자카트(Zakat)가 있다. 이는 자기 수입의 2.5%를 떼어서 구제금에 사용하는 것이다. 꾸란에 언급된 구제금에는 이슬람 사원에 갖다내는 항목이 없다.[123] 개인적으로 구제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이 또한 강제성이 없기에 자유롭다. 이슬람에서의 예배는 어디에서나 하루에 5번씩 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하여 예배하기에 꼭 모스크에 가야한다는 부담이 없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담이 없는 이슬람으로 개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은 종교인구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124]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퓨 리서치 센타(PRC)에 의하면 한국기독교는 2010년과 205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기독교는 몇 퍼센트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125]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교회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루터는 도미니크 수도사인 게오르기우스(Gergius de Hungaria, 1422-1502)가 쓴 『무슬림의 의식과 도덕에 대한 책』(Vorwort zu dem Libellus de ritu et moribus Turcorum, 1530)의 서문을 썼다. 루터의 이 글에서 이슬람의 매력을 정리한 후에 이슬람에 대한 대안을

123) "실로 싸디까는 가난한자, 불쌍한자, 거기에 종사하는자,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을자, 노예, 채무인자, 알라의 길에 있는자, 그리고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니 이는 알라로 부터의 명령이라 알라는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시도다." (꾸란 9:60)

124)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가 쇠퇴할 때, 불교와 천주교는 성장하였다. 2005년 통계를 기준으로 천주교는 186만(1985년 기준)에서 514만 명으로 성장했다. 불교는 1,072만 명으로 늘었다. 심지어 이단들마저 성장했다. 무교(점집)도 40%씩 성장하였다.(최윤식, 79).

125) 서범규.유영, 『이웃 사랑은 가능할까?』 (서울: 한국기독교협의회, 2018), 39.

제시하였다. 대안의 첫 번째는 기독교의 교리문답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십시오. 그대들이 아직 방과 장소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배우십시오. 그것들을 잘 익히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고백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126]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부터 새롭게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기본적인 교리만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문답서, 칼빈에 의하여 작성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비롯하여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서, 벨직신앙고백서 등 기독교의 교리 강해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73%가 기독교인인데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주된 이유는 기독교신학의 복잡성과 모호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127]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루터의 조언에 따라 교리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4.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한국에서 다문화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 새터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2018년 9월 말로서 한국에 살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가 232만 1천 8백 20명이다.[128]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33만

126) Luther, LW 2:192.22-31;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실존적 변증,”『크리스찬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 (서울: FIM국제선교회, 2016), 5.
127)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향하는가?,”「선교 신학」38 (2015), 183.
128)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자료, 2018년 9월 기준.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인구 232만 1천 8백 20명.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29] 다문화자녀들 또한 168,583명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결혼하는 인구의 10쌍 중 한 쌍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한국교회에 기회가 되거나 혹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영국에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흑인들에게 영국교회는 인종적인 차별을 보임으로서 정체성 문제로 낙담한 흑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130] 2012년 한국여성가족부가 전국의 1만5천여 다문화가구를 대상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41.3%에 달했다.[131] 이는 영국보다 심각한 현실이다.

예수님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세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었고 복음을 전하셨다.[132]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9) 이 외에 많은 성경구절이 이방인 혹은 나그네에 대한 구절로 가득 차 있다. 무슬림에게도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

---

129) 서유미, "불법체류자 총 33만 명...올해 10만 명 증가,"「서울신문」, 2018년 9월 23일.
130) Richard S. Reddie, 8.
131) 『중앙일보』, 2014년 9월 24일.
132) 요한복음 4장 1절-15절.

5. 기독교 신앙 전승률을 높여야 한다.

신앙 전승률이란 부모가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불교의 신앙 전승률은 97%이다. 그러나 개신교의 신앙 전승률은 아버지 혼자 믿으면 57%,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에 불과하다.[133] 2013년 한미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독청년 84.5%가 (중학교 이전에 65.1%, 중학교 이후에 19.4%)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승되었다.[134] 반면에 이슬람의 신앙 전승률은 100%에 가깝다. 영국에서 무슬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슬람 방식의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낸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은 담대하게 거절한다. 또한 이슬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타락한 유럽문화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꾸란을 암송시킨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이맘(Imam)을 초대하여 꾸란 과외공부를 시킨다. 타임지에 의하면 영국의 무슬림 사라(Sara Ege)는 7살 아들이 꾸란을 암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서 살해한 일이 있었다.[135] 루터는 1529년에 어린들을 위한 소교리문답서를 작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칼빈 또한 제네바에서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할 때, 어린이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다.

6. 선교해야 한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는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기독교의 중심은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다. 비잔틴 기독교 제국은 아라비아 반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흔적이 없다. 이슬람권을

133) 최윤식, 80.
134) 『기독신문』, 2014년 11월 19일.
135) Simon de Bruxelles, 'Woman beat son, 7, to death and burnt body after he could not memorise Koran', *The Times*, 6 December 2012.

향해 최초로 선교적 접근을 한 사람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1181-1226)였다. 그 후에 프란체스코수도사들이 1219년 다섯 명이 선교사로 모로코로 갔다. 그러나 1년 후에 순교하였다. 레이몬드 룰 Raymond Lull(1235-1316)은 82세의 노구를 이끌고 튀니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자야 해변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헨리 마틴 Henry Martyn(1781-1812)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성공회 목사로서 인도로 가서 동인도회사의 전임 사목으로 있다가 힌두교 성경을 번역했고, 이란으로 가서 이란성경을 번역했지만, 결핵으로 인해 겨우 31세의 나이에 터키 토카트에서 죽었다. 그 후에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 쯔머(Samuel Zwemer, 1867-1952)이다. 학생 신앙운동에 자극을 받고 헌신하여 아랍선교회를 세우고 그의 친구들과 아랍어를 배우기 위하여 레바논에 들어갔으며, 1900년대 초반에 이집트에서 사역하였고 40년 동안 20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다.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에 알렸다. 이것이 20세기 초까지 무슬림을 위하여 사역한 사람들이다. 이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성경이 아랍어로 번역된 것은 이슬람이 시작된 지 227년이 지난 837년이었다. 아랍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고 해도 정작 아랍어 성경이 출판된 것은 1516년이다. 따라서 전 세계 무슬림들의 80%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무슬림들에게 가지고 갈 것[136] 이라는 사실이다. 이 사역에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인들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137]

136)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장 14절).
137) 유해석,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서울: 쿰란, 2003), 292.

Ⅶ. 나가는 글

이슬람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오스만 터키의 술레이만 대제(Suleyman the Magnificent)는 과거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모두 정복한 후에 유럽을 공략하였다. 1521년 베오그라드를 함락했고, 1523년 로도스 섬을 함락했으며, 1526년 헝가리를 함락시켰다. 1529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이 포위를 당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슬람으로 인한 위기의식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많이 연구하였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발전하고 융성했던 곳들이 이슬람으로 대체된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기독교가 종교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이슬람이 몰려왔고 그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상실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그 주권을 이슬람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한국기독교는 초대교회의 원시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성경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이슬람아카데미

2강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

김성욱 교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

김성욱[1)]

I. 들어가는 글

오늘날 이슬람선교는 과거보다 한국교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집중적인 선교사역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2)] 필자의 이슬람선교의 경험은 1999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시작되었다.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민다나오지역에서 이슬람선

1) 총신대학교, 선교학

2) 한국선교KMQ는 지속적으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 논문을 발펴하고 있다. 공요셉,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0-20; 김마가, "무슬림복음화의 국제적 추세,"『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62-72; 김성운, "이슬람종파와 분파,"『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21-35; 김아영, "이슬람의 외면된 전통: 리버럴 이슬람,"『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47-61; 김철수, "대중 이슬람의 종교현상과 선교적 접근,"『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36-46; 전병희, "중남부아프리카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응,"『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06-118; 허보통, "이슬람권 사역자의 안전과 위기관리,"『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35-143; 홍여호수아, "키르키즈스탄 남부지역 분쟁과 선교적 영향 고찰,"『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19-134; 황디모데, "무슬림전도접근의 최근 논의에 대한 우려: 성경신학적 접근의 약화/부재,"『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73-88.

교에 헌신하는 OMF 선교회 선교사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민다나오 부근 해안가에 살고있는 무슬림들에게 유치원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보조교사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성경공부를 진행하여 복음전도와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무슬림 주민들에게 작은 배를 만들어줌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었다. 지혜롭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기독교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역하는 선교현장을 목격하였다. 앞으로 수많은 미전도종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사역은 더욱 한국교회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선교는 21세기 한국선교의 중심적인 선교사역으로 자리 잡고 집중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교사역의 의의와 그 중요성은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삶의 중심에서 최우선적인 사역이며, 개혁주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역을 충성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마28:19-20).[3)]

현대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의 선교사역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선교가 사도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임을 실천한 점이다. 코스타리카 출신 선교지도자 로버트 스트래찬(Robert Strachan, 1910-1965)은 선교는 모든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소명"(Inescapable Calling)을 통해 총체적 선교의 의미를 강조하였다(고전9:16-27).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for I am compelled to preach) 만일 복음을 전하지

3) Johaness H. Bavin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59. "It is indeed the church itself which is called to perform missionary work. There are no other institutions that can take over this responsibility."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9:16) 화란의 개혁주의선교학자 J. H. 바빙크(Johaness H. Bavinck, 1895-1964)는 선교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중간기(interim period)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일한 사역임을 강조하면서, 주님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선교사역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선교는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Missions is that activity of the church - in essence it is nothing else than an activity of Christ, exercised through the church - through which the church in this interim period, in which the end is postponed, calls the peoples of the earth to repentance and to faith in Christ, so that they may be made His disciples and through baptism be incorporated into the fellowship of those who await the coming of the kingdom).[4)]

본 논문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로서 1) 이슬람선교의 중요성과 2) 현대선교를 위한 개혁주의선교신학의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3) 그리고 John Calvin의 선교신학과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선교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4)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혁주의 교회와 이슬람선교의 중요성

21세기 한국교회의 마지막 선교사역은 지상 최대의 미전도종족이 있는 이슬람권에 사는 무슬림선교이다.[5)]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4)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62.

오늘에 와서 미국교회와 함께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선교의 선두주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역의 중복을 피하고 전략적인 선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랄프 윈터(Ralph Winter)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해 온 미전도종족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이 필요하다.[6] 그리고 지구상 최대의 미전도종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권 선교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7]

이슬람선교는 오늘날 선교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지난 2007년 아프칸 선교단 피랍사건 이후에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이슬람권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파송선교사 28000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무슬림선교에 대한 이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더욱이 이슬람권 선교 사역은 세계선교 가운데에서도 가장 전략적인 선교사역의 분야이며, 역사적으로 이슬람권 선교사역은 더 많은 기도와 연구, 후원과 관심, 그리고 철저한 선교준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

5) 김마가, "무슬림복음화의 국제적 추세,"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62-72.

6) 김철수, "대중 이슬람의 종교현상과 선교적 접근,"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36-46; Tetsunao Yamamori, *Penetrating Missions' Final Frontier: A New Strategy for Unreached Peoples*, (London: IVP, 1993), 54-55.

7) 이슬람선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한국교회의 주요관심사가 되었다. 제8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의 주제가 "현대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2016년 8월 27일)으로서,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6년 장로회신학대학원의 등재지 『선교와신학』 봄호(38집)의 주제가 "이슬람극단주의와 기독교선교"로서, 김영동, "종교와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김종일,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갈등 연구," 현한나, "ISIS에 의한 현대판 딤미제도에 대한 고찰과 테러극복을 위한 화해: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정승현, "이슬람을 향한 사도 사무엘 즈웨머의 선교이론 탐구" 등을 발표하였다.

세계 선교역사에서 이슬람 선교에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탁월한 선교사로 앗시시의 프랜시스(Francis of Assisi, 1181-1226)와 레이먼 럴(Raymond Lull, 1235-1315), 그리고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 1867-1952)를 들 수 있다. 앗시시의 프랜시스는 이탈리아 앗시스에서 출생하여 "작은[겸비한] 형제단"(Minor or Humble Brethren)을 창설하면서,[8] 기독 교회의 단순성과 기쁨 회복을 위해 힘쓰면서, 극빈자 구제, 수도원 운동을 펼치면서 중세시대에 이슬람선교에 헌신하였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하며 선교전략으로 이슬람선교에 헌신하였다. 프란시스는 병으로 인해 스페인 무슬림들에게는 선교하지 못했지만, 십자군 초기에 이집트의 술탄(Sultan, 회교도 왕)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다.[9]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 절대 빈곤과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교와 선행을 강조하였으며 그는 선교와 봉사의 과로로 사망하기까지 충성하였다. 프랜시스의 동료들은 아프리카 튀니지를 포함하여, 모로코, 프랑스, 그리스로 선교사들을 파견하였다.

이슬람선교사로서 앗시시의 프랜시스와 함께 레이먼 럴 (Raymond Lull)은 선교역사상 탁월한 이슬람선교학자이며, 철학과 신학에 능통한 자로서 이슬람선교를 체계적으로 실천한 선교학자였다. 특히 어떤 고난을 무릎 쓰고라도 믿지 않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그가 밝힌 이슬람권 세 가지 선교전략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탁월하다. 레이몬 럴이 강조한 이슬람선교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8) 토마스 첼라노,『아씨시 성프란치스꼬의 생애』, (서울: 분도출판사, 1986), 92: 프랜시스는 스스로 수도회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수도회의 회칙인 "작은 자가 되십시오"를 실천하여, "나는 이 수도회를 작은 형제회로 불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9) Williston Walker, 『기독교회사』,(이형기역편),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78), 267.

수 있다.

첫째로, 효율적인 이슬람권 선교는 먼저 무슬림권 언어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지식임을 역설하였으며, 레이먼 럴은 이슬람선교를 위한 언어 연구를 위해 대학을 설립하여 연구하고 실천하였다. 그가 꼭 필수적이라고 지적한 언어들은 히브리어, 아랍어, 시리아어, 그리고 헬라어였다.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언어연구가 선교에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강조한 사람은 레이몬 럴이 처음이었다.[10)]

둘째로, 레이몬 럴이 강조한 이슬람 선교전략으로 책을 저술하여 기독교의 진리가 코란의 내용보다 더 진실하며 합당한 진리임을 논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 레이몬 럴은 무슬림들이 아직도 성경은 오염된 것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꾸란을 더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참 진리에 대한 전달과 학문적인 연구가 무슬림선교에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이다.[12)]

셋째로, 레이몬 럴은 이슬람 선교의 필수요건은 영혼구혼의 열정과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무슬림 속에서 살면서 충성스럽고 용감하게 증거하겠다는 사명감임을 주장하였다. 레이몬 럴이 선교사는 설교로서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피와 눈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하는 열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던 것이다.[13)] 실제로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82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북아프리카선교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

10)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Book, 1986), 116.

11)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116.

12)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제8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현대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2016년 8월 27일), 미발표 논문집: 9.

13)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117: “Missionaries will convert the world by preaching, but also through the shedding of tears and blood and with great labour, and through a bitter death.”

전파하다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현대교회 선교역사상에 앗시시의 프랜시스나 레이몬 럴처럼 이슬람 선교에 큰 공헌을 한 선교사로는 현대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 1867-1952)이다.[14] 즈웨머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레바논으로 들어가 21년간 아라비아반도에서 사역하였다. 또한 귀국하여 프리스턴신학교에서 강의하며 일생동안 이슬람 연구와 무슬림에게 복음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였다.[15]

오늘의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선교역사상에 나타난 훌륭한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한국교회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역할을 준비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이슬람교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한국사회에도 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어느 새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온전한 이슬람선교를 위해 이슬람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와 시대착오적 이슬람 선교방안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16]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전략에 따라, 먼저 이슬람교에 대해서 바르게 연구하고, 무엇보다 이슬람의 정체성과 이슬람의 역사와 그들의 주장과 꾸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에 대한 합당한 대응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

14) 정승현, “이슬람을 향한 사도 사무엘 즈웨머의 선교이론 탐구,” 『선교와신학』 (2016년 봄호), 38집:123-156.

15) 정승현, “이슬람을 향한 사도 사무엘 즈웨머의 선교이론 탐구” 144.

16)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제8차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현대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2016년 8월 27일), 미발표 논문집: 9.

III. 개혁주의 선교신학과 John Calvin의 선교사역

오늘의 시대적 선교사명으로서 효율적인 이슬람선교를 위한 개혁주의 교회의 선교전략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동안의 개혁교회의 선교와 John Calvin의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정립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교회의 선교사역과 선교신학의 주요 자료들은 국제적인 초교파단체에서 나온 선교교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개혁신학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선교자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심지어 개혁주의신학에는 선교학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얼마 전 대학원 선교신학 입시면접문제를 출제하면서 개혁주의선교학자에 대해 언급하시오라는 질문에 많은 지원학생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주의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중심 신학으로서 개혁신학은 성경중심의 계시의존신학을 근간으로 한다. 현대 선교사역을 위한 개혁주의 선교신학자로는 화란 자유대학교의 선교학교수 J. H. Bavink(1895-1964),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로 사역한 Harvie M. Conn (1933-1999)와 Edmund P. Clowney(1917-2005),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Charles Van Engen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J. H. Bavinck의 “선교학개론”(전호진역)에서 교회의 선교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교학의 중심내용으로 선교의 이론과 선교역사, 그리고 엘렝틱스를 통한 선교변증학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Harvie M. Conn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현대선교학을 전개하면서, 개혁주의 선교상

황화에 대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으며,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선교의 정의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였다.[17]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의 논문에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the glory of God as the goal of missions), 선교의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the grace of God as the source of missions), 선교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나라이며(the kingdom of God as the power of missions), 그리고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임을 밝히며(the word of God as the message of missions) 개혁주의 선교학의 방향을 잡아주었다고 본다.

2. John Calvin의 신학과 선교사역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존 칼빈의 신학과 목회사역을 살피는 것은 필요하다.[18] 인류 역사상에 존 칼빈 만큼 오해를 받았던 인물도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곧 예정론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학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선교적 노력이 있겠는가에 대한 오해를 중심으로 비칼빈주의 계통의 학자들이 종교개혁자 칼빈에게는 선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중에 19세기 현대선교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 1834-1919), 예일 대학교의 선교역사학자 K. S. Latourette(1884-1970), 영국의 선교역사학자 Steven Neill, 그리고 미국의 선교역사학자인 Ruth Tucker, Hebert Kane 등을 들 수 있다.[19]

---

17) Edmund P. Clowney, "The Missionary Flame of Reformed Theology,"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Harvie M. Conn, ed.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7), 127-149.

18) Samuel Zwemer, "Calvinism and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VII(1959), 206-216.

19) 여기 언급된 선교학자들은 그 연구저서들이 신학교 선교교재로 사용되는 저명한

선교학자들이다.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은 20세기 초의 독일의 선교학자로서, 칼빈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는 선교가 결여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가 정치적으로 해외 선교에 가담할 수 없었던 이유로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가톨릭 국가가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해상로를 독점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종교적으로 신교도들은 가톨릭교의 위협 속에서 해외 선교보다는 그들의 생존이 더 급선무였기 때문에 선교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Gustav Warneck,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Edinburgh: Morrison & Gibbs, 1901), 8-9.

K. S. 라투렛(K. S. Latourette)은 미국 예일대의 선교역사학자로서 그의 『교회사』(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에서 칼빈은 현대적 의미에서 선교 사상에 아무런 공헌이 없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로, 칼빈의 신학에서 세계선교 임무는 사도 시대에 속한 것으로 이 책무는 모두 끝이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가톨릭교회와의 갈등 사이에 개신교회는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기에 해외선교에 임할 수 없었다. 셋째로, 그 당시 일반 행정관리들이 해외 선교의 방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로, 칼빈은 그 당시 가톨릭의 선교 수단인 수도원을 부정하였으며, 자체의 선교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인 이유로는 가톨릭의 군주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해외 선교가 불가능 했다고 주장한다. Kenneth S.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Brothers, 1939), 25-26.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은 영국의 선교역사가로서 그의 저서 『기독교선교사』(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를 통해 종교개혁기의 개혁자들의 선교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7세기 말의 로마 가톨릭의 로버트 벨라르민(Robert Bellarmine)의 개신교를 비방하는 문서를 인용하여 그 당시의 개혁가들의 선교에 해단 무관심과 선교신학의 부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루스 터커(Ruth A. Tucker)는 미국 칼빈신학교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역사 교수로 사역하며, "선교사열전"을 통해 역시 종교개혁자들이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주장하였다. Ruth A. Tucker,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bl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ashville: Zondervan, 2004), 80-81.

허버트 케인(Herbert Kane)은 20세기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교수로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그가 쓴 『세계선교역사』(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에서 이러한 종교개혁기의 개혁가들의 사상 속에 선교가 결여되어 있음을 몇 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로, 종교 개혁가들의 신학 문제로서 그들은 지상명령이 오직 열두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여 사도들이 당시에 알려진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했다고 가르쳤다. 둘째로, 개신교가 정치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가톨릭 교회에 비해 약소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개신교회는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모든 선교지가

3. 칼빈의 신학과 목회에서 나타난 선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선교신학: 오늘날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나 선교학자들이 칼빈의 선교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선교관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칼빈의 기독교강요, 설교와 신학저서를 통해 칼빈은 활발한 선교사역자로서 선교사역에 열려있는 신학자임을 보여준다.[20] 칼빈은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나아오게 하여야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증거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한하는 일이라 반박한다.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선교 사상: 칼빈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이름을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그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으로, 즉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강조하였다.

칼빈의 제네바목회와 선교 활동은 보다 분명한 선교사역의 실제를 보여준다. 칼빈에게 제네바는 그의 전 세계를 향한 역동적인 선교열정의 심장부였다. 데이비드 칼혼(David B. Calhoun)에 따르면,[21] 존 칼빈은

유럽의 개신교 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밝힌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종교개혁 후 완전히 해상을 장악하여 탐험과 식민 활동을 독점하였던 것이다. 넷째로, 로마 가톨릭처럼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예수회와 같은 군대적인 조직과 철저한 훈련의 선교단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이 그 당시 개신교가 선교에 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이다. Herbert Kane,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78), 73-75.

20) David B.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Covenant Seminary Review, Vols. 5-7(1979-81), 16-33; W.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XLII: No.3(1983), 65-74.

21) David B. Calhoun,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힘쓴 목회자로서 16세기라는 제한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선교적 관심과 이해를 신실하게 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칼빈의 제네바목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 교회의 장로와 집사제도를 세워 사역자로 많은 사역에 참여케 하였다.[22] 그는 제네바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구현하기 위해서 성직자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며, 평신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였다.

이렇게 칼빈의 신학과 목회현장에서 실천한 칼빈의 선교사역은 오늘날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탐으로 칼빈의 제네바 개혁신학과 목회실천은 선교센터로서 브라질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국과 프랑스 유럽의 개혁교회의 전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의 선교사역과 제네바신학교출신들을 통한 유럽의 선교사역은 존 낙스(John Knox)의 스코틀란드 장로교회의 장로교신조채택(1560), 프랑스 개혁주의 신앙의 위그노(Hugnots)운동, 독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Heidelberg Catechism)의 채택(1563년)과 화란의 벨직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채택(1561), 그리고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1649년) 작성 등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Covenant Seminary Review, Vols. 5-7(1979-81), 16-33.

22) W. Stanford Rei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XLII: No.3(1983), 65-74.

Ⅳ. 종교개혁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슬람 대응 선교전략

1.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에 나타난 이슬람선교

종교개혁시대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슬람의 존재에 대해 누구보다도 마틴 루터(1483-1546)는 다양한 저서와 논문, 설교를 통하여 이슬람선교에 대해 강조하였다.[23] 마틴 루터는 이슬람의 존재에 대해 두 권의 저서, 곧 "터키[이슬람]에 대항하는 전쟁에 대하여"(1528년), 그리고 "터키에 대항하는 군대에 대하여"(1529년)를 저술하여, 이슬람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24] 루터는 이슬람을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적," "이단"으로 이해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을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사10:5)로 이해하였다.[25]

루터는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슬람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이슬람이 관용의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 아라비아반도의 전통종교들이 혼합된 잡동사니(patchwork)임을 주장하였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무함마드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파괴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례, 성례, 복음, 신앙, 기타 모든 기독교 교리의 생명이 사라져 버린 셈이다. 그리스도 대신 오직 무함마드만이 그의 행위에 대한 교리와 특히 칼에 대한 교리와

23)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논문집: 『현대 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 (2016), 16.

24)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80.

25) Martin Luther, *Luther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46:162-175.

함께 남을 뿐이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신앙의 주된 교리인데, 그 안에는 모든 혐오와 모든 악마가 한마디로 쌓여 있다."[26]

루터는 인신공격적 태도가 아니라 꾸란과 이슬람교리에 근거하여 이슬람의 실체를 비판하였으며, 이슬람의 혼합종교이면서 도덕적 타락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27] 이슬람의 일부다처제가 성경적 가정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파괴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터키인[이슬람교인]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여자들이 마치 가축이나 되는 것처럼 서로 주기도하고 팔기도 한다. 이것은 개나 돼지의 결혼이지, 결혼 생활은 아니다."[28]

루터가 취한 이슬람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29] 1)이슬람은 반사회적이고 파괴적이며, 이슬람의 꾸란은 사탄의 작품이다. 2)로마가톨릭의 십자군과 이슬람의 지하드는 정치적으로 유사하며, 교황과 무함마드는 적그리스도라는 유사성이 있다.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구원론이라는 유사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루터의 이슬람 이해를 요약하며, 무슬림이 예수를 선지자로 간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고, 무함마드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칭송한다. 무슬림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않으며 이슬람에는 죄의 용서, 은혜, 성령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0]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슬람에 대해 마틴 루터는 이슬람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로, 기본적인 교리문답을 배워라.

---

26) Martin Luther, *Luther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46:177.
27)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16.
28) Martin Luther, *Luther Works,* 46:195.
29) 유해석,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이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40-53.
30) Martin Luther, *Luther Wor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46:176-178.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십시오. 그대들이 아직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우십시오. 그것들을 잘 익히십시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고백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31] 둘째로, 고난을 견디면서 사탄적인 이슬람의 화려한 외형과 그들의 거짓된 주장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2] "터키인들의[이슬람교도] 이같은 거룩한 외형가운데 그토록 소름끼치는 가공할 만한 추행들이 숨겨져 있는데,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말할 뿐 아니라, 그의 피, 죽음, 부활과 그가 세상에 행한 모든 선을 모독하며 부끄러워하며, 그들의 무함마드를 그리스도 위에 모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두고 숭배한다." 셋째로, 무슬림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기독교신자들에게 이슬람의 통치하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면서, 무슬림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였다.[33]

2.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신학에 나타난 이슬람선교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사역한 칼빈의 사역에 나타난 이슬람선교에 대한 문헌이나 실제적인 사역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만큼 크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설교에 나타난 이슬람선교에 대한 대응을 통해 칼빈의 이슬람 선교를 볼 수 있다.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태도는 이슬람의 신학적 오류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이며 우상숭배자임을 지적하였다.[34]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이슬람의 존재에 대해 4번 언급하였다.[35] 기독교강요 제2

31) Martin Luther, *Luther Works*, 2:192.
32)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103.
33) Martin Luther, *Luther Works*, 2:195.
34)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85.

권 6장 4절에서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중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무슬림들도 [Turks] 천지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힘차게 외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신 올려놓고 그를 섬기고 있다."[36]

제3권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유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화평함과 참된 기도의 기쁨을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이방인 국가나 이슬람교에서는 이러한 참된 기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Therefore, those who prate that we are justified by faith because, being reborn, we are righteous by living spiritually have never tasted the sweetness of grace, so as to consider that God will be favorable to them. Hense, it also follows that they no more know the right way to pray than do the Turks and other profane nations).

제4권 2장 10절에서는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온갖 오류와 타락성을 설명하면서 이슬람의 타락성을 언급하였다.(Finally, instead of the ministry of the Word, they have schools of ungodliness and a sink of all kinds of errors. Consequently, by this reckoning either they are not churches or no mark will remain to distinguish the lawful congregations of believers from the assemblies of Turks.)" 4권 16장 24절에서는 만일 무슬림이 세례를 받고자한다면 합당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For if

35)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0), 2.6.4; 3.13.5; 4.2.10; 4.16.24.

3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Book II, Chap. 6. ver.4. "So today the Turks, although they proclaim at the top of their lungs that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s God, still, while repudiating Christ, substitute an idol in place of the true God."

a Turk should offer himself for baptism, we could not easily baptize him unless he gave a confession satisfactory to the church).

칼빈의 성경주석에서도 이슬람의 우상숭배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요한일서 2장 23절 주석에서, "모든 충만한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터키인들[무슬림]과 유대인들 혹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조작해 내고 있는 것이다."[37] 칼빈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38]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불법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바로 로마 가톨릭과 이슬람이라고 보았다. "바울은 개인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 한복판에 가증스러운 자리를 세울 목적으로 탈취하기로 한 한 왕국을 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본다. 무함마드가 배교자가 되어 그의 추종자들인 터키인들을[무슬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배신은 더 넓게 확대되었다. 모든 이단자들은 자기들의 당파를 이용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이 결과 그리스도에게서 이탈이 많아지게 되었다."[39]

그리고 1555년 10월 26일 설교에서 신명기 13장6-11절 설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처럼, 무슬림의 거짓종교이며 이단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상상력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터키인들이[무슬림]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들도 동일

37) John Calvin, 『칼빈신약성경주석』, vol. 4.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218-19.
38)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2:3).
39) John Calvin, 『칼빈신약성경주석』, vol. 17.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495.

하다."[40]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41]과 33장 2절[42] 설교에서 이슬람교는 로마 가톨릭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두 뿔이며, 무함마드와 교황은 진리에서 떠난 사기꾼이자 협잡꾼(imposters)이라고 비판하였다.[43]

이슬람에 대한 칼빈의 대응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1권에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 온 세상이 통치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이방인을 들어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던 구약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이슬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출9장 16절[44] 주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주석하였다. 그리고 이사야 19장 23-25절[45]에서 애굽인들과 앗수르인들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축복의 대상이 될 것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슬림도 선교의 대상으로 개종이 가능하고 세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46] 칼빈은 이슬람을 유럽 기독교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만 아니라, 전 세계의

---

40) John Calvin, *Sermons on the Deuteronom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544-545.

4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18:15)

42)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신33:2)

43) John Calvin, *Sermons on the Deuteronomy*, 666;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88.

44)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출9:16-17)

45)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사19:23-25).

46)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 vol. 7.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118-23.

기독교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지만, 칼빈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슬람을 배격하고 비판하면서도 무슬림이 회개하고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47]

3. 하인리히 불링거(Johan Heinrich Bullinger) 신학에 나타난 이슬람선교

이슬람연구를 통하여 이슬람연구 저서를 출판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조안 하인리히 불링거(Johan Heinrich Bullinger, 1504-1575)였다. 불링거는 스위스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로서 쯔빙글리의 후임으로 취리히교회의 종교개혁의 사역을 계승하였다. 불링거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쯔빙글리(Ulirich Zwinggli, 1484-1531)와 데오도르 비블리안더(Theodor Bibliande, 1505-1564)로부터 이슬람선교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불링거는 이슬람전문가 비블리안더를 통해 이슬람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슬람선교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불링거는 이슬람의 꾸란의 내용은 성경의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의 교리와는 다르게, 인간의 선행에 근거한 이슬람의 낙원의 쾌락을 약속하고 잔인한 정복전쟁으로 이끌게 된다고 분석하였다.[48] 그리고 불링거는 이슬람의 꾸란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삼위일체의 진리도 부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유일한 중보자 되심

47)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90;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칼뱅의 견해,”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세미나』, (서울: FIM선교회, 2013), 15.

48)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 불링거의 견해,” 『FIM국제선교회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세미나자료집』 (2016년 가을), 120.

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은 일부다처제를 주장하여 성경적인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남자들을 위한 쾌락과 충동의 예속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49] 불링거가 이해한 이슬람의 구원관은 로마 가톨릭의 펠라기안주의적인 구원론으로 성경적 구원관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이신칭의와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종말론으로 이슬람은 낙원에서 구원받은 삶을 육체적인 기쁨, 먹고 마시는 즐거움,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하는 쾌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불링거는 주장하였다.[50]

불링거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는 그의 저서인 "터키[이슬람]"(1567년)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으로 이슬람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것으로 16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이슬람의 믿음과 거짓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하여, 2)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신앙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하여, 3) 하나님은 왜 참된 믿음을 대적하는 거짓된 무함마드의 신앙을 허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가에 대하여, 4) 무슬림은 어떻게 무함마드를 자신들의 군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하여, 5) 이슬람의 왕국과 그들의 기원에 관하여, 6)오스만 터키 왕들과 왕국의 시작에 대하여, 7) 첫 번째 오스만 터키왕에 대하여, 8) 첫 째 왕과 둘 째 왕, 그리고 셋째 왕에 대하여, 9) 넷째 왕에 대하여, 10) 다섯 번째 왕과 여섯 번째 왕에 대하여, 11) 일곱 번째 터키 왕에 대해, 12) 여덟 번째 터키 왕에 대해, 13) 두 번째 터키 황제(아홉 번째 터키 왕)에 대하여, 14) 세 번째 터키 황제(열 번째 터키 왕)에 대해, 15) 네 번째 터키 황제(열한 번째 터키 왕)에 대해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터키'의 결론을 기도로 마무리하였다[51]

49)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 불링거의 견해," 122.
50) 유해석,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이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98.

불링거의 이슬람에 대한 연구와 비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500여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이슬람선교에 대한 것으로, 이슬람의 등장은 로마 가톨릭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 타락한 로마 가톨릭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임을 강조한 점이다.[52] 마틴 루터나 하인리히 불링거의 이슬람이해에서 나타나는 개혁주의자들은 이슬람에 대해 경계하면서,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에 집중하며 신앙교육을 강화시키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여 이교도들에게 선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통해 회심선교를 이루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 한국교회의 이슬람선교에 대한 바른 자세

1. 다문화 이주민 시대에 이슬람유입에 대한 분명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전호진 박사는 "개혁신학에서 바라본 다문화 가정의 이해" 학술대회 주제논문 발표에서 "다문화시대의 종교의 역기능"을 통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문화정책의 부재와 기독교적 대응의 문제를지적하면서,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단일인종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 단일인종의 국가에서 다인종국가로 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 라는 개념과 사상이 강하여 배타주의적 성향이 있다."[53] 국제화

51) 유해석,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이슬람』, 101-102.

52) 유해석,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이슬람』, 104.

시대에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더 살리는 문화다원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구라파에서 일어나는 '유라비아'(Eurabia)니 '런던스탄'(Londonstan)이니 '이슬람공포증'이라는 용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 사회, 한국교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다문화사회에 대처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전호진 박사는 한국사회와 교회의 이슬람대책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해야한다. 호주는 이민이나 근로자를 선별하여 받아들인다. 2)한국의 중소기업인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아직 있다. 이것은 근절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3)우리는 외국인들의 자기들의 민족, 문화, 언어의 정체성은 존중해야한다. 그러나 한국문화와 사회질서에 충돌되는 저들의 문화나 종교적 이념요구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4)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사회적 적응을 잘 하도록 정부, 민간단체, 종교단체들은 특별한 배려와 봉사와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우리가 품어야할 중요한 2,3세이다. 5)불법 체류자와 범법자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난 선의의 불법 체류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6)외국인 대상의 교회와 선교는 저들의 문화를 무시하는 일방주의적 선교나 전도를 지양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가 가능한 전문사역자를 확보해서 다문화선교를 감당하게 한다.

2.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2016)에서 발

53) 전호진, "다문화사회와 종교의 역기능," 개혁신학회, 2013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 전호진, 『문명충돌시대의 선교』, (서울: CLC, 2003);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서울: SFC, 2002).

제한 변창욱교수는 현존하는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근대 개신교 선교운동이 시작될 때뿐 아니라 이슬람이 발흥하고 얼마되지 않은 7세기 중엽부터 시작하여 지난 세기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의 대 기독교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고 주장한다.[54] 이슬람은 기독교 선교에 가장 저항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변증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선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람직한 무슬림 선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지난 19세기의 기독교의 피상적이고 공격 일변도의 선교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람 선교와 변증에 있어 선교사들이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 꾸란, 무슬림들의 윤리 등에 대한 직접적 논박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가하게 되면, 무슬림들 또한 더 강하게 기독교 교리나 교회에 대한 공격을 촉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무슬림들을 개종시키기는 점점 더 힘들어 진다고 분석하였다. 무슬림에 대해 적대적,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그들을 선교의 동일한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지난 날의 선교역사에서 나타난 이슬람의 주장들에 대해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변증은 꾸란과 성경 내용이 상이한 경우, 꾸란의 내용을 정당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슬림들은 예수의 본성, 성육신, 예수의 하나님 아들되심,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삼위일체론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기독교-이슬람 변증을 이해하려면, 꾸란의 내용 중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교리의 차이점(기독론, 신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슬람권 선교 사역자는 성경과 꾸란의

54)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9-29.

교리를 면밀하게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로, 이슬람 변증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선교의 커다란 걸림돌을 이해해야 한다. 이슬람권 선교사는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는 선교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슬람 변증가들이 제기하는 성경의 여러 오류와 불일치,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성경변질론)과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성서비평학의 연구결과는 무슬림들의 변증을 더욱 더 공세적으로 전환하게 만들어 주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넷째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무슬림들이 잘 알고 있는 꾸란의 내용을 이용하여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의 기독교 이해는 왜곡된 반기독교 논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슬림과 불필요한 논쟁과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독교 용어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어 읽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성경이 변질되었거나, 성경이 꾸란에 의해 폐기되었다고 믿기 때문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꾸란이 언급하고 있는 예수로 시작하여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슬람 전통에서 예수는 꾸란의 어떤 선지자들 보다 존경의 위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꾸란을 읽으며 꾸란이 묘사하는 특별한 위치의 예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좋은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꾸란의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헬라 문학과 시인의 구절을 이용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삼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행17:16-34).[55]

55) Phil Parshall,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2003),

3. 이슬람포비아에서 이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최원진 교수는 "현대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 학술대회(2016)에서 IS(Islamic State)의 무차별적 테러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만이 유일한 이슬람권 선교의 희망이라고 보면서, 한국교회의 이슬람선교 방안을 제시하였다.[56] 첫째로,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이슬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경이 아랍어로 번역된 것은 이슬람이 생긴 지 227년이 지난 837년이었고, 아랍어성경이 출판된 것은 1516년으로 이슬람세계는 그동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할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한국교회가 이슬람의 술수와 모략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변화가 필요하다. 레이몬드 럴(Raymond Lull)처럼 이슬람에 대한 체계적인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너무나 피상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57] 셋째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논리의 모순과 한계를 공략하는 틈새전략이 필요하다.[58] 이슬람이 자신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강조하면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슬람의 자체 교리적 모순과 한계의 틈새를 이용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172-73.

56)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논문집: 『현대 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 (2016), 42-44.

57)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43.

58)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44.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광신주의나 맹목적인 종교적 열심히 많은 문제를 야기함을 제시하고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고 여성비하사상과 숙명론적인 철학과 같은 이슬람의 약점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지인들의 영적인 공허함이 복음으로 채워지도록 누룩과 같이 조용하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4.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선교적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선교와 이슬람선교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천된 선교전략으로 전문인선교(Tentmaker Mission)와 BAM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그리고 난민선교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 무슬림들에게 이주민 다문화선교를 통해 기독교복음의 전수와 이들이 다시 귀국할 때 그곳에서 사역자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전도자로 세우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헌법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한 나라들에서 온 무슬림개종자들은 난민신청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협력하는 사역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문인선교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도바울의 텐트메이킹은 행18:3과 20장 34-35절[59]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비자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주일예배를 통해 성경공부와 교제를 실시함으로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59) 행18: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20:34-35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본다.

5. 이슬람선교에 대한 선교변증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슬람선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포스트모던이즘과 함께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시작된 종교다원주의는 오늘날 그 어떤 세력보다도 선교사역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올 사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변증학이 변두리 과목이 아니라,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하여 성경계시의 유일성을 변증하는 주제는 더욱 강조되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분야이다. 성경적으로 바른 계시관과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개혁주의 선교 신학을 확립하고 성경중심의 선교변증학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보게 된다.

개혁주의 선교학자 J. H. 바빙크(J. H. Bavinck)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개혁주의 선교전략을 엘렝틱스적인 선교변증학을 소개하였다.[60] 온전한 선교사역을 위해 선교지의 종교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르게 탐지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지 피터스(George W. Peters)는 선교신학은 철저한 성경적 기초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였다.[61]J. H. Bavinck는 선교학의 주요 세 분야로 선교이론과 선교역사, 그리고 선교변증학(Elentics)을 주장하면서, 엘

60) J. H. Bavinck,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 『선교변증학』, (전호진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J. H. Bavin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61) George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선교성경신학』, (김성욱역), 서울: 크리스천출판사, 2004: "I make no apology for accepting the Bible uncritically and authoritatively. The Bible is the basis and source of faith and not the result of faith. I am much concerned to bring everything under the judgement of the Word."

렝틱스야말로 비기독교적인 타종교에 대한 바를 탐지, 바른 평가와 파악은 기독교선교의 필수라고 주장하였다.[62]바빙크는 그의 저서 "선교적변증학"에서 "기독교와 타종교를 취급할 때, 그것들이 비교가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다... 오히려 기독교신앙은 그들과는 다른 극단적인 차이가 있으며, 기독교신앙은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유일한 특성이 있음을"[63] 강조하였다.

폴 히버트(Paul G. Hiebert)도 역시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선교전략으로 첫째, 복음 전도의 문을 닫지 않도록 귀 기울여 들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들의 소리에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있다. 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새 생명의 소식을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강하게 방법은 부드럽게"라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총신대 이상웅박사도 무슬림을 대할 때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제안하였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이나 다문화 가정의 사역 현장에서는 '언제나 겸손하며(humble), 민감하며(sensitive), 지혜로울(tactful)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64]

---

62)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xxi. "Elentics is "the ascertainment of a view of non-Christian religions which is responsible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Such a study is so indispensible for a proper view of non-Christian religions that missionary science cannot possibly do without it. For a theory of missions is incomplete unless it can be properly evaluate non-Christian religions"

63) J. H. Bavinck,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 『선교변증학』, (전호진역), 15.

64) 이상웅, "다문화가정 이해를 위한 이슬람교의 신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혁신학회, 『2013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5.

VI. 나가는 글

지금까지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 한국선교와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이슬람선교는 가장 관심 있는 선교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슬람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선교신학의 정립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며, John Calvin의 개혁신학과 제네바목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선교사역은 개혁주의 선교사역의 모델이 된다고 본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와 신학은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의 중심적인 선교센터로서 역할을 했으며, 칼빈은 기독교강요와 성경주석, 그리고 다양한 설교를 통하여 개혁주의 선교사역을 실천하였다.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과 불링거의 신학사상에 나타난 선교적 대응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의 신학적 오류들과 우상숭배적인 모습과 적그리스도와 이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이 로마 가톨릭의 영적인 오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영적인 각성과 주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그들 또한 선교의 대상으로 대우할 것을 주장한다. 한국으로 유입되어 증가되는 이슬람인구에 대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유럽의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드러난 유럽의 문제들을 거울로 삼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지혜로운 선교적 대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슬람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으로 인내심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65] 기도가 한국교회의 이슬람선교문제를 주님

65) 김철수, "대중 이슬람의 종교현상과 선교적 접근,"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36-46; 김마가, "무슬림복음화의 국제적 추세,"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62-72.

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사역만큼 중요한 전략은 없다고 본다(엡6:18-19)[66].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현지 선교사부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마가선교사는 강조하였다.[67] 21세기 한국교회는 점점 증가하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더욱 더 신실한 이슬람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66) 엡6:18-19"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67) 김마가, "무슬림복음화의 국제적 추세,"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70.

참고문헌

Bavink, J. H. *The Church Between Temple and Mosque*, 『선교변증학』, (전호진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Bavin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Calhoun, David B. "John Calvin: Missionary Hero or Missionary Failure?" Covenant Seminary Review, Vols. 5-7(1979-81), 16-33.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0.

Calvin, John, 『칼빈신약성경주석』, vol. 4.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Calvin, John, *Sermons on the Deuteronomy*,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Clowney, Edmund P. "The Missionary Flame of Reformed Theology,"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Harvie M. Conn, ed.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1977), 127-149.

Kane, Herbert,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78.

Latourette, Kenneth S.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er& Brothers, 1939.

Luther, Martin, *Luther Works*, 46.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Neill, Stephen,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London: Penguin Book, 1986.

Parshall, Phil, *New Paths in Muslim Evangelism*,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향』, 서울: 도서출판 예루살렘, 2003.

Peters, George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 서울: 크리스천출판사, 2004.

Reid, W. Stanford, "Calvin's Geneva: A Missionary Centre,"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Vol. XLII: No.3(1983), 65-74.

Tucker, Ruth A. *From Jerusalem To Irian Jaya: A Bibliographical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ashville: Zondervan, 2004.

Walker, Williston 『기독교회사』,(이형기역편),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78.

Warneck, Gustav,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Edinburgh: Morrison&Gibbs, 1901.
Yamamori, Tetsunao, *Penetrating Missions' Final Frontier: A New Strategy for Unreached Peoples*, London: IVP, 1993.
Zwemer, Samuel, "Calvinism and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VII(1959), 206-216.
공요셉, "이슬람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0-20.
김마가, "무슬림복음화의 국제적 추세,"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62-72.
김성봉, "이슬람에 대한 종교개혁자 불링거의 견해," 『FIM국제선교회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세미나자료집』 (2016년 가을), 118-128.
김성운, "이슬람종파와 분파,"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21-35.
김아영, "이슬람의 외면된 전통: 리버럴 이슬람,"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47-61.
김영동, "종교와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선교와신학』 봄호(38집), 15-46.
김종일, "최근 중동 이슬람 종파갈등 연구," 『선교와신학』 봄호(38집), 47-86.
김철수, "대중 이슬람의 종교현상과 선교적 접근,"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36-46.
변창욱, "기독교와 이슬람의 변증적 만남의 역사: 논쟁점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논문집: 『현대 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 (2016), 9-29.
이상웅, "다문화가정 이해를 위한 이슬람교의 신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3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7-145.
전호진, "다문화사회와 종교의 역기능," 개혁신학회, 2013년 봄 『개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22.
전호진, 『문명충돌시대의 선교』, 서울: CLC, 2003.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서울: SFC, 2002.
정승현, "이슬람을 향한 사도 사무엘 즈웨머의 선교이론 탐구" 『선교와신학』 봄호(38집), 123-158.
유해석, 『기독교는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이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8.
유해석, 『이슬람칼럼』, 서울: 크리스천투데이, 2019.
전병희, “중남부아프리카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대응,”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06-118.
최원진, “이슬람국가(IS)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대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한국선교신학회 공동학회 논문집: 『현대 이슬람과 기독교적 대안』 (2016), 31-47.
토마스 첼라노, 『아씨시 성프란치스꼬의 생애』, 서울: 분도출판사, 1986.
허보통, “이슬람권 사역자의 안전과 위기관리,”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35-143.
현한나, “ISIS에 의한 현대판 딤미제도에 대한 고찰과 테러극복을 위한 화해: 이슬람주의와 이슬람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선교와신학』 봄호(38집), 87-122.
홍여호수아, “키르키즈스탄 남부지역 분쟁과 선교적 영향 고찰,”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119-134.
황디모데, “무슬림전도접근의 최근 논의에 대한 우려: 성경신학적 접근의 약화/부재,” 『한국선교KMQ』, 52호(2014, 겨울), 73-88.

이슬람아카데미

3강

이슬람의 여섯 얼굴과 선교적 접근

김철수 교수

이슬람의 여섯 얼굴과 선교적 접근

Six Faces of Islam and a Missional Approach

이슬람대책위원회 아카데미
2020. 7. 14. 화
김철수 (Dr. Caleb Kim, Ph.D.)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 로잔 운동 2010 남아공 Cape Town 대회의 후속 타로
- 2014년 4월 7 – 11일 가나 아부리 라는 소도시에서 6대주 20개국에서 40 명의 이슬람 학자들과 선교지도자들이 참석
- 무슬림 배경을 가진 이들도 참석
- 특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선교 자체에 대한 반성에서 논의를 진행했음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 모임의 주된 의도는
- "이슬람을 이해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대다수세계 (혹은 비서구 사회) 교회를 지원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자 역)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 로잔 선교운동의 이슬람권 선교분과의 의장을 맡은 가나 출신 Dr. John Azumah는 다음과 강조:

- "아주 오랫동안 무슬림들을 향한 기독교 선교는 특별한 성직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간주되어 왔었다.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는 26억이나 되는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떠맡겨진 선교분야가 되었다.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간에 많은 이들이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에 마비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격 무슬림들로 인하여 증오심까지 갖게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26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여 사랑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 선교 사명을 비성직화하며,두려움과 증오심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편역)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 이번 모임의 목적 중 하나는:

- 지난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대회 헌신의 결단 제 IIC 항목에서 강조된, 타종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접근함의 중요성을 이슬람권 선교에 적용하는 일

- 세계 각처의 지역 교회들이 그들의 무슬림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 http://www.lausanne.org/en/about/news-releases/2250-global-consultation-on-islam.html

Ghana Consultation on The Gospel and Islam

- 컨설테이션 모임의 전반부는 이슬람의 다섯 얼굴/양상에 대한 발제와 응답으로 진행되었음
- 후반부는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의함
- 특별히 각종 선교단체와 성경학교 및 신학교 내에 어떤 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소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토의 (e.g., AIU's CSR)
- 특별히 강조된 것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 부분

선교의 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성경의 선교적 기초

선교 지상 명령: “네 이웃을 . . .”(1)

-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선교적 대명: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Lev. 19:19; Mt. 22:39) – 이 명제가 내포하는 선교적 실제는?
- 선교신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사랑하기의 기초
  -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기”는 이웃 사랑하기의 시작
  - 그러면 사람들의 무엇을 이해할 것인가? 이 과제가 바로 선교문화인류학적인 질문이자 과제임
  - 진정한 이웃사랑은 우리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

선교 지상 명령: “네 이웃을 . . .”(2)

- 기독교 선교적 사랑의 두 차원:

[1] 관점의 차원:
사람들을 <u>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u>
사람들을 어떻게 보나에 따라서 그 다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거나 무엇을 할 것인가가 결정됨

1. 우리는 “그들” 안에 “우리”를 볼 수는 없을까?
2. 무자히딘들 가운데 많은 미래의 “Wubshet”을 봄
   a) 본인의 제자 Wubshet은 과격 무자히딘이었다가 그리스도께로 회심
   b) 김철수도 만 18세때 출가를 결심한 적이 있었지만 몇 년후 성경을 통해 주께로 회심
3.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없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의 우리의 부분이기 때문
4. 우리는 진정 신학적 인간관(*Imago Dei*)을 적용하여 타종교/무슬림들을 보고 있는가?

선교 지상 명령: "네 이웃을 . . ."(3)

[2] 성경에서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서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는 사랑의 손길 = 하나님의 시각" + "행동" (cf. 고전 13)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나 신약의 *아가페*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charity 로 번역하기도 함.)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심지어 종교적 혹은 문화적 신념들을 하나님의 관점 위에 놓지 않고자 애쓸 것임. (cf. 복음적 관점과 종교적 신념은 다름)

선교 지상 명령: "네 이웃을 . . ."(4)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이념인 이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인 무슬림들을 본다.

그때 두려움보다도 같은 사람으로서의 공감을 갖게 되며, 그들의 삶의 고통과 인생의 딜레마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번역하기"

- 몇 가지 제언
  - 기도 사역
  -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기회를 엿봄
  - Cf. Caleb Kim (2009), Caleb Kim and John & Anne Travis (2010), Caleb Kim (2014, unpublished)

여섯 가지 이슬람의 얼굴들
Six Faces (or Aspects) of Islam

선교적 & 논쟁적 얼굴의 이슬람
Missionary and Polemical Islam(1-1)

- 이슬람은 처음부터 선교적 종교, 따라서 근본적으로 매우 신학적임
- 이슬람 선교의 중심은 그 신학의 핵심인 *Tauhid* (*la ilaha il allah*) 와 무함마드의 선지자됨 (*Muhammadun rasulu llah*)을 변증하고 전파하는 것
- 이슬람의 신학은 유대교 및 기독교 신학과 체제에 대한 역반응에서 출발했고 그렇게 계속 신학적 발전을 해 왔음
- 따라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논쟁은 처음부터 이슬람의 성격의 한 부분

선교적 & 논쟁적 얼굴의 이슬람 (1-2)

- 이슬람 교리에 대한 *emic* 적 (내부자적) 이해
  - 무슬림들의 종교적 의무들 (5 pillars/duties + jihad)
    - 샤하다
    - 살라
    - 싸움
    - 자카
    - 하지
    - 지하드
  - 이슬람의 6대 신조/신앙
    - 알라
    - 알라의 천사들
    - 알라의 책들
    - 알라의 선지자들
    - 알라의 마지막 심판
    - 알라의 예정/전능

선교적 & 논쟁적 얼굴의 이슬람 (1-3)

- 복음적 대답은?
-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 **경건의 대결**
  - **수동적 & 적극적 변증의 준비**
  -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 (혹은 "존중")**
  -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선교적 성격
  - 벧전 3:15의 말씀을 무슬림권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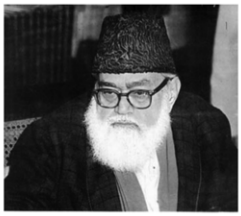
선교적 & 논쟁적 얼굴의 이슬람 (1-4)

- 선교적이고 논쟁적인 무슬림들에게 때로는 "삶의 대화
(life dialogue)"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따라서 무슬림의 삶의 방식과 종교적 영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
  - 교리적 혹은 신학적 이슬람 이해 위에 선교 문화인류학적인 이해의 필요성
    - 예를 들면, 통과의식이나
    -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살펴봄
    - 삶의 도전들의 종류는? 삶의 위기는? 감정의 종류는? 고통의 종류는?
    - 어떻게 도전들을 극복하는가?

이슬람의 이념적 & 정치적 얼굴
Ideological and Political Islam (2-1)

- "이슬람"은 종교적 이념으로서 정종일치 (the unity of religion and state) 추구
- 따라서 무슬림 사회(*umma*)는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을 띤 종교적 이념 공동체
- 따라서 이슬람의 율법인 *shariah*가 중요
  - 수니의 4대 율법 학파
  - 카디와 카디 법정



이슬람의 이념적 & 정치적 얼굴 (2-2)

- 기독교적 응답은?
- 서구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불편했던 관계들을 역사 속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 있음
  - 무함마드 시대
  - 십자군 전쟁
  - 식민 시대
- 불필요한 관계를 피할 수 있는 틈새들을 찾아야
  - 비서구 사회 혹은 대다수 세계(the Majority World)의 기독교인들은 서구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선교 접근들을 창출해야
  -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 매우 큰 과제는 "도로 상의 돌들을 제거하는 일"
    - 복음전도의 매우 중요한 전 단계 - 역사 속에서 불행히 형성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제거해야
    - "삶의 대화"를 통하여 진정한 우정 및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야

이슬람의 전투적 & 폭력적 얼굴 Militant and Violent Islam (3-1)

- 이슬람주의 (Islamism) - 이슬람 부흥운동
  - 보수주의 (Conservatism)
  - 수정주의 (Adaptationism 또는 Revisionism)
  - **근본주의 (Fundamentalism)**
- 이슬람 근본주의는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 함
  - 이들에게 지하드는 살상을 포함한 투쟁
  - 계속 늘어나는 추세 - 왜 그런가?

이슬람의 전투적 & 폭력적 얼굴 (3-2)

- 기독교적 대응은?
  - 이슬람 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 이해 필요
  -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 뒤에 숨어 있는 분노의 이유들
  - 이슬람 세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
  -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삶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 과도한 폭력을 알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과격분자들에 대해서
  -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Rom. 12:17).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Rom. 12:21). Cf. 수많은 간증들

대중 이슬람의 얼굴
Popular Face of Islam (4-1)

- "민속 이슬람" 혹은 "대중 이슬람" - 이 용어는 이슬람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님
- 보통 무슬림들의 종교적 삶의 문화적 표현 내지는 무슬림 관습을 일반적으로 가리킴
- 보통 무슬림들의 문화적, 심리적, 종교적 경험들이 대중 이슬람 혹은 민속 이슬람의 모습
- 이러한 민속 이슬람을 사는 보통 무슬림들의 인구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함

대중 이슬람의 얼굴 (4-2)

- 실례들:
  - Jinn 관련 신앙들과 풍습들 (특히 치유의식)
    "진"이란?
  - *Sihr* (저주하거나 저주를 푸는 일;
  - "witchcraft")
  - 흉악눈 (*hasad*)
  - 성자숭배, 성자들 무덤 방문 등등
- 이러한 관습들은 삶의 도전들과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여 축복을 갈구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능력대결임
- 필자의 Data videos 상영

대중 이슬람의 얼굴 (4-3)

- 복음적 접근은?
- 친밀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치유적 접근을 추천
- 기도 사역 (cf. Kim & the Travi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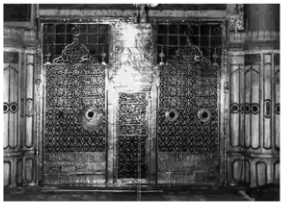
  - 악한 세력을 부수는 기도 (Breaking prayers)
  - 용서를 돕는 치유의 기도 (Healing prayers)
  - 악령(무슬림 상황에서는 "진")을 제거하는 기도 (Exorcism prayers)
- 이들의 가슴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접근들은?

이슬람의 신비주의 (Sufism)
Mystical face of Islam (5-1)

- 이슬람의 신비주의: Sufism (철학적 신비주의)
  - 메마른 율법주의에 치우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
  -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적 영성을 조화하려는 노력들
  - 내면의 영적 갈급함을 보충하려는 시도라고 보임
  - 이슬람의 율법적 행위보다도, 또 이성을 사용하는 신학적 교의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가슴으로 깨닫고 영적인 상상(*khayal*)으로써 진리를 발견(*khashf*)하는 것이라고
  - 자신을 " 섬멸"시킨 뒤 "실재"에 도달함 (*baqa'*) - 인간의 자아는 알라의 실재 앞에서 섬멸되어 알라와 합일이 된다고
  - 초기에는 이슬람 지도자의 박해를 받았으나 12세기부터는 정통 이슬람의 주류에 편입됨 - 수많은 Tariqa (종파) 창설됨

이슬람의 신비주의 (Sufism) (5-2)

- 대중 수피즘 - 대중 이슬람과 혼합되어 나타남
  - 성자 숭배
    - 무함마드 숭배
    - 성자들의 무덤 순례



  - 수피즘의 철학적 차원에서 이탈하여 민속 이슬람 속으로 스며듦
  - 예. https://www.youtube.com/watch?v=wPFDUa3QAg4
  - https://www.youtube.com/watch?v=L7mzt3NzAok

이슬람의 신비주의 (Sufism) (5-3)

- 선교적 접근은?
  - 철학적 수피즘/신비주의에는 교리적 논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음을 나눔 (로마서 6장 3~8절)
  - 교리적 접근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신비한 체험들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됨
  - 회심한 이후 제자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함

이슬람의 진보주의 혹은 해방주의적 얼굴 Progressive and Liberative Islam (6-1)

- 무슬림들 중에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회의하는 이들이 있음
- 수는 적지만 이슬람의 이념이나 무슬림들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를 갖거나 이슬람의 정치 체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음
- 전통적인 꾸란과 역사 해석이 매우 현대적이며 이슬람 전통 입장에서 볼 때에 매우 진보적임
- 극진보적인 이들은 하디쓰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오직 꾸란 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임

이슬람의 진보주의 혹은 해방주의적 얼굴 (6-2)

- 특징들
  - 인권과 남녀 평등을 옹호, 사랑과 정의를 강조
  -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옹호
  - 현대사회에서의 샤리아 무용성을 주장하기도
  - 종교 간의 관용을 강조
  - 비폭력 강조

- 북미주에서 많이 보임, 하지만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소수이지만 진보적 무슬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예: Mostafa Malekian)

이슬람의 진보주의 혹은 해방주의적 얼굴 (6-3)

- 선교적 반응
  - 열린 마음 혹은 개방된 사상을 가진 무슬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찾을 필요가 있음
  -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진보적 무슬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필요하면 때로 같이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야
  -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계속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결론적 제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나눔에 있어서 RFB (또는 RFM) 원리

- Relationship 의미있는 관계가 선행되어야
- Friendship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기를
- 실제로 여러 리서치에 의하면 진정한 회심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경향
- Business / Ministry – 일/사역은 나중에
- 진정하고 순전한 인간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슬림들의 가슴에 “번역 (translation)” 될 수 있을 것임

이슬람아카데미

4강

한국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선교 변증적 대응

김은홍 교수

한국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선교 변증적 대응

김은홍[1)]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에 이슬람은 급성장하고 있기에 그만큼 이슬람에 대한 선교적 변증은 절실히 필요하다. 선교적 변증이란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이슬람 포비아나 이슬람 혐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지 조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바른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 내에서 조차 견해 차이로 인해 대응 방식에 발생되는 갈등은 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 강의의 목적은 이슬람의 기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의 포교를 방어하고 아울러 이슬람 선교를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우선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경전들과 교리의 내용 및 교리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필 것이다. 그 다음 이슬람의 법과 경제와 정치 및 문화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한국 내에 이슬람화의 진행 정도를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이슬람 선교 전략과 대응 방식의 논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

1) 백석대, 선교신학

2. 이슬람의 기원과 확장

아라비아의 사막을 배경으로 하여 시작된 이슬람교는 이전의 역사적 배경은 꾸란(코란, Qur'an)은 다루지 않았다(A.D. 약610년 이전). 무함마드(Muhammed, 570-632)[2]는 A.D. 570년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태어났다. 당시 무함마드는 메카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하였고 그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는 메카에서 새로운 도덕과 유일신 신앙(이슬람교)을 가지라고 전하였는데, 메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무함마드와 그 추종자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 사건을 '헤지라'[3]로 명하고 그것을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는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시작되었다. 무함마드는 40세에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꾸란에 언급된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그리고 이교도 세 종류이다.[4] 이 내용으로 볼 때 애초에 무함마드가 새로운 종교를 시작할 의도가 근본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의 종족들이 우상숭배와 다신 숭배를 돌이켜서 자신이 참 진리의 종교라고 믿는 종교로 돌아오도록 한 것이었다.[5] 무함마드는 '이슬람'(Islam)을

2)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17; 참고, 모하메드, 무하메드, 마호메드 등 여러 가지로 한국어 로 표기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무함마드를 선택한다.

3) A.H(헤지라), A.D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사건이 있었던 해를 기점으로 하여 '헤지라'라고 하며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고 있다.

4)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14-16; 그리스도 이후 1세기 동안 북아프리카 교회는 기독교 교회의 기둥이었다.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키프리안, 터툴리안 같은 걸출한 설교자, 교사, 학자들이 거기서 배출되었다. 페르페타(Perpetua)와 펠리시타스(Felicitas)같은 사람들은 그 곳 출신의 사람들로서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다. 당시에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종족들은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어떤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그 종족들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광야의 유목민 베드윈(Bedouin)족과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특정종교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교든 기독교든 아랍족속이든 상관없이 신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무함마드가 다종교, 다문화 시대를 지내오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무함마드 생존시에 그가 직접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경전의 권위를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처음 생각에는 이슬람을 세속국가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공동체는 아니었고, 단지 정치적인 공동체로 여겼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팽창은 점점 아라비아 전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강한 결속력을 갖는 종교적인 공동체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상이한 강조점에 따라서 많은 분파가 생겨났다. 이슬람은 분파[6]는 무슬림 순니파를 위시하여 아마 150개 정도로 확장하게 되었다.[7]

이슬람의 확장은 수백만 명의 학살을 동반한 이슬람교의 정복으로 1300년 이상 계속되었다.[8] 이처럼 칼로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창시

---

5) 꾸란(Qur'an), 3장, "이므란 가족들의 장"(Ali Imran), 83절,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알라를 믿으며 주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예수와 선지자들을 믿는다. 우리는 그들 중 아무도 구별을 두지 않으며 오직 알라께만 복종한다.”

6)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30-39; 이슬람 분파는 대표적으로는 ①꾸란과 순나를 따르는 자라는 뜻의 순니파(Sunni)는 이슬람교 가운데 약84% 정도로 최대 종파로 전체 이슬람교 신자의 10억 명 이상이다. 순니파는 무슬림 공동체, 즉 움마의 "순나"(sunnah, 관행)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②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이슬람의 지도자(칼리파)가 될 수 있다는 시아파((Shia Islam-자이다야, 이스마일리야)는 약14%로 661년 무함마드의 문제로 인하여 분리된 종파이다. 두 번째로 큰 종파로 전체 이슬람교 신자의 10-20%가 속해 있다. 그 외에 ③카와리즈파, ④무루지아파, ⑤아흐마디야파, ⑥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수피파(Sufism)로 등으로 나뉜다. 이슬람에는 최대 150개의 분파가 있다.

7) 압 둘 마시흐,『무슬림과의 대화』, 이동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98.

8) Dave Hunt, *Judgement Day, Islam, Israel, and the Nations*, (O.R.: Berean Call, 2016), 156-157.

때부터 이슬람교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다. 꾸란은 "그들이 책의 사람들(기독교인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알라의 종교가 온 세계에 군림할 때까지 그들과 전쟁하라"(꾸란 2:193)라고 말한다. 꾸란에는 무슬림들에게 칼로 이슬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100개 이상 있다. 폭력적인 지하드(Jihad)를 벌이고 있는 작금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꾸란에 기록된 대로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슬람의 힘이 약하고 적이 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하드로부터 후퇴하여 평화를 채택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율법에 위배된다고 이슬람교 학자들은 주장한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지하드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심판의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9] 이슬람교의 교리에 따르면, 이 세상은 '다르 알-하르브'(Dar al-Harb), 즉 전쟁의 세계 또는 비이슬람 민족의 세계와 '다르 알-이슬람'(Dar al- Islam), 즉 평화의 세계 또는 무슬림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정의에 따르면 평화란 세계의 모든 곳을 이슬람교가 지배하는 것이며, 완전한 평화는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전 세계가 무슬림의 종교를 채택하거나 또는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될 때까지 지하드의 의무는 계속되며 오직 휴전에 의해서만 중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10]

다른 한편,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宗敎) 이상의 총체적인 삶이기에 하나의 종교이면서 또 하나의 정치이고 하나의 생활(경제, 사회, 교육, 문화, 관습 등)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전체,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 이슬람은 신(알라)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모든

9) Michael Evans, *Beyond Iraq: The Next Move*: Ancient Prophecy and Modern Day Conspiracy Collide. (O.K.: White Stone Books), 48.

10) Gene Gerganus, *Peril of Islam: Telling the Truth*, (Taylors, SC: Truth Publishers, 2004), 59-60.

면을 통제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온 인류에게 제시한 원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교도를 무슬림(Muslim)[11]으로 부르며 자신의 모두를 알라의 뜻에 맡기는 사람을 지칭하며 이 말은 알라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이슬람 국가는 총 58개국이며 그 중 두 개의 언어권으로 구별하여 보면 23개의 아랍권과 35개의 비아랍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세기에 세계종교들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 세기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세계선교통계표(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에 의하면,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 상당히 많은 신도의 수를 나타내며 전 세계인구의 23%가 되는 약 18억(1,732,208,000)명에 가깝게 추산되며 2025년에는 약20억(2,010,408,000)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이슬람화가 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민다나오) 일부와 부루나이 등은 200여 년 전에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 전래가 되었던 곳이었다. 또한 유럽(동구)의 경우 구소련이 해체된 후 민족별로 독립된 나라들의 국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그 외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의 노동이주자들과 난민들의 유입 그리고 이주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시작된 이래로 민족·종교·문화·사회적 갈등과 종종 테러의 위협과 공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의 수반들이 다문화주의의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던 것은 이슬람의 유입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

11) 무슬림(Muslim)은 이슬람의 제4 분사형으로 '복종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이슬람교도를 뜻한다. 무슬리마(Muslimah)라는 여성형 표현도 있으나, 보통 총칭할 때는 '무슬림'이라고 한다.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제회의 기구(OIC)" 57개국이다. 무슬림 인구는 OIC 57개국과 무슬림 거주국(예, 인도)을 포함한다.

우리가 당면한 오늘날의 문제는 한국의 이슬람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무슬림의 현 상황은 추산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내 J일간지에 따르면 국내에 한국인 3만 5000명, 외국인 17만 명 등 이슬람 신자가 약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했다. "모스크 17곳, '무살라'(혹은 마스짇: 소규모 기도소) 123곳이 존재 한다"[12] 고 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이슬람화는 지금도 진행되기에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3. 이슬람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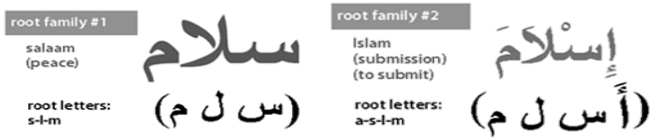
1) 이슬람의 의미

이슬람은 아랍어 어근인 원자음 's-l-m'에서 파생된 'aslama'란 동사에 기원되었고 "복종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이슬람 종교의 특성을 한 마디로 나타내주는 말이다. 그러나 이슬람 측에서는 이슬람(Islam)은 또한 'Salaam'(평화)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화의 종교를 강조한다.[13] 아랍어는 어근이 되는 원자음에 모음부호를 붙이는 데 그 조합에 같은 어근에서 다양한 의미의 파생어를 만들 수 있다. 아랍어로 평화는 'Salaam'으로서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salima'(to

12)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모스크'였네.. 이슬람 사원 무려 200여개" https://news.v.daum.net/v/20191214030317934(2020. 5. 17 접속)

13)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이슬람(Islam)이라는 어휘는 평화, 순결,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아랍어 "쌀라마"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의미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종교와 샤리아(이슬람법)의 차원에서 볼 때 창조주, 절대자의 목적과 의지에 순종하고 창조주의 법칙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쌀라마의 또 다른 의미는 "화합과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슬람교는 그 본질에 있어서 시종일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그들 종교의 기본 신조로 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be safe)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이슬람의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어근에서 온 것이다. 아래에 예시된 아랍어 보기는 이슬람 측에서 이슬람의 뜻이 평화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그들이 발표한 것이다. 아랍어의 어근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왼쪽은 '평화' (salaam)과 오른 쪽은 '이슬람'(Islam)이다. 각각 's-l-m'과 'a-s-l-m'이라는 다른 어근에서 파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대다수의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복종'과 '평화'라는 양쪽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이 가지는 폭력적인 종교의 특성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슬람 종교의 이름을 억지로 쌀람(Salam)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14)]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90장으로 된 메카의 계시(설교와 대화)와 24장의 메디나의 계시로 나뉘는데 후자는 이슬람의 폭력성과 이에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정착한

14) 잭 버드,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87; 물론 꾸란에서는 알라의 99가지 이름 중 하나가 '평화(As-Salam)'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평화이다. 알라에게 절대 복종함으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다. 무슬림들은 인사할 때 "알라의 평화가 당신께!"(앗살라무 알라이꿈!)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증거로 중근동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아랍인, 시리아인, 터키인 등은 모두 인사말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인사법은 샘족어(Semitic languages) 계통의 언어 사용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10년 동안에 전쟁을 약 66번 치렀으며, 27번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무슬림)로 구성된 종교이다. 이 종교의 경전인 꾸란(Quran)에서,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종교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꾸란 2:193)는 명령대로 이슬람의 본질적 성향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특히, 꾸란 2장 256절의 "종교가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느니라"라는 구절은 이미 이슬람 특유의 '만수크 교리'에 의해 취소된 구절이다.[15] 이는 무함마드가 계시 받은 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초기 메카에서 포교하기 위해 전략상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기간뿐이었다. 꾸란 49장 15절에 "믿는 신앙인이란 하나님(알라)과 선지자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알라)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聖戰, 지하드)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란 알라의 사업을 위해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은 그들의 경전에 이미 폭력과 전쟁과 테러의 이미지를 숨기기 위해 홍보하려고 방법을 총동원하지만 '이슬람'이 '평화'의 뜻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16] '평화'를 뜻하는 아랍어는 '쌀람'은 히브리어의 '샬롬'(שלום)인 것처럼 알리나 어근이 완전히 다른 '복

15) Mark A. Gabriel, *Islam and Terrorism: What the Quran really teaches about Christianity, violence and the goals of the Islamic jihad*, (Front Line: Charisma House, 2002), 29-32: 나중에 그들의 핍박 때문에 메디나로 피한 후 정치군사력을 확립한 후부터는 소위 '칼의 계시'로 알려진 전쟁 구절들로 바뀌었다. 이전 계시는 이후 계시에 의해 취소, 대체될 수 있다는 '만수크 교리'에 의해 폐기된 것이다. 이 평화적이고 관용적이던 '메카계시'는 이후에 폭력적인 '메디나계시'에 의해 무효화된 것이다.

16) 요즈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 중에는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저)라는 책이 있다. 이 책 90페이지에는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라는 주제가 나온다. 저자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꾸란 수라2장 256절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슬람의 실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근거가 없는 거짓이다.

종'(submission)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들은 상투적으로 이슬람은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한다. 이슬람의 폭력성을 감추고 점증하고 있는 테러행위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슬람'의 뜻이 평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종교가 태생적으로 평화의 종교일 수 없으며 이슬람(Islam)의 뜻은 어원적으로나 그들이 믿는 계시로도 평화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2) 이슬람교의 정체성

이슬람이 시작될 때인 주후 7세기경에 무함마드는 삼촌에 의해 양육되었고 성장해서는 양을 치며 낙타 모는 자였다. 그는 스물다섯 살에, 그의 여러 아내들 중 첫째 아내인 '카디자' (Kadijah)라는 마흔 살의 부유한 과부와 결혼하였고,[17] 그 뒤에는 명상과 기도에 시간을 쏟았다. 그는 마흔 살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 이후로 무함마드의 죽음까지 23년 동안에 걸쳐서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들을 구술해 주었다고 전해지며 이 계시들이 바로 이슬람교의 가장 거룩한 책인 꾸란이 되었다.

이슬람 종교는 '알라'는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신의 이름 알라는 '아라비아 의 꾸라이쉬 부족'이 믿었던 잡신 중의 제일 높은 신이었다. 실제로 달신(Moon god)을 꾸라이쉬(Quraish)라고 부르며 숭배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기나 모스크 건물위의 문양인 반달이 이를 증명한다. 무함마드는 상거래 여행을 다니면서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을 만나 유일

17) 무함마드는 25년 동안 카디자와 살았고 그녀가 죽은 뒤에 아이샤(Aisha)라는 이름의 6-7세 소녀와 정혼하고 9-10세에 그녀와 성관계를 맺어 이슬람 국가들에 편만한 조혼 제도의 원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여러 아내를 두어 결국 무슬림들의 일부다처제의 원조가 되었다.

신 사상과 종교식, 용어 등을 배워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기독교의 용어와 비슷하게 본 딴 것이 많아 기독교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 꾸란19장 88절에 "기독교와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다른 신이다"라고 쓰여 있어 증명된다. 꾸란에 명시된 대로 무슬림들은 알라가 계시한 성서를 믿는다. ①토라(율법: 모세에게 주어짐), ②자부르(시편: 다윗에게 주어짐), ③인젤(복음: 예수에게 주어짐), ④꾸란(계시: 무함마드에게 주어짐)등이다. 다만 분실되고 없는 아브라함에게 준 두루마리 책을 포함한다면 다섯 가지이다. 이들 중에 '꾸란'만이 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경전으로 삼는다.[18]

(1) 꾸란(Qur'an)

꾸란은 오스만제국 당시, 3대 칼리프에 의해 집대성 되었다.[19] 꾸란은 아랍어로 써진 알라의 말들로 알려진 것들을 담고 있는 이슬람의 경전이 되었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에게 받은 계시'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오직 아랍어만이 유일한 언어이며 아랍어를 다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한 꾸란은 해설서라고 한다.

무슬림들은 꾸란을 '알 코란'(Al-cora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독서"(reading)라는 뜻이다. 총 114장 6230절로 되어 있으며 분량은 신약성경의 3분의 2정도다. 꾸란의 내용은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전통적인 아랍의 민간신앙, 전설 등의 혼합된 작품이다. 모든 무슬림은 꾸란을 그들 신앙의 절대자인 알라의 영감으로 기록된 영원

18) 이슬람교는 알라가 인류를 위해 모두 104권의 경전을 주었는데, 그 중 10권을 아담, 50권은 셋, 30권은 에녹, 10권은 아브라함이 각각 받았으나 이들 경전이 모두 소실되어 현재까지 찾을 수가 없고, 그 중 4권만 남아 있다고 믿는다. 그 남은 경전은 알라가 모세에게 준 모세 율법서, 다윗에게 준 시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에게 진경인 꾸란을 주었다고 믿는다.

19)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56-60.

하고도 완전한 계시로 믿는다. 꾸란은 무함마드 알라의 말을 받아 인간 세계에 공포한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꾸란을 무함마드가 처음에 알라에게 계시를 받고 선지자로 위임을 받을 때 610년에서 632년까지 22년 2개월 22일간의 메카와 메디나에서 받았다는 계시의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꾸란은 계시의 내용이기보다 무함마드 한 개인이 경험한 종교적 삶을 요약한 것이다.

다수의 무슬림은 아랍어가 곧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믿기 때문에 꾸란을 '천경'(天經)으로 여기기도 한다. 무슬림들은 메카시대의 기록된 '장'(sura)은 '예언적이고 감동적으로' 울리지만, 메디나 시대의 장들은 율법적이고 권태롭다고 말한다. 꾸란은 모든 단어 18%가 아랍어 성경의 여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중 3/4은 신약성경에서 이용한 것이다.[20] 꾸란은 무함마드가 천사를 통해 알라에게서 직접 받은 계시라고 하지만 그의 사후에 제자들이 다듬어서 되살려 낸 기억과 신앙적인 습관 및 포록을 편집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성경이나 위경(僞經, Pseudepigrapha)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꾸란을 주석할 때는 대개 구약의 성경으로 설명을 보충하기도 한다. 이처럼 꾸란의 전체 내용은 무슬림의 영적이고도 사회적인 행동요령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테면 무슬림이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도(살라트 예배)와 금식(사움) 및 순례(하지), 선행에 대한 내세의 보상(약속), 무함마드의 인생 역정과 포교역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꾸란의 이런 내용들은 알라의 절대권위, 무슬림의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생의 유한성에 관한 내용의 요약이다.

(2) 하디스(Hadith: 무하마드의 言行錄)

이슬람의 전통이라 하는 하디스는 꾸란에 담겨있지 않은 무함마드의

20) 압 둘 마시흐, 『무슬림과의 대화』, 171.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승 중에는 왜곡된 것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에 그 속에 내포된 특수한 의도를 감추려고 했다. 따라서 정치적 소망이나 그 외의 기대가 담긴 예언은 물론이고 법적·정치적 선례를 규정하는 이슬람 초기 역사를 비롯하여 이슬람법과 교리에 관한 초기의 견해들도 대부분 전승 형태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무함마드의 수많은 전통들에서 왜곡되어진 것을 수집하여 왜곡되기 전에 순수한 것을 고르는 소위 전승학자들[21]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렇게 검토한 결과로 무함마드의 전통들을 모아 정통 이슬람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6권의 전승 모음집으로 나왔던 것이다.[22]

(3) 순나(Sunnah: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슬람의 慣習法)

꾸란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으로 이슬람의 관습과 무함마드가 인정한 내용들을 하디스라고 한다. 모든 법규를 꾸란에서 완성할 수 없게 되자, 무함마드의 전통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전통 연구자들은 무함마드의 생애에 주목하고, 그가 역경 중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검토했다. 그가 말한 내용만이 아니라 행동한 것도 모범과 법이 되었다. 그것은 알라에게의 예배, 라마단월의 금식, 종교세 지불, 메카로의 성지순례, 성전에서의 그의 태도, 노략물의 분배 등에 관련된다. 무함마드의 결혼으로 아내를 취한 것과 심지어 애처 8살도 되기 전에 아내로 취한 것 그리고 부인들에 대한 행한

21) 무하마드 이븐 이스마일 알 부하리, 무슬림 이븐 알 하자즈, 아부 다우드 알 시지스타니, 아부 이사 무하마드 앗 티르미디, 아부 아브드 알 라흐만 안 나사이, 아부 아브달라 이븐 마자.

22) 이것은 꾸란 외에 무슬림을 위한 두 번째 계시의 원천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한 연유로 진설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약 5만개의 무함마드의 하디스를 검토했는데 단지 4,800개만이 순수한 것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만의 진실이라는 의미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슬람에서는 도덕의 지침으로 또한 종교법의 주요원천으로서 존중되고 있다.

태도들이 법률적인 특징이 되었다. 무슬림은 유산문제, 상점 폐쇄, 맹세 위반, 허락과 금지된 음식들, 강력한 형벌 시행 등 모든 것이 무함마드의 행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의 옷을 입고, 글을 모방하는데, 자유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23]

(4) 기본교리 : 여섯 가지 믿음(六信)

이슬람의 기본교리는 즉 '믿음의 실천'과 '선행'이다. 믿음과 선행은 무슬림의 예배 행위인 동시에 알라에게 복종하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무슬림의 예배는 무슬림 개인이 이슬람 법규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인 동시에 사회적인 선행에 대한 책임의 반영이기도 하다. 무슬림 신앙의 의무는 알라[24], 천사[25], 꾸란[26], 선지자[27], 종말[28], 그리고 사후의 영생[29]을 믿는 것이 이슬람

---

23) 압 둘 마시흐, 『무슬림과의 대화』, 173.

24) 이슬람교의 기본신앙은 우주에는 오직 한 분 알라 신이 있을 뿐이며, 그 알라는 물질세계가 있기 전에 이미 스스로 존재한 영원한 존재로서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을 달리하고, 스스로 독립적인지를 가지며, 유일한 신이며,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다 알라의 예정과 섭리로 경영하며, 알라는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알며, 만물을 통찰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이다. 이슬람교 일신론 알라는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알라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성과 구속의 사랑이 없으며, 거룩과 공의의 개념이 희박하다.

25)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44; 무슬림 가운데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면 이방인으로 취급된다.

26) 위의 각주 17번을 참조하고, 그 아래에 꾸란의 설명을 보라.

27)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세상 마지막에 보낸 선지자로 믿는다. 꾸란은 그 중 28명의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특출한 선지자는 6명으로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이사) 그리고 알라가 특별히 보낸 최고의 사도는 무함마드이다.

28) 공일주,『이슬람 문명의 이해』, 159-174; 이슬람교의 말세 신앙은 시간적인 종말의 '때'로서 '부활의 날', '심판의 날', '최후의 날'을 포괄하는 말이다. '심판의 날'은 '결산의 날', 혹은 '응보의 날'이기도 하다. 심판은 특제품 히스바라는 저울로 모든 사람을 달아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거운 사람은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천당에 들어가고, 그 반대로 그 악행이 선행보다 무거운 사람은 왼쪽에 구분되어 지옥으로 보내진

교의 기본 신앙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는 신과 천사 그리고 낙원이다.

① **신(Allah)** : 유일신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알라"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신의 본질적인 이름"이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신에게 붙여진 이름은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꾸란 7장에는 "높은 곳의 장" 180절에 알라는 최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유일신 사상이나 삼위일체 개념을 부인하여 기독교를 다신교로 배척한다. 이들은 알라 이외에도 99개의 신에 대한 호칭이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호칭은 주(主)라는 의미의 '라후'이다. 신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며 절대적이다 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알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도 하고 심판, 처벌, 용서 선의에 따라 무엇이나 행할 수 있다.[30]

② **천사** :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인데 알라신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것을 중재한다. 높은 천사장인 네 명이 있는데, '계시의 천사인 가브리엘', '섭리의 천사인 미카엘', '파멸의 천사 이스라필', '죽음의 천사 이즈라엘'이다. 그 중 최고의 천사는 가브리엘이다. 그 외 진(Jinn)은 천사와 인간 중간에 개재하는 영들이다. 이슬람에서 빛으로 만들어진 천사 중에서 라낍 천사는 선행을 기록하고, 아티드 천사는 악행을 기록하는데 선행은 한 번 할 때 10점이 기록되고, 악행은 한 번 저지를 때마다 1점이 기록되어 선행 점수가 악행점수를 지워준다고 믿는다.[31] 그

다. 경건한 무슬림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29) 이슬람교는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네 가지 무대, 즉 모태, 세상, 무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옮겨 산다고 한다. 이슬람교는 이 네 가지 무대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전 과정이 영원 전부터 알라의 예정에 의한 숙명론적 신앙을 견지한다.

30)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41.

외 문카르와 니키르라 칭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장례식이 끝나는 즉시 무함마드가 가르친 신에 대한 믿음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죽은 자들의 무덤을 방문하는 천사들이다.

③ **낙원(천국)** : 꾸란에 의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이다. 꾸란 17장(유대인의 장) 21절에는 "이후의 삶은 그 훌륭함과 정도 면에서 훨씬 월등하다"고 한다. 천국에 대한 묘사는 문자적이고 물질적이다. 낙원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고 값비싼 비단으로 덮인 의자와 침대들 그리고 넘치는 잔과 감미로운 과일들"로 가득하다. 일곱 등급으로 나누는 천국 중에 가장 높은 곳이 낙원이다.[32] 이 낙원에 대한 묘사는 남자 중심의 일방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이외에 지옥, 부활, 심판, 예정 등에 대한 사상이 있지만 성경과는 다르다. 한마디로 무슬림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까다르"(운명)로 인하여 무슬림은 그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인간사는 알라가 정해준 운명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운명을 믿지 않는 것은 알라의 능력을 의심하는 불신앙인 것이다.

(5) 다섯 가지 선행 의무(五行)-혹은 지하드를 첨부하기도 함

이슬람 신앙의 다섯 기둥이라고 부른다. 이슬람교는 무슬림에게 도덕적 의무와 의식적 의무를 요구한다. 신앙 법규에 의하여 의식적 의무를

31) 공일주, 『이슬람 문명의 이해』,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8), 96.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이시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32)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52; 꾸란 55장 '선행의 장" 46절; 104장 "헐뜯는 사람의 장" 1-9절; 76장 "시간의 장" 4-22절; 89장 "새벽녘의 장" 27-30절; 17장 "유대인의 장"72절 이하.

수행한다. 이 기본적인 신앙 의무는 무함마드가 이주한 후 그가 죽을 때까지 10년간 마련한 이슬람교 신앙의 기초이다. 이 기초는 모든 무슬림 공동체와 개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적인 선행은 다섯 가지(종파에 따라서 성전을 더하여 여섯 가지 의무로 삼기도 함) 이다. ① 신앙고백으로 무슬림은 이 고백을 통하여 자신이 알라를 믿고 있다는 것과 이슬람교 신자라는 것을 확인한다.[33] ② 기도(살라트)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동시에 사죄와 공덕으로 여기고. 하루 다섯 번의 기도를 한다.[34] ③ 자선금(자카드)은 무슬림의 사회적 의무를 행한다.[35] ④ '사움'이라고 하는 라마단 월 금식이다[36]. 그리고 ⑤ 카아바 신전순례(하지)[37]이다. 이 "다섯 가지 기둥"은 예배와 교리를 대표하지만 신과 인간에 대한 의무는 더 광범위한 규율들이 있다. ⑥ 지하드(Jihad)-여섯 번째 덕목(실천 강령에 포함이 되지는 않음), 성전(聖戰)으로서 알라를

33) 칼리마투 아쉬 사하다(Kalimatu ash Shahadah): 모든 무슬림은 매일 "알라 위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다.

34) 살라트(Salat),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씩 기도의 공덕을 쌓는다. 하루 다섯 번 기도의 시간은 아침기도, 정오기도, 오후기도, 일몰기도, 저녁기도이다. 참고, 이만석,『베일 벗긴 이슬람』, (서울: 4HIM, 2010). 118-122.

35) 자카트(Zakat), 자선금은 원래 무슬림 공동체의 가난한 자에 대한 실천하도록 하며, 이는 내세의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무슬림의 물질에 대한 청빈의 표시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자선을 위해 수입의 1/40을 알라에게 바쳐야 한다. 각주 56의 '사다카'와 비교

36) 사움(Saum), 이슬람의 금식은 라마단 금식은 이슬람력으로 1월 10일, 태음에 의한 9월에 실시된다. 금식은 알라에 대한 헌신과 자기 부정을 상징하며, 금식 기간에는 모든 음식은 물론 음료수, 심지어 남·녀간의 성행위, 더러운 언행, 거짓말, 싸움 등이 일체 금지된다. 이슬람의 금식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금식을 통하여 개인적인 사욕을 절제하고, 인내를 배양하며, 겸손한 덕을 쌓는 선행이며, 다른 하나는 금식을 통하여 배고픈 고통을 체험함으로써 고통 받는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마음을 장려하는 것이다.

37) 하지(Hajj), 무슬림의 메카 순례는 핫즈(순례)의 달에 바이트 알라 알하람(카아바 신전)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모든 무슬림의 일생에 필수적인 공덕이다. '순례'는 무슬림이 성지에서 알라의 신성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데 의미를 둔다. 순례자들은 메카의 중심인 카바 신전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7번 도는 의식을 치르며, 가능하다면 신전의 중앙에 위치한 높이 12m의 흑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성묘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만지곤 한다.

위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다.[38)]

결과적으로 무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슬람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이며 유별난 종교라고 여길 수는 있으나 이단이나 사이비라든지 멀리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독교인도 유사한 단어와 내용을 듣게 되면 별다른 이질감보다는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실상 위험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하여 바르게 대응해야 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들이 숨기려고 하는 이슬람교의 반기독교적 정체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다.

3) 이슬람의 반기독교 정체성

이슬람교인들은 이슬람교를 '무함마드'의 종교라고 하거나 '무함마드'의 추종자라 고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는 종교이지 신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믿는 것이 아니므로 이슬람교를 무함마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곧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슬람은 창조주 절대자를 믿되 어떤 중개자를 통하여 믿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창시부터 반기독교적이었다. 이슬람교가 정복지에서 자행한 만행은,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오늘날의 주장에 대해 핵심적인 배경은 '옛 비잔틴 제국 전역에서 무슬림들이 자행한 기독교 문명에 대한 야만적인 말살의 전모'가 드러난다. 이러한 말살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확고한 목적을 체계적으로 공들여 만든 아주 세부적

38) 아랍어 의미로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갈등', '성전(聖戰)' '이슬람 방어' '침입' '정복'이며 현대적 의미는 '이슬람 전파' 개인 훈련' 등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말살은 말할 수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그와 비슷한 박해로 고난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39] 이처럼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맹렬하게 공격한다.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부정하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정한다. 꾸란은 16번에 걸쳐서 알라는 아버지가 아니며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의 성전 산 위에 있는 바위 돔 사원(The Dome of the Rock Shrine)의 벽에는 아랍어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는 알라와 알라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말씀의 사자이며, 알라로부터 나온 영일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로지 알라와 그의 사자를 믿기는 하되, 셋(삼위일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선언문이 쓰여 있다.[40] 이처럼 꾸란에서는 이슬람의 반기독교적 정체를 나타내는 내용이 많다.[41]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슬람교는 이 세 가지를 모두를 부정한다.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의 성경이 변질되었

39) George Horton *The Blight of Asia: On the Systematic Extermination of Christian Populations in Asia*,(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Gyan Books. 2015). Dave Hunt, *Judgment Day!: Islam, Israel, and the Nations*, (Berean Call), 158-159.

40) 클라우드 외, 『이슬람교 바로 바로알기』 (인천: 그리스도예수안에, 2016), 41.

41) 알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이미 믿음을 떠난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꾸란5:17). 알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한다(꾸란4:157). 알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산채로 승천했다고 한다(꾸란4:158). 알라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꾸란7:73). 알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꾸란19:88-91). 알라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함마드의 출현을 미리 알리러 왔다고 한다(꾸란61:6). 이사는 무슬림이었으며 알라만을 믿으라고 전파했다고 말한다(꾸란5:72).

다고 가르치며, 삼위일체는 가증한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에게 마리아라는 아내가 없었기에 꾸란에서 25번이나 언급되는 '이사'(Isa)를 예수라고 말하나 성경의 예수님은 아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종이자 스승이고 알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성자(聖子)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이를 치유하고 죽은 이를 되살린 것과 같은 기적들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사'(예수)는 모든 인류에 대한 알라의 자비로운 하나의 표징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메시아 등과 같은 칭호를 예수님에게 붙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또는 주님으로서가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예언자(선지자, 대언자)나 위인들 중에 한분으로 여기고 있다.[42)]

흔히 이슬람은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창조주 유일신 절대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אל)을 알라(Allah)라는 신의 이름으로 섬기는 종교라고 알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이다. 원래 알라는 무함마드가 속했던 꾸라이시족이 섬기던 종족 신 이름이었다. 이슬람 역사에 의하면 알라에게는 라트(Lat), 우짜(Uzza), 마나트(Manat)라는 세 딸 신이 있었다. 이처럼 이슬람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단지 무함마드의 탄생을 예언한 자로서 그의 하수인이나 종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인류 구원을 막는 이교(異教)이다. 그들의 목적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기에, 거짓말하는 자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42) Gene Gerganus, *Peril of Islam: Telling the Truth,* (Taylors, SC: Truth Publishers, 2004), 47-48.

자는 적그리스도이다(요일2:22).

4) 이슬람의 기만술

① **타끼야(위장) 혹은 키트만(숨김) 교리** : 특정한 상황에서 불신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허용되는 타끼야(taqiyya)와 키트만(kitman)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거짓말이 있다.[43] 둘은 비슷하지만 구분하자면, "타끼야"는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며, "키트만"은 부작위(不作爲)때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기만 교리는 기만술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이슬람관련 책들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거짓말해도 좋다는 편리한 교리인 '타끼야'(위장교리)가 있기 때문이다.[44] 이 교리를 따르면 이교도들을 속이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45]

오늘날 무수히 미화된 이슬람 자료들 중 어느 것이 참된 이슬람을

---

43) 무슬림 옹호자들이 꾸란 5:32(살해했다면 "그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의 일부분만을 인용하며 "부패"와 "해악"에 관하여 불분명한 경우에 살인을 명령하는 나머지 구절(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한 예가 될 것이다.

44) '타끼야'는 사전적인 의미로 '신념, 생각, 감정들을 숨김' 이라는 뜻으로 수니파 무슬림에 의해 심한 종교적 박해를 받던 시아파 무슬림들이 생존과 종교적 신념 보존을 위하여 위험한 경우 자신의 신앙을 감추는 행위를 말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키트만(kitman)이라는 교리가 있다. 이는 숨기는 것이다. 물론 타끼야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이를 실천하는 데는 일부를 감춤으로 속이는 것이다. 즉 꾸란 구절을 인용하되 일부분만 인용하는 것이다. 비근한 예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구절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그들은 시편14편 1절에 그런 말이 분명히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한다. 그 구절을 찾아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45) ·알라께서는 *너희가 생각 없이 한 맹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으시며 진심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신다. 알라는 잘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시다. (꾸란2:225) ·배교한 자는 알라의 가혹한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배교한 자*는 예외로 한다(꾸란16:106).

소개하는 것인지 분별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속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따라서 미화된 이슬람이 아닌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직접 읽어볼 수밖에 없다. 이슬람에 있어서 7세기경 고대 아랍어로 된 꾸란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꾸란은 단지 해설서로 여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아랍어로 쓰인 꾸란에 대해 잘 모르고 무조건 암송하고 지킨다.

② **만수크 교리** : 이 교리는 알라는 꾸란의 어떤 내용들을 나중에 나온 새로운 명령들에 의해 취소, 폐기, 대체 또는 무효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슬람에 있어서는 622년 이전에 받았다는 메카의 평화로운 계시와, 622년 이후에 받았다고 하는 메디나의 폭력적인 계시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점은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 후자에 의해서 전자는 자동 취소되고, 후자로 대체된다는 취소(Mansukh)교리 혹은 대체(Nasikh)교리이다. 이 교리의 실제적인 적용은, 꾸란에서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될 때 더 새로운 계시가 이전의 계시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구절이 오래된 구절을 취소시킨다. 당신은 여전히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는 말을 꾸란에서 볼 수 있지만, 꾸란2:193에서 '그리고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이는 알라만을 위한 신앙이니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항복한다면, 압제자들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적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새로운 명령 때문에 이전 구절은 더 이상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종교에 강요는 없으리라'는 구절은 나중에 쓰인 계시들에 의해 취소(만수크) 되었다. 이 폐기(만수크)는 아랍어로 대체(나시크)로도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알라가 '진보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를 통해 무함마드를 인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꾸란의 많은 사본들이 어떤 수라가 메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메디나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여 주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어느 것이 더 새로운 계시인지를 알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46]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교리들은 이슬람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슬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워야 하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슬람 학자들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모든 계시는 취소되고 폭력적인 전쟁의 구절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무슬림들은 아래와 같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1) 그 명령을 실천하려 테러에 가담하게 된다. 2) 실천하지 못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3) 실천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며 산다. 4) 실망을 느끼며 이슬람을 떠나 배교자가 된다. 5) 그 교리를 알면서도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두려워, 모르는 체하고 명목상의 무슬림으로 살아간다.[47]

---

46) Gene Gurganus, *Peril of Islam*, 69; "알라께서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그 계시함이 무엇인가는 알라만 아심이라 이에 그들이 위조라고 말하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꾸란 16:101). "알라께서 원하사 알라께서 그대에게 계시한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나니 그 때에 그대는 보호할 어느 것도 발견치 못하리라"(꾸란 17:87).

47) 꾸란 2장 106절에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나온다. "어떤 말씀을 망각케 하였거나 취소했다면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알라는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는 모르느뇨." 이 구절에 의하면, 알라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미 내린 계시를 망각케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어떤 계시를 취소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계시를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최영길 번역 꾸란(해설서)에 보면, "어떤 말씀도 폐기하지 아니하며 망각케 하지 아니하되 보다 나은 혹은 그와 동등한 말씀으로 대체하시나니 알라는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느뇨"라고 번역하였다. 그 번역 문장을 보면 더 나은 말씀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이전 것을 "폐기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함께, "망각하지 아니하되"로 번역한 것을 보면, 알라의 말씀을 폐기한다는 표현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오역으로 보인다. 김용선 번역본과 이슬람 국제출판국 번역본과 다르게 번역하였다.

5) 이슬람 지역의 법률, 경제 및 정치

(1) 이슬람법의 근거

이슬람 법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슬람법의 입법근거는 꾸란, 하디스, 그리고 순나, 만장일치, 유추, 부분일치로 순위와 단계가 있다.[48] 샤리아의 비밀을 추적한다면 꾸란에서 법과 관련한 내용을 500구절이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구절들이 이슬람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구절들의 12.5%가 샤리아의 척추가 된다. 샤리아는 결코 무함마드에 의한 한 통일성 있는 책으로 기록되거나 지시된 것은 아니다. 모든 계명과 금지령이 전 꾸란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49] 이슬람법의 역사와 원리에는 통일된 샤리아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주장하는 학파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50]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은 시아파와 순니파는 율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① 시아파 사람들은 이즈마(Ijma)[51]를 인정치 않으며 그들의 이맘(Imam)들은 초인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꾸란의 해석에 절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② 시아파 사람들은 이맘들은 신이 임명한 것이며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무함마드까지

---

48) 공일주, 『이슬람 문명의 이해』, 103-110.

49) 압 둘 마시흐, 이동주 (역), 『무슬림과의 대화』, 170.

50) 압 둘 마시흐,『무슬림과의 대화』, 174. 아부 하니파(Abu Hanifa), 아나스 말리크(Malik b. Anas), 알 샤피이(Al Schafii), 이븐 한발(Ibn Hanbl), 쟈파 무하마드(Djafar Muhammad)

51) 이즈마(Ijma)는 이슬람법의 네 가지 법 원리 중 하나로 종교 공동체 내부의 '견해의 일치점 도달'을 의미한다. 이슬람교의 종교 공동체 전체의 기성 견해의 합치가 교리 해석상 및 법학상 구속력을 갖는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은 이슬람력 2세기였다. 이 원리는 처음에는 내부의 발전 폭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뒤이어 법학자가 체계화한 교리에 봉인을 누르게 되어 그 변경을 불가능한 것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즈마는 하디스가 《꾸란》을 보완하고 종합한 것처럼 다시 하디스를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한 것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꾸란》과 하디스 해석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이즈마로 되었다.

연결되어 내려온다고 주장한다. ③ 순니파 사람들은 칼리프(Caliphs/Imam)는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52]

(2) 샤리아 법(Shari'a)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슬림들의 샤리아는 두 개의 주된 출처인 꾸란과 순나(Sunnah)에 근거한 것이다. 무슬림들에게 샤리아 법이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데, '샤리아'의 뜻은 물 마시는 곳으로 안내하는 큰 길을 의미한다. 신의 법을 따르는 큰 길이라는 의미에서 '샤리아'는 인간이 따라야 할 법으로 9세기 말에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해 법제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샤리아법의 성격은 서구사회법보다 광범위하다. 즉 예배, 참회, 장례 소송, 계약, 매매, 혼례, 이혼, 부자상속문제 등 가족, 금융체계까지 사회적, 도덕적 모든 측면 즉,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슬람법을 적용시킨다. 특이한 점은 이슬람 법학에서는 법을 형성,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회를 조정, 규정한다.[53]

이슬람의 샤리아(Shari'a)법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가 있다. ① 이바다(예배예식) ② 무'아말랏(계약) ③ 아답(도덕과 예절) ④ 이'티까닷(신앙) ⑤ '우꾸밧(처벌)로 구성되어있다. 샤리아 법은 종교, 정치, 사회, 가정, 사생활까지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모든 행동을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 한다. ① 모든 신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② 의무적이진

52) Joyce Moss & George Wilson, *People of The Worl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troit, London: Gale Research Inc. 1992). 44-45; 마호메트가 죽자 아부 바크르 앗 시디크가 그를 계승하여 '칼리파 라술 알라'(신의 사자의 후계자)가 되었다. 아부 바크르와 그의 뒤를 이은 3명의 후계자들이 정통 칼리프로 알려져 있다.

53) 전호진,『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체』,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KUIS Press, 2007), 61-62.

않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③ 무관심한 행동 ④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⑤ 금지된 행동 등이다.

이것들을 합법적인 행동들과 불법적인 행동들로 구분한다. 첫째, 합법적인 행동들은 ① 신에 의해 직접 주어진 의무적인 것들로서, 이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간주되며 체벌을 받는다. ② 의무이긴 하지만 잘 지키지 않고 계속 범해도 불신앙으로 간주되지는 않는 행동(Wajib) ③ 무함마드에 의해 실천되어진 행동들(Sunna) ④ 칭찬할 만한 것들로서 무함마드와 그의 추종자들이 가끔 행하던 행동들 ⑤ 허락된 것들로서 죄의식 없이 생략할 수 있는 무관심한 행동들로 구성한다. 두 번째, 불법적인 행동들은 ① 죽을 죄-사악하고 매우 타락한 행동들 ② 명백히 금지된 행동들(haram) ③ 일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구성한다.[54]

(3) 샤리아 법에 따른 법률 적용과 책벌 내용

모든 법적 규제가 바로 이 샤리아법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도이든 아니든 간에 샤리아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슬람법으로 금한 것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벌 규정이 이슬람 법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만일 형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한지 않는다. 이슬람 형벌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핫드(지정형벌), 끼싸스(보복형벌), 타으지르(재량형벌)이다.[55] 이슬람에서 범죄란 알라가 책벌이나 처벌로 그 종류는 책벌과 형벌로 나뉜다. 핫드(형벌)의 의미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두 사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법적 용어로는 알라가 규정한 처벌을 말한다. '판단'이란 뜻을 담고

54) 잭 버드,『이슬람이란 무엇인가?』, 67.

55) 핫드의 예는 미성년자 간통범에게 100대의 태형, 끼싸쓰의 예는 살인범 처형. 타으지르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벌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형벌이다. 판사 재량에 따라 사형 집행도 가능하다.

있는 책인 퀴아스(qias)를 주로 인용하는 데 이 책은 이슬람 교리와 실천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 또는 어렵고 의심이 나는 문제들에 대한 학자들의 유추 해석한 것이다. 학자들은 이미 꾸란, 순나, 이즈마와 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사례의 권위를 통해 야기된 문제들의 이전 판결에 비추어 결정기준으로 삼는다.[56]

이슬람이 자비와 관대함의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슬람 법상에 처벌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벌이 되지만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자비가 되는 경우이다. 범죄자에게는 패역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자비와 관대함을 적용할 수 없으나, 공동체 즉 사회에는 적용하기 위해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이를테면 간음을 한 경우를 입증하려면 4명의 증인이 필요 한다든지, 범죄를 입증하는 데 의심되는 것이면 그것을 입증하기 까지는 처벌하지 않는다. 동해복수를 피의 값을 배상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자비와 관대함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꾸란에서는 타종교인 특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소수민족세'를 지불할 때까지 굴복해야 한다(꾸란 9:29-30).[57]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과 차별은 그들의 법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약거래범과 그리스도인은 동등하게 취급하여, 만약 그리스도인임이 적발되면 가진 모든 증거물품들이 빼앗기고 샤리아법에 의해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돌팔

56) 예를 들면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자는 사형이고, 3일간 회개할 시간을 주어 이슬람으로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는다. 간음한 기혼자는 돌로 때려죽이고 미혼자는 100대의 태형이다. 기혼자가 간통했다고 거짓 고소한 경우는 80대 매질하고 도둑질의 형벌은 손을 절단한다. 노상강도는 단순 강탈인 경우는 오른손과 왼발을 절단하나 살인을 동반한 경우는 칼로 참수하거나 십자형으로 죽이고 음주한 자는 80대의 매질이다. 동해동상(동해복수)에 상당하는 피 값의 배상금 그리고 불법 부당하게 당한 것도 한 형벌에 속한다. 간음한 여자의 형벌은 돌로 치는 것 등 인권유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같이 법이 적용되므로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악법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것을 폐기하고(요르단) 지키지 않는 나라가 많으나 사우디는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57) "...그들이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매질 등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고 심지어 죽기까지도 한다.[58]

6) 이슬람과 경제

이슬람법은 재산의 소유와 재물을 얻는 방법, 거래방식, 재산 취득 및 그 권리의 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생산, 유무형의 재산권, 소유권, 노동에 관한 법규, 소비와 거래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이슬람 경제 제도라고 한다.[59]

대체로 이슬람 은행은 '이자'(리브흐)가 없다.[60] 하지만, 일반 아랍은행은 이윤(파이다)은 있고, 이슬람은행은 '투자 이득'(무라아바하)이 있다. 아랍은행에는 예금 이자를 예치금에 보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 은행은 이슬람의 원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불로 소득은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예치된 자금을 활용하여 그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각 예금주에게 돌려주는데 그 투자 이득은

---

58) 꾸란 22:78,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 이 본문의 각주는 너희 영혼과 재산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알라)을 위해 성전(聖戰)하라고 주석한다. 무함마드가 아주 싫어하던 위선자들은 사실상 ①첫째, 이슬람 외에 타종교를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이다. ②둘째, 알라를 위해서 재산 헌납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③셋째, 이슬람을 위한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런 위선자들의 운명은 꾸란에서 지옥의 불길에 던져져 누구하나 도와줄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꾸란 4:45). 반면 위선자들이 아닌 진정한 무슬림들이란, 꾸란에 의하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진정한 무슬림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①첫째로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②둘째로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며, ③셋째로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하드(Jihad) 하는 자이다(꾸란 49:15).

59) Halim Barakat, *The Arab World: Society, Culture and State*,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75-81; 공일주, 「이슬람 문명의 이해」, 136-141.

60) 수쿠크법: "수쿠크면세특혜법"인 이법의 공식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이름에서 짐작하게 되듯이 법의 내용은 세금을 얼마나 깍아 주느냐에 관한 법이다. 수쿠크면세특혜법은 수쿠크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등 7가지나 되는 세금(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을 모두 면제해주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해주자는 법이다. 샤리아법, 샤리아 감독위원회에 의한 제정된 법이다.

대략(약6%) 정하고 있다.[61]

꾸란과 하디스에 의한 경제 활동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① 첫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능한 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② 둘째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 즉, 혼자만의 것으로가 아닌 타인을 도우라는 것이다. ③ 셋째는 알라가 허용한 것을 즐기라는 것이다. 복을 더 많이 받기위해서는 "알라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즐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특히 빈곤을 증오한다. 이것의 원인은 인간의 태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근로는 곧 예배라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근로를 안 하는 경우 현세와 내세에 벌이 있다고 가르친다. 또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가족의 결속을 강조하고, 부인을 능력에 따라 몇 명씩 두라고 한다. 또한 가까운 친척을 돌아볼 것을 강조한다.

구제금은 의무적인 '구제세금'(자카트)과 자발적인 '후원금'(사다까)[62] 두 가지가 있다. 그 외에는 희생절의 구제, 대속, 순례시 잡은 양, 이슬람 사회 공영을 위한 부조 등이 있다. 이슬람은 알라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권리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돕는 일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이웃을 돕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7) 이슬람과 정치

이슬람 국가는 오로지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이슬람식의 정치제도를 갈망한다.[63] 현대 이슬

61) 공일주,『이슬람 문명의 이해』, 136.
62) '사다까'는 의무구제세금인 '자카트'와 달리 무슬림의 자유의사에 의한 희사(喜捨)를 말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 재산을 남에게 희사하면 나머지 재산은 '정화' 받는다. 구빈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고 천국에서의 보상이 늘어난다고 믿는다.
63) Halim Barakat, *The Arab World: Society, Culture and State*, 148-177.

람 정치학자들이나 현 정치권에서 꾸란과 하디스에 따른 통치 원칙과 역사를 통한 통치 방식의 적용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권 유린, 독재정치, 슈라 적용의 약화, 이슬람식이 아니 통치 방식 등이 오늘날 자리를 서서히 바꾸어 가고 있다. 국가라는 명제를 이슬람 법학자들이 '개인들의 집단으로서 일정 지역에 살면서 집단으로 하여금 개인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주권을 부여된 조직'이라고 정한다. 여기서 국가의 세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에 대해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국민이란 이슬람 국가의 시민으로서 한 영토에 속한 민족을 말한다. 그 영토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땅의 국적을 획득해야하는데, 이 국적의 획득은 법적으로 이슬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슬람의 계약을 맺거나 피보호민의 계약[64]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슬람 국가는 혈연과 지연에 상관없이 이슬람 사상과 원칙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이는 꾸란 2:256에 "타종교를 증오하지 말라" 한 것에 따른 것이다. ② 영토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말한다. 영토 없는 국가는 불가능하고, 국가의 기관은 땅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세계 이슬람 단일 국가 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적인 칼리프(제정일치의 수장) 제도를 부활 시켜 이슬람 연합을 꾀하는 작업을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다. ③ 이슬람 국민, 즉 움마(Ummah)[65]가 국가에

공일주,『이슬람 문명의 이해』, 142-160.

64) "딤마"란 보호 혹은 협약이라는 뜻으로서 이 딤마 계약에 속한 사람도 이슬람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슬람을 그들의 삶의 방식과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이 되, 다만 자신의 이전 신앙과 교리를 따른 사람일 경우이다. 부모가 이런 계약자라면 자녀들도 이어받는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유대인과 기독교인, 및 그 밖의 이슬람 땅에 사는 타종교인들이 해당 된다.

65) '움마'는 이슬람의 교단(敎團) 내지 종교 공동체(community)를 말한다. 이슬람 이전과 같은 종족적 결합이 아니고 이슬람의 유대(community)를 성립케 하는 결합이다. 샤리아에 의하여 통합되는 보편적 종교 사회가 '움마'로서 이념화되고 정통파 이슬람은 개인적인 교단 지도자에 대해서가 아닌 '움마'에 카리스마를

대해 갖는 권한을 가리킨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바이아”제도를 중요시하여 최고 통치권자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의 이슬람 국들의 대부분은 1인 통치를 하는 전제국가들이 많다. 이처럼 이슬람은 본래부터 종교와 정치색을 띠고 있었고 역사를 거치면서 정치와 지하드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으며 비 무슬림에 대한 차별은 이슬람 사회에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다. 지금도 아랍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의 지시를 받고 아랍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무슬림들에게 전한다는 혐의가 씌워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절대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아랍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8) 이슬람의 일반적인 문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거나 장식하기 위하여 쓰는 얇은 망사. 머리에 쓰거나 모자의 가장자리에 달기도 한다. 머리에 베일을 쓰는 이유는 꾸란에 명시 되어있는데, 무슬림 여성은 13세가 되면 베일을 써야한다. “여성은 반드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옷으로 가려야만 하며(꾸란 33:59), 그들의 가슴도 가려야 한다. 그들은 남편 외에는 장식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와 여성은 남성에게 말할 때에 시선을 아래로 향해야 한다(코란24:31)...얼굴의 너울을 가슴까지 내려라”(코란 24;31).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베일은 나라나 종교적 성향, 계층, 연령,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튀니지 등 상대적으로 개방된 북아프리카와 일부 페르시아만 지역 이슬람 여성들

부여하였다. 현대에서는 초민족적 '움마'에의 귀속(歸屬)과 민족적 통일과의 관계 재확인이 민족주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은 흰색이나 다양한 색의 두건 모양 '히잡' (hijab)을 선호하거나 아예 쓰지 않기도 한다. 이란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차도르' (chador)'를 착용하며,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탈레반 정권 하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온 몸을 뒤덮는 '부르카(burka)'를 입는다.

할랄 음식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그들의 독특한 문화 부분이다.[66] 여성인권 이슬람국가들은 여성을 일종의 자산이나 남성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빈번히 일어난다.[67] "부인이 말을 안들을 우려가 있을 때, 불순종할 우려가 있으면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두 번째는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꾸란4:34).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꾸란4:3). "무하메드는 숫자에 관계없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한다. 그러나 다른 무슬림은 안 된다."(꾸란 33:50). "이슬람에서 아내를 매질할 수 있다"(꾸란 4:34). 탈레반정권 당시 이슬람교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여학교 폐쇄, 텔레비전 금지, 이슬람식 처벌제도 부활, 아동 학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음으로 국제사회에 비난을 샀다.

4. 한국에서의 이슬람 상황

이슬람교의 목표는 알라를 위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들의

66)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Halal)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 율법에서 사용이 허락되어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고기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며, 돼지고기를 비롯해 뱀이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짐승 등 많은 것들이 금지된다. 반대로 하람(haram)은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음식이다.

67) "명예살인"의 경우 2013년 10월에 일어난 친아버지가 15살 된 자신의 딸이 약혼자와 전화통화 했다는 이유로 소녀를 불에 태워 살해된 일에 아버지는 징역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국제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주요 이슬람 포교 정책인 “다와”(Da'wah)[68]를 통해 한국에 대대적인 유입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미 2005년에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 출판한 「한국이슬람 50년사」에는 최우선하는 첫째 계획은 사원건립이라고 밝혔다. 즉 모스크(mosque)와 마스짇(masjid-혹은 무살라) 설립이다.[69] 둘째로 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이다. 셋째로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이다. 넷째로 꾸란 번역 위원회를 통한 번역과 보급이다. 다섯째는 이슬람 대학교 설립(현재 실행은 못함)이다. 마지막으로는 이슬람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이다. 이렇게 대략적인 전략을 통해 “다와” 계획을 지체하거나 중단 없는 수행 과정 중에 있다.[70] 이들의 최종 목표는 한국을 이슬람화 국가로 만들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와 계획을 한국 내에 어떻게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내 이슬람의 현황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발행하는 『ISLAM IN KOREA』(2017)는 0.2% “퓨 포럼”의 『무슬림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7만 1000명

68) Jane I. Smith, *Islam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ity Press, 1999). 160; “다와”는 무슬림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슬람만이 진리이며 신(알라)에게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경건과 자비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와는 기독교 선교와 동일한 의미이다. 어떤 종교인이든 상관없이 개종을 시켜 무슬림으로 만드는 이슬람의 적극적인 포교 사업이다. 또한 이슬람을 떠난 변절한 자들을 다시 무슬림이 되도록 이끌기도 한다.

69) 모스크(Mosque)아랍어의 '마스짇'에서 유래하였으며 에스파냐어의 메스키타와 프랑스어 모스케를 거쳐 영어 ‘모스크’가 되었다. 마스짇(무살라)은 이슬람교의 예배 장소(사원)로서 아랍어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곳’, ‘엎드리는 곳’이란 뜻으로, 무슬림들이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데서 연유한 말이다. 이슬람교에서는 마스지드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깨끗한 곳이면 어디든, 안방·일터·야외·공항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무방하다.

70) “한국이슬람 50년사(KMF)” 『ISLAM in KOREA』(2007, 8); www.koreaislam.org

외국인 12만 9천명으로 거의 20만으로 파악하였다. 지금도 그 숫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71] 이슬람 예배처소는 사원과 센터를 포함하여 약 90개로 파악된다. 2018년 기준 모스크는 17개이며 센터는 사원보다는 약간 적은 규모인 마스짇(이지만 전국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72]. 그리고 무살라(마스짇-기도의 장소)는 전국에 123곳으로 파악된다.[73] 전국의 대학 내에도 이슬람 예배소를 설치되어 있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는 한국에 진출한 이슬람의 포교를 위해 1976년에 설립한 한국 이슬람 중앙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다. 주요 조직은 장년회를 비롯하여 청년회, 학생회, 여성회, 유치원(프린스 술탄마드라사)으로 조직 구성하고 있다. 이 조직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이슬람권 주한 21개 대사들이 이슬람 포교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 연구소"를 운영함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힘입고 막강한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이슬람 포교의 총본산으로서 한국내 이슬람 문화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2) 국내 이슬람의 각 분야별 활동현황

사회부문(기관, 단체)은 한국 · 아랍 소사이어티(Korea-Arab So

71) 2016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를 포함하여 약 23만 5000여명이 국내거주 무슬림의 수이다. 이처럼 내국인 무슬림의 수가 급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 무슬림과의 결혼을 통한 개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참고,http://blog.naver.com/wrn2991/220265241098 매일종교신문 NEWSCLIP, 2015.02.06.

72) 전남 광주를 비롯하여, 대구, 대전, 안산,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평, 제주, 김포, 창원, 울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커지면 사원으로 성장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창원 이슬람센터는 창원 중앙동에 위치하며 지난 2011년 2월 2일에 열렸으며, 울산의 이슬람센터는 거여동 울산대 부근에 위치하며 2011년 3월 12일에 개원되었다. 그리고 2011년 6원 8일에 부산 성원은 양산에 분회를 개원하였다.

73) 서울에 만도 5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 동암, 대구, 부산, 대전, 마석·상생지구, 김포 등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예배처소의 수는 30여 년 동안 소규모 '예배 처소'(마스짇)를 포함해 모두 약 300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ciety), 한국 · 중동협회(KOMEA), 주한아랍연맹상공회의소가 있으며, 이슬람의 법조계는 주로 법조계 및 관련기관을 통한 강연을 하는 정도이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법연수원 내 초대 "이슬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주도하여 창립되었다는 점이다. 사회 · 문화 부문으로는 출판을 통한 이슬람 포교를 하고 있다. ㉠ 꾸란의 한국어 번역, ㉡ 이슬람 교리 및 포교용 책자 출판, ㉢ 이슬람 홍보하는 서적들(200여종), ㉣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 책자 보급 등이다.

또한 **이슬람 문화원을 통한 포교**[74]를 하며 미디어 및 강연활동을 통한 포교를 한다. 주요 활동은 ㉠ 이슬람 홍보영상, ㉡ 강연활동, ㉢ 이슬람 측 인사들을 통한 기사연재, ㉣ 아랍어 방송 및 홈페이지, ㉤ 연극 등으로 포교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내에 **이슬람 문화**를 주제로 모든 영역에서 한국의 주류계층 뿐 아니라 소수의 다문화사회에 속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영역에서 거의 이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75]

이슬람 교육을 위해 세워진 기관은 ㉠ 유치원인 프린스 술탄 마드라사(2001. 10 개원), ㉡ 이슬람 초등학교(2009. 3 개교), ㉢ 터키 국제학교 "레인보우 외국인학교"(2007. 8 개교)가 있으며 수능과목에 아랍어가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며 대학교의 캠퍼스에도 많이 진출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 각 대학의 아랍학과 개설, ㉡ 이슬람관련학회 및 연구소를 통한 이슬람 전파, ㉢ 이슬람학생들의 활동과 동아리 활동, ㉣무슬림 유학생들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국내 건설사 외국인

74) 한국기독교범교단이슬람대책위원회 편저, "이슬람을 경계하라" (서울. 2010.)
75) "에쓰-오일 과학문화재단(www.kacen.org)은 1) 한아랍대학생교류, 2) 한아랍문화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 제작, 3) 한·아랍구연동화제작, 4) 아랍어스피치컨테스트 후원, 5) 아랍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 6) 중동지역관련 책자 발간.

무슬림 채용 기준에 우선순위가 된다. 그 외 인터넷 부문도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다. ㉠ 이슬람 사원 운영 다와 사이트, ㉡ 무슬림 박동신이 운영하는 다와 사이트, ㉢ 무슬림 개인들이 운영하는 다와 사이트 등 많이 찾을 수 있다.

이슬람의 국내 유입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내에 이슬람화 진행의 수준은 미미해 보인다. 문제는 한국내 이슬람은 단지 종교전파를 위해 포교 수준에 그치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들은 종교, 문화, 법, 경제, 교육, 방송, 미디어, SNS, IoT, 대학동아리, 회사 취업 현장 등 국내의 모든 영역에 다와 전략을 위해 진지를 거의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5. 국내 이슬람 대응의 방향 제시

국내 선교사회나 선교학계에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대응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선교적 대응방안, 사회적 대응 방안, 그리고 변증적 대응 방안이다.

첫째는 선교적 대응 방안으로 한국교회는 국내로 들어오는 무슬림들을 위한 '다문화선교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무작정 잘해주고 퍼주는 식이 아니라, 이슬람을 알고 전략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을 동시에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사회적 대응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슬람권에서 한국사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반 움직임에 대해 세심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슬람권의 교육계, 금융계, 문화계, 산업계 등의 영역에서 그들의 세력이 무한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교회들의 연합하고 협력해서 조직

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76]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보다 준비된 기독교 변증적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슬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포교의 열정만을 가지고 나서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꾸란을 통째로 암송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넘어뜨릴 지성적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슬람권 지도자들 간에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이해에 대응 방식에 차이는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한쪽은 이슬람을 포용하려는 것이고, 또 다른 쪽은 이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한다는 견해의 차이 때문이다. 전자는 한국에 무슬림들이 들어와도 혹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으니 한국에 들어오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고, 후자는 이슬람 자체가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일으키므로 입국을 막을 수 있는 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상당수 교인들이 이 두 의견을 잘 절충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갈등을 빚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슬람의 다양성과 복합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갈등이 생긴다. 지금 한국에서 무슬림을 포용하자는 일부 현재 이슬람지역 선교사와 선교 단체 지도자들의 의견은 선교 신학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이슬람 혐오, 공포(포비아)를 갖지 말라고 강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복음 전도

76) 예를 들면, 한국의 출산율의 하락으로 외국 인력의 대거 유입, 이자 없는 대출(수크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이슬람 유치원, 초· 중·고·대학교에 보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매수되고 이슬람을 배우고 특혜를 얻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결과에 대한 예측에 대해 출산율이나 기독교 기업인들의 대응 마련, 한국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에 무관심한 한국 기독교에 무장 해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슬람의 정치적인 이슈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한 테러를 뛰어넘어 전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본래 목적이 한국은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애당초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처음으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였을 때 이슬람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잡는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이슬람의 이데올로기적인 도전은 정치적인 이슈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슬람 확산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단순히 '문명의 충돌'이나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이란 말로 단순 도식화할 수 없다.

둘째, 이슬람에 대한 이견(異見)은 이슬람을 신학적인 기독교 선교로 접근하는 것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한편은 이슬람 세계의 소수 무슬림들만이 세계에서 과격하게 테러를 일삼고 있을 뿐, 이슬람은 본래 중용과 관용을 모색하는 종교라는 말을 우리는 무슬림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무슬림들도 과격한 방법이 아닌 설득을 통하여 이슬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으므로 과격한 한 두 명의 무슬림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이슬람권 선교 지도자들은 유럽이 이슬람화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77] 그러한 주장처럼 유럽의 이슬람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견해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을 단편적으로 바라본 다면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슬람의 세력은 세계에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무슬림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한국에서도

77) 국제인터서브선교회 폴 밴더 새뮤얼 전 대표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216465(2020. 5. 25 접속)

저들의 세력은 성장하고 있다. 이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증대할 것이란 점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일으키는 무슬림들의 테러를 무슬림들은 단지 저항이라고 말할 뿐 테러라고 여기지 않는다.[78)]

셋째,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의 테러의 원인에 대한 이견이다. 무슬림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서구에 대한 무슬림들의 반작용이라고 보는 학자들과 이슬람 경전 꾸란의 일부 구절이 본래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 나뉜다. 전자는 테러 원인을 서구의 혐오와 차별, 인종차별로 보아 정치적인 이슈가 되었고, 후자는 테러 원인을 지하드(이슬람식 전투)로 보아 이슬람 신학적 이슈가 되었다. 결국 이슬람의 신학적,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정치적인 측면 중에서 어느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 이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언어'와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들의 세계관을 정확히 해독할 필요가 있다.[79)] 물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폭력적 단체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집단 거리 행진이나 대구의 상리동에서 있었던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 지도자 추모 행사로 볼 때 우려되는 조짐은 없지 않다. 다만 이러한 한국의 현실상황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나 포비아를 가져서

78)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러나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이다.

79) 오래전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무역센터를 공격한 것(911 테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공격, 미국에서 꾸란을 불태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중동의 소요사태, 무함마드 풍자 만평으로 인해 발생된 세계적인 동요들이 권력의 함수 관계를 알고 있는 이슬람 커뮤니티의 본질에서 나온 테러의 위협인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핵심은 전세계의 이슬람 공동체(움마)의 결속과 보호를 위해 혐오와 차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저항'의 발로이다. 전이슬람 세계가 단결하여 반이슬람 세력을 막아내자는 것이다.

는 안 된다. 오직 변증적 자세를 갖추어야 할 필요는 이슬람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대응방식에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선교적 방향은 변증적 선교인 대응과 복음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총체적 선교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나가는 말

한국의 교회는 이슬람 유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위해 이슬람 선교에 필요한 변증적 선교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상황에서도 왜 겸손하게 변증하셨는가를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신약의 일반서신인 베드로 전후서가 변증적 선교의 모델을 삼아 기독교 신자들은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전도해야 한다. 한국에 유입되는 무슬림들에게 접촉하고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① 교회들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을 지혜롭게 해답하고 질문을 유도하면서 답변하는 전도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② 교회는 이러한 전도를 위하여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③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이슬람의 확장을 예의주시해야 하면서 주도면밀한 선교적 전도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한다. ④ 총체적인 결집으로 대응해야 한다. 말하자면 한국 전기독교 교회의 결집을 이루어 강력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통전적인 선교로 대응해야 한다. ⑤ 이슬람 세력과 인간 무슬림을 구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슬람의 세력은 반기독교세력이지만, 무슬림들은 그 이슬람 권세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박당해 마치 멀리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⑥ 다문화 사회인 한국은

무슬림들에게 구심적(Centripetal) 선교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복음 전도와 무슬림들의 회심을 이끌 역사는 기도하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⑦교회는 건강해야 하며, 또한 기독교 신앙의 전승(문화, 풍속, 제도 등을 이어받는 계승)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사19:23-24)란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한국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한다.

이슬람아카데미

5강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의 대안

박성수 박사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의 대안

박성수[1)]

이슬람은 불교, 기독교와 함께 선교적 종교로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세력 확장에 부단히 애를 써 오고 있다. 그 결과 이슬람 신앙은 빠른 속도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고, 한국인들 역시 8-9세기부터 아랍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이슬람 역사가 이처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선교적 종교: 기독교·불교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에 의하면, 개신교 인구는 967만 명으로 국내 종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교(15.5%), 천주교 (7.9%) 순이었다. 이슬람은 통계청 '종교 선택 분류'에 포함되지도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슬람을 주목하는 이유는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무슬림 개종자들의 증가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2014년 IS (Islamic State)의 출범과 함께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1) 감리교신학대학교, 선교학

한국인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적 흐름 변화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할까?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선교적 접근을 통해 한국 교회의 미래 준비와 하나님 선교의 지평을 확장해 가야 할 것이다.

I. 이슬람에 대한 이해 한국인들의 이해

2001년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배후로 한 탈레반(Taliban) 무장 단체의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및 펜타곤 (the Pentagon) 공격은 약 3,000여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내면서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이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이슬람 포비아(Islamo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9/11 테러가 선교적 종교(Missionary religion)인 이슬람에게 부정적 영향만 끼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저명 리서치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9/11 직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미국인들 60%이상이 이 테러 사건 이후 이슬람과 아랍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과거에 비해 급증했다고 응답했다.[2] 9/11 이후 봇물처럼 쏟아진 이슬람 관련 서적들은 '이슬람, 무슬림, 아랍, 테러'등의 키워드들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슬림 학자 이희수 역시 2001년 9월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를 시작으로, 어린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2)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한국 중동학회 논총」 Vol. 57 (2016, 06): 194.

(2001)” 그리고 “이슬람 문화(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2003)” 등 다수의 저작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낯선 아랍의 종교, 이슬람을 친숙하게 하는데 일조했다.[3] 이희수는 그의 저서에서 9/11 테러의 희생자들을 향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이 일을 주도한 주범들이 이슬람 신앙의 정통성에서 벗어난 이단들이라며, 그 선을 명확하게 그었다. 오히려 이희수는 이에 대한 미국의 폭력적 보복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슬람 신앙 근본은 테러가 아닌 평화를 지향한다고 독자들을 설득한다.[4]

9/11 테러 이후 이희수 외에 이원삼, 최진영, 유왕종, 연규석 등 다양한 무슬림 학자들은 학문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슬람 바로 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 29일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의 Islamic state 설립 선언과 함께 그를 추종하는 무적 단체들이 본격적인 테러 활동을 시작하자, 한국 이슬람 학자들의 그간 노고(勞苦)는 수포(水泡)로 돌아갔다. IS의 테러에 대해 한국 무슬림 학자들은 이슬람과 IS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5]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IS를 이슬람의 한 지류로 이해하고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무슬림에 향한 혐오적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6]

2009년 안상준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이라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약 2,236명을

3) 이희수 외 11명,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서울: 청아 출판사, 2001); 이희수,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서울: 청솔 출판사, 2001); 『이슬람과 문화』 (서울: 살림, 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 (서울: 일빛, 2003).
4) 이희수 외 11명,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17-46.
5) 서정민,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명지대학교 중동문제 연구소 『IS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이희수, 『이슬람 학교 1, 2』 (서울: 청아, 2015).
6)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206.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48.8%가 이슬람 선교와 관련하여 중동 지역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효과적인 하나님 선교를 위한 예비 단계로서 중동 지역 탐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학문적 접근 보다는 교회의 선교 보고 및 언론(TV, 신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중동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슬람 국가'(43.6%) '산유국과 건설 시장'(28.5%) 그리고 '전쟁과 테러' (2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와 전쟁/테러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7)]

2016년 들소리 신문은 창간 39주년을 기념하여 4월 21일부터 일주일간 545명을 대상으로 '이슬람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의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대상자의 85.2%가 20년 이상 신앙 연륜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는 단연 "테러 집단"이었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 역시 이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전문 서적이나, 깊은 학문적 탐구 활동보다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의존하고 있었다.[8)]

2016년 6월에 실시한 김수완의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 보도 인식 연구" 역시 이전 두 설문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수완은 종교와 상관없이 56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이슬람에 대해 '테러, 전쟁, 분쟁, 위험한 지역'이라는 단어를 떠 올렸다.[9)]

이처럼 2009년과 2016년 4월, 6월, 세 번에 걸친 '이슬람에 대한

7) 안상준, "한국 개신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 중동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논문 (2008), 34-113.
8)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2 (2017년 1월 10일 접근).
9)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 206.

한국인 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여년 이상 많은 한국 무슬림 학자들의 학문적 접근을 통한 이슬람의 이미지 쇄신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2012년 필자의 학위 논문 결과에 의하면, 내국인 무슬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0]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개종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이 핵심적 질문과 함께 21세기 한국 무슬림 공동체의 특징과 이들을 향한 바른 선교적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한다.

II. 이슬람의 한국 선교: 어제(Past)

1.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시대

이슬람은 기독교, 불교와 함께 선교적 종교로서[11] 그들의 활동 영역을 아라비아 반도에 제한 두지 않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빠른 속도로 진출한 흔적을 세계 역사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12] 그 결과 신라인들은 무함마드(Muhammad)의 종교 운동 초기부터 아랍 무슬림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통일신라 말기 당나라와 활발한 교류 활동

10) Sungsu Park, "Islamic Da'wa in Korea," (PHD. Dis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3, 2.

11) 막스 뮬러 (Max Müller)는 1873년 웨스트민스터 아비 (Westminster Abbey)에서 강의 도중 6개의 세계 종교를 선교적 종교와 비선교적 종교로 구분하였다.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은 선교적 종교로, 유대교와 힌두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비선교적 종교로 구분한다. 참고: Thomas Arnold, *The Spread of Islam in the World: A History of Peaceful Preaching* (2nd ed.), (New Delhi: Goodword Books, 2001), 1.

12) 이희수, 『이슬람 학교』, 84-108.

을 보였던 신라인들은 이미 중국까지 진출한 페르시아계 무슬림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중동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다.[13] 중동의 무슬림들 역시 신라에 대한 관심도와 동경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깐수 (Qansu)의 맞은 편 중국의 맨 끝에 신리라는 산이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領主國(영주국)들로 갈라져 있다. 그곳에는 金(금)이 풍부하다. **이 나라에 와서 영구 정착한 이슬람교도들은** 그곳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나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븐쿠르다비드, 『제도로 및 제왕국 안내서』).[14]

고대 아랍 문서들에 등장하는 신라에 대한 기록은 매우 우호적이며, 신라를 향한 긍정적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뜨거운 태양, 거친 모래바람과 힘겹게 사투를 벌여온 중동의 무슬림 상인들은 아랍과 전혀 다른 신라의 신선한 공기와 시원한 물,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양식을 보고 이 땅에 정착하고 싶은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 어떤 아랍의 작가는 신라를 유토피아(Utopia), 영원과 행운의 섬인 아틀란티스(Atlantis)에 비유하기도 했다.[15] 이러한 역사적 근거들로 보아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초기부터 한국인들과 접촉했으며, 그들의 삶이 곧 종교이기 때문에 삶으로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알리는 선교적 접근(da'wah)이 끊임없이 시도 됐을 것으로 사료된다.

---

13)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60; Marshall Broomball, *Islam in China* (NJ: Gorgias Press, 2007), 62-67.

14)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내왕)과 그 배경," 「한국 고대사 연구」, NO. 44 (2006): 98.

15) 이희수,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 자료 소개," 「역사와 현실」 NO 8 (1992): 378-379.

무슬림들의 본격적인 한국 입성은 고려말기부터이다. 12세기 말 징기스 칸(Genghis Khan)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몽골 부족 연합 운동을 일으키면서, 급격한 세력 확장을 시도한다. 그 결과, 이들은 빠른 속도로 몽골을 넘어, 중앙 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 중국 심지어 고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해 갔다. 징기스 칸은 자기 시대에 몽골을 중심으로 한 팍스 몽골리카(Pax-Mongolica)를 꿈꾸는 사람이었다.[16] 그 꿈을 현실로 이룬 것은 그의 손자 쿠빌라이 칸(Kubilay Khan) 시대에 이르러서인데, 그는 빠른 몽골 제국의 확장을 위해 당시 뛰어난 정치, 문화,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던 위그루와 티벳 일대의 무슬림 상인들을 제국의 주요 관리직에 등용했다.[17] 쿠빌라이 칸은 이 무슬림 관료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넘어 AD 1270년 고려까지 점령한다. 이때, 몽골 정부는 고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신 파견, 혼인정책, 정동행성(征東行省)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쿠빌라이 칸은 고려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그의 딸인 제국공주(齊國公主)를 고려 왕조에 시집 보낸다.

이때 4명의 관리들을 함께 파견하는데, 그 중 한명인 삼가(三歌)는 위그루 출신의 무슬림으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 땅에 정착하고, 한국 이름 "장순룡(張舜龍)"으로 불리웠다. 순룡은 원나라의 사신으로서 고려 땅을 밟았지만, 고려를 무척 사랑했고 고려와 쿠빌라이 정부 사이에 성실한 외교 활동으로 고려의 충렬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고려 정부에 고위 관리직을 맡게 된다. 그 결과 무슬림 장순룡의 후손들은 한국 사회에서 쉽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살 수 있게 되었다.[18]

---

16) Jack Weatherford,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Y: Crown, 2004), 43-45.
17)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 문화』, 152-153.
18) Sungsu Park, "Islamic Da'wah in Korea," 102-103.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여사제강(麗史提綱) 등 역사서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무슬림을 소개하자면 민보(閔甫)다. 이 역사서들이 몽골 출신 민보의 구체적인 일상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책 모두 동일하게 원나라에서 온 민보를 무슬림으로 소개한다. 민보 역시 장순룡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무슬림이지만 한국 땅에 정착한 또 다른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19]

설손(偰遜)은 원나라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신장 일대의 무슬림 출신의 시인으로 공민왕(恭愍王)이 과거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친분을 쌓은 덕에 그가 고려에 도착하자마자 고려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었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고려의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수일은 그의 후손들이 경주 일대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재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0]

고려 시대에 이러한 무슬림 정치 관료 외에도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위해 상당한 무슬림들이 고려 땅을 밟았던 흔적들이 역사서에 등장한다. 한 예로, "대식국(아라비아)에서 열라자 등 100여명이 와서 왕을 만나 토산품을 바치니, 왕이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하였다.

또 그들이 돌아갈 때, 금, 은, 옷감 등을 선물로 주었다."[21] 이처럼 다양한 무슬림들이 고려 땅에 정착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 되었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이슬람 사원, '예궁(禮宮)'이 개경 인근에 세워졌다.[22]

---

19)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5), 249.
20)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서울: 창비, 2005), 136-137.
21) 이희수, 『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서울: 청아 출판사, 2001), 424.
22)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137-138.

2. 조선시대

한국 땅에서 무슬림들이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 것은 AD 1270년 고려가 원나라에 망하고 무슬림 관료들의 유입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하여 조선초기까지 이어졌다. AD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궁중까지 이끌고 갔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세종조(世宗朝)까지 무슬림 대표들은 궁중의 공식 행사에 초대되어 이슬람식 기도와 꾸란 낭송을 통해 왕의 만수무강과 국가의 안녕(安寧)을 기원했다. AD 1427년 세종대왕의 '이색적인 풍속을 금지하는 외래습속 금지령' 있기 전까지 이슬람은 불교와 함께 조선 궁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따라서 한국내 무슬림들은 그들의 고유한 종교 의식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았다.[23] 그러나 세종 이후 조선 왕조는 더 이상 불교나 이슬람 종교 색채가 아닌 명나라(明朝)의 영향으로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쇄국정책을 내세우며 새로운 왕정시대를 이어갔다. 그 결과 조선 초기 이후 500년 동안 한국 역사에서 무슬림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20세기 초

이슬람이 다시 한국 문을 두드린 것은 20세기 초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러시아에 정착해 살던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비슬라브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이 펼쳐지자 러시아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23) 정은주 외 2명,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서울: 창비, 2005), 357.

찾게 되었다. 이때, 카잔(Qazan) 튀르크인들을 중심으로 한 600여 명의 난민들은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사령부를 방문하여 망명 신청을 하자, 일본군은 그들 중 200명을 한국 땅에, 나머지 400명은 일본 본국에 정착하도록 배려하면서 다시한번 무슬림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된다.[24)]

20세기 초 일본에 의해 망명이 허락된 200여명의 무슬림들은 서울을 포함, 대구, 부산, 인천, 목포, 대전, 평양, 신의주, 청진, 흥남 등 남・북한 전 지역에 흩어져 'Mahall-i Islamiyeh(이슬람 마을)'이라 불리는 집단촌을 형성하고 그들 고유의 종교, 문화적 활동을 이어 갔다. 이들은 소자본 행상으로 시작해 의류 도소매 사업인 포목점과 양복점을 경영했으며, 정찰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 상점과는 달리 '흥정 심리'를 활용해 한국인 고객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들의 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다. 1930-1940년대 중반까지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한국 전역에 70여개의 점포를 운영할 정도로 빠르게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25)]

이러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즉시 한국 무슬림 협회를 창설하고 서울 시내에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내 무슬림들의 신앙 운동이 전개 되었는데, 이 건물에서 금요합동 예배를 포함 각종 행사: 결혼, 강연 및 어린이 공연, 명절 등을 열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무슬림들의 종교적, 민족적 센터 역할을 자처했다.[26)]

그러나 20세기 망명차 러시아로부터 내려온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한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튀르크

24)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317-321.
25)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 「Muslim-Christian Encounter」 NO1. (2009): 55.
26)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도서출판사 대서, 2012), 31.

계 무슬림들이 일본의 통치 아래 한국 땅에서 경제적 부와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親日)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강력했던 한국인들에게 친일적 성격을 보인 무슬림들의 종교는 결코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20세기 초 튀르크계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내국인 무슬림 개종자들의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세계2차 대전 패배와 함께 일본인들의 비호를 받던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한국 땅을 떠나 캐나다, 미국, 호주, 터키 등지로 떠나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27] 이로 인해 20세기 초 튀르크계 무슬림들의 이주로 시작된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부흥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시 막을 내리게 되었다.

III. 이슬람의 한국 선교: 오늘(present)

1. 1950-1960년대

통일신라 말기로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슬람 신앙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은 결코 종교적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 전쟁(Korean War)은 과거 지지부진하던 이슬람의 선교 방향성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은 남한을 침략하고, 이에 남한은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27) 이희수, 『이슬람과 한국문화』, 336-338.

도움을 청했다. 이때 유엔(UN) 가입국이었던 터키는 대규모 여단 병력을 한국 전쟁에 파견했고, 무슬림 용병들의 피흘리는 희생과 헌신이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28] 한국 전쟁 이전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의 혐오와 부정'이었다면, 전후(戰後) 이슬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종교로서 매우 호감적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내국인들 중 이슬람에 관심하고 개종하는 사례가 195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내 무슬림 공동체는 1955년 9월 15일 윤두영, 김진규와 김유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성하고, 윤두영을 최초의 이맘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비록 야전용 천막이었지만, 임시 모스크와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이슬람의 한국 선교 시대를 열었다. 이희수는 이 시기 한국 무슬림 공동체 숫자를 208명으로 추정한다.[29]

1960년대는 개종한 한국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과 동시에 외국 무슬림들의 한국 이슬람화를 향한 노력이 각별했던 시기이다. 특히 1963년 말레이시아 국회의장이 한국 방문 이후 한국내 무슬림 공동체 확장을 위한 모스크 건립 기금 $33,000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파키스탄의 사이드 무함마드 자밀(Saiyd Muhammad Jamil)은 1966년 10월 약 40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명지대와 YMCA에서 "이슬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한국 젊은이들에게 아랍의 종교를 소개했다.[30]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의사 무함마드 일리아스(Muhammad Ilyas)는 세계 보건 기구(WHO) 대표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대학교 공중 보건 교수로 사역하면서, 한국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주마 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한국 무슬림들과 함께 꾸란을 읽었

28)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 56.
29) 이희수,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이스마엘 우리의 형제」 2004년 제 67호 (한국이슬람연구소), 6.
30)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34.

으며, 이슬람의 다섯 가지 신앙 덕목을 가르치는 등 국내 선교 활동에 열심을 보였다.[31)]

2. 1970-1990년대

197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의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유지 1,500평을 한국 이슬람 협회에 기증하고, 이슬람 국가들 역시 이슬람 사원 준공을 위한 후원금 약 40만불을 준비했다. 그로 인해 1976년 5월 한국 최초의 돔형 이슬람 사원이 한국 땅에 건축 되었다. 이와 더불어 "소수 무슬림 국가에서의 이슬람 선교"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어 한국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의 방향성을 국·내외 무슬림들이 함께 고민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동 이슬람 국가의 건설 붐은 한국 내 이슬람 개종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가 외화 벌이를 하려던 한국 노동자들은 이슬람 국가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슬람 성원 방문하고, 그곳에서 중동 문화와 이슬람 신앙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무슬림들은 비무슬림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슬람과 중동 문화를 소개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종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이슬람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내 무슬림 공동체가 약 3,7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한다.[32)]

1990년대는 급격한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 무슬림 노동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서울을 포함, 부산, 대구, 전주에 이르기까지 한국

31) Sungsu Park, "Islamic Daw'ah in Korea," 126.
32) 한국 이슬람 중앙회, Islam in Korea (서울: 한국 이슬람 중앙회, 2009), 11.

전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다. 게다가 1970-80년대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과 중동 문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정진하던 젊은 인력들이 대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의 학문적 선교(academic da'wa for Islam in Korea) 활동이 활발해 졌다. 이로 인해 1990년대는 한국 이슬람의 신학적 성숙의 시기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출판되어지는 이슬람 서적을 통해 한국인들은 좀 더 쉽게 이슬람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33] 한국 이슬람 중앙회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기준 한국내 무슬림 규모는 약 150,000명으로, 이 중 한국 무슬림 개종자는 약 35,000명으로 추산했다.[34] 그러나 2010년 미국 전문 리서치 기관인 퓨포럼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을 지난 2005년보다 약 2배 많은 75,000명으로 발표했다.[35] 통일신라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슬람 선교가 한국 사회에서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점진적 성장세를 보여 온 한국 무슬림 공동체가 21세기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한국 무슬림들을 접근해야 할까?

3. 21세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의 특징

필자는 2012년 5월 한국인 무슬림 개종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개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내국인 무슬림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독교인으로서 내국인 무슬림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

33)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35-38.
34) 한국 이슬람 중앙회, "Islam in Korea," 19.
35) http://features.pewforum.org/muslim-population/growth.php(Last accessed on Dec. 15, 2012).

우선, 약 두 달간 매주 금요일 정오마다 이태원 이슬람 중앙 성원에서 있는 주마예배(Jumu'ah prayer)에 비무슬림으로 참석해 예배를 참관하고 그곳에서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을 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리서치 표본을 획득하기 위해, 이메일, 인터넷 카페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 온라인 채팅 웹사이트, 장후세인의 책,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36] 등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총 49명의 한국 무슬림들을 만났다.

1) 개종자들의 성별

남 성	32명 (65%)
여 성	17명 (35%)

표 1 내국인 무슬림들의 성별

우선, 필자가 만난 내국인 무슬림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볼 때, 남성 무슬림들이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터뷰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이슬람에서 여성 무슬림들이 알지 못하는 남성 무슬림(unknown Muslim man)과 직접 대면하는(face-to-face) 것을 문화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무슬림들의 인터뷰 참여 저조는 당연한 결과 일 수 있다.

2) 개종자들의 교육 수준 및 사회 계층 분포

한국의 많은 사회학자 및 한국 교계 지도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한국인들의 경제 및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일 것이라 추측했다.[37]

36) http://cafe.naver.com/islamworld; http://chatislamonline.org/ko/; 장후세인, 『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젠나무민북스, 2012), 256-317.
37)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 「선교신학」 NO. 38 (2015), 179-180.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고졸 이하	12명 (24%)	3명 (6%)	15명 (31%)
대 졸	14명 (29%)	12명 (24%)	26명 (53%)
석 사	3명 (6%)	2명 (4%)	5명 (10%)
박 사	3명 (6%)	0 (0%)	3명 (5%)

표 2 내국인 무슬림들의 교육 수준

그러나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터뷰 대상자들의 69%(34명)가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특히 3명의 남성 무슬림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1970-80년대 이슬람 국가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례이다. 당시 외국 무슬림 선교사들은 한국 이슬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내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의한 이슬람 국가들이 젊은 개종자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했다. 1990년대 이들이 중동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에서 이슬람의 신앙과 낯선 중동 문화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일용직 노동자	4명 (8%)	1명 (2%)	5명 (10%)
저 소 득 층	8명 (16%)	6명 (12%)	14명 (29%)
중 산 층	20명 (40%)	10명 (21%)	30명 (61%)
고 소 득 층	0명 (0%)	0 (0%)	0명 (0%)

표 3 내국인 무슬림의 경제-사회적 지위

69% 이상의 고학력 내국인 무슬림들은 그들의 경제 수준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평가했다. 49명의 내국인 무슬림 중 자신을 최고의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대체로 무슬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 단 10명(22%)의 인터뷰 대

상자들만 현재 무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무직자들 중 소수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이슬람 신앙 전파를 위한 전문 포교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이태원 중앙 성원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인들을 위한 이슬람 정보 센터 (Islamic Information Center for Koreans)'[38]에서 이슬람에 관심하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3) 개종자들의 회심 시기

	남성 (n=32명)	여성 (n=17명)	총인원 (n=49)
10대	1명 (2%)	1명 (2%)	2명 (4%)
20대	16명 (33%)	8명 (16%)	24명 (49%)
30대	6명 (12%)	3명 (6%)	9명 (18%)
40대	6명 (12%)	4명 (8%)	10명 (21%)
50대 이상	3명 (6%)	1명 (2%)	4명 (8%)

표 4 종교 회심 시기

20세기 후반의 심리학자 레이몬드 팔로우치안(Raymond F. Palou-tzian)은 십대를 "회심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the ripe age for conversion)"로 분류했다.[39] 즉,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삶의 가치관이 불안정하며 감정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십대들은 그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다. 이는 20세기초반부터 시작해서 20세기 후반

38) 2012년 필자가 한국 무슬림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방문했던 센터다. 2010년 한국 무슬림 전도자 박동신에 의해 시작된 이 정보 센터는 그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유학을 가면서 몇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그 센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2016년 12월) 필자가 이 이태원을 방문했을 때 더 이상 이 센터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이 센터는 아랍인이 주인인 옷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39) Raymond F. Paloutzian,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Ill: Scott, Foresman, and Co., 1983), 99-100.

까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아 온 연구 결과이다.[40)]

그러나 1990년대 영국의 무슬림 개종자 7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알리 쾨제(Ali Köse)는 최근 이러한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 76명의 평균 나이가 29.7세로, 단 한명의 무슬림만 십대에 개종했고, 전체 인원의 61.5%는 23-45세 사이에 그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를 체험했다.[41)] 쾨제에 따르면, 십대는 더 이상 종교 회심을 위한 적정 시기가 아니었다.

필자의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쾨제의 주장을 지지한다. 49명의 이슬람 개종자들 중 단 2명의 무슬림만 사춘기에 이슬람에 입교했고, 나머지 47명은 모두 청소년기가 지난 시점에 이슬람 성원을 방문해 신앙 고백을 통해 무슬림이 되었다. 전체 인원의 절반은 20-29세 사이에 개종했으며, 개종자들의 평균 연령은 쾨제의 연구 결과보다 약간 높았다. 레리 포스톤(Larry Poston) 역시 1990년대 초 72명의 북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평균 연령은 31.4세였다.[42)] 이처럼 최근 세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기가 종교 회심을 위한 최적기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청소년기가 회심을 위한 최적기였다고 한다면, 20세기 후반부터 그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

---

40) Edwin Starbuck, *The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The Walter Scott Publishing Co., 1908), 38; George Coe, *The Psych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7), 163; Granville Stanley Hall,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London: Appleton and Company, 1915), 288-292.

41) Ali Köse, *Conversion to Islam* (London and NY: Kegan Paul International, 1996), 47.

42) Larry Poston, *Islamic Da'wah in the West* (N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66.

4) 결혼과 이슬람 개종의 상관 관계

많은 한국 기독교 리더들은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 성장 요인을 국제결혼에 있다고 추정한다. 즉,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무슬림들과 한국 여성들의 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종한 한국 무슬림 여성과 코슬림(koslim)[43] 인구의 증가를 염려하고 있다.[44] 그러나 필자의 연구 결과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우려와는 사뭇 달랐다.

우선, 총 49명의 내국인 무슬림들을 인터뷰한 결과 기혼자는 전체 응답자의 65%(32명)이었다. 이들 중 12명이 외국 무슬림과 결혼한 커플들이었으며, 나머지 15명의 기혼자들은 그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무슬림이었다. 그리고 5명의 기혼 응답자는 배우자의 종교가 아직 이슬람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기혼 무슬림들에게 결혼과 개종의 상관 관계를 물었을 때, 32명의 기혼 무슬림 중 오직 3명의 여성만이 결혼 후 그들의 종교 정체성을 이슬람으로 바꾸었으나, 이들 역시 배우자의 강요나 외부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무슬림 배우자를 만났고,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이슬람 신앙을 고백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32명의 기혼 무슬림 모두 결혼과 개종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철저한 자신들의 신앙 탐구 이후 개종한 것으로 응답했다.

5) 개종자들의 선행(先行) 종교적 배경

1990년대 쾨제와 포스톤의 영국 그리고 북미 무슬림 개종자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다수의 무슬림들은 그들의 이전

---

43) 코슬림(koslim)은 영어 korean + Musilm의 합성어로 혈통적으로 외국 무슬림과 한국 무슬림 사이에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참고) 조희선 외 4명,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 현황과 정착 과정 연구,”「지중해 지역 연구」 제 11권 13호 (2009); 79-115.

44) 이정순,『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84-88.

종교가 기독교였다.[45)]

쾨제	
이전 종교	n=70명
영국 성공회	51명 (73%)
천주교	12명 (17%)
유대교	4명 (6%)
감리교	3명 (4%)

포스톤	
이전 종교	n=72
기독교	41명 (57%)
천주교	10명 (4%)
개신교	8명 (11%)
초교파	23명 (32%)
유대교	5명 (7%)
힌두교	1명 (1%)
불가지론	2명 (3%)
무교	23명 (32%)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	
이전 종교	n=27
개신교	16명 (60%)
천주교	2명 (7%)
불교	2명 (7%)
유교	1명 (4%)
무교	6명 (22%)

표 5 영국, 북미,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 현황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슬림 중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쾨제의 경우 영국의 전통 종교였던 성공회 교도들의 개종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천주교와 유대교, 그리고 감리교 순이다. 다민족(multi-ethnic) 국가로 형성된 북미 무슬림 개종자들의 경우, 쾨제보다는 다양한 종교로부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톤의 연구 결과 역시 전체 72명의 무슬림 개종자 중 과반수 이상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북미와 영국 모두 기독교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종교 인구대비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실시한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터뷰 대

45) Köse, 67; Poston, 166; Ali Mehmegolu and Heonchoul Kim "Conversion Motifs: A Study of Present-day South Korean Converts to Islam," *Journal of Academic Studies* (2002): 127.

상자 27명 중 2명만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오히려 쾨제와 포스톤의 연구 결과처럼 기독교인들의 이슬람 개종률이 가장 많다.

종 교	남성 (n=32)	여성 (n=17)	총계 (n=49)
개신교	19명 (39%)	9명 (18%)	28명 (57%)
천주교	5명 (10%)	3명 (6%)	8명 (16%)
불교	1명 (2%)	3명 (6%)	4명 (8%)
선천적 무슬림 (Born Muslim)	1명 (2%)	0명 (0%)	1명 (2%)
무교 (No affiliation)	6명 (12%)	2명 (4%)	8명 (16%)

표 6 토착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

본 논문 역시 선행된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들 중 개신교와 천주교를 통합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었음을 밝힌 응답자는 총 39명(73%)이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주된 원인은 기독교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개신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손꼽는다.

> 제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 저는 열성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살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돈에 대해 투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교회 어른들 간에 다툼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님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 교우들과 싸우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 봤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친히 중재하시고 다툼을 말리셨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대 실망 중에 한 무슬림 리더를 만났고, 그가 속한 종교 공동체는 달라보였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겸손했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슬람의 평등주의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46]

6) 내국인 무슬림들의 개종 동기

1996년 쾨제는 영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 7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회심 동기를 연구했다. 그로부터 6년 뒤 2002년 두 명의 무슬림 학자, 메흐메도글루와 김현철은 27명의 한국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종에 미친 영향들을 연구했다. 비록 이 두 논문이 지역적으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는 무슬림 개종자들을 연구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을 존 로프랜드(John Lofland)와 놀만 스코노브드(Norman Skonovd)가 제시한 여섯 가지 개종 동기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47] 필자 역시 본 장에서 로프랜드와 스코노브드의 종교 회심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 무슬림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된 두 연구의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것이다.

	쾨제	메흐메도글루/김현철	본 논문
지적 동기	50명 (71%)	19명 (70%)	39명 (80%)
신비적 동기	10명 (14%)	3명 (11%)	2명 (4%)
실험적 동기	42명 (60%)	7명 (26%)	33명 (67%)
정의(情誼)적 동기	46명 (66%)	9명 (33%)	32명 (65%)
부흥회적 동기	0명 (0%)	0명 (0%)	0명 (0%)
강제적 동기	3명 (4%)	0명 (0%)	0명 (0%)

표 7 무슬림들의 개종 동기 비교

46) 필자가 2012년 5월 14일 이태원 이슬람 성원에서 에미르(Emir)를 만나 인터뷰했다.

47) 6가지 개종 동기 유형 분류: 지적 동기 (Intellectual conversion), 신비적 동기 (Mystical conversion), 실험적 동기 (Experimental conversion), 정의적 동기 (Affecional conversion), 부흥회적 동기 (Revivalist conversion), 강제적 동기 (Coercive converion). John Lofland and Norman Skonovd, "Conversion Moti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20 (1981): 373-385.

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는 한 가지 특별한 개종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종교 정체성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선행된 두 연구에서 여섯가지 회심 원인 중 지적 동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약 70%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슬람을 처음 접한 후 지적 호기심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신앙을 탐구 한 후 '샤하다'를 고백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이슬람으로의 개종 현상은 필자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 49명 중 39명의 무슬림들이 그들의 개종 사유를 '이슬람은 이성적인 종교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비호감적이었으나, 이슬람을 오랜 시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이슬람 신앙이 옳다고 판단하여 무슬림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를 반증하듯 대부분의 내국인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처음 접한 시기로부터 개종시까지 짧게는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2년 이상 이슬람 신앙을 지적으로 탐구하고 실험적으로 무슬림 공동체와 예배 활동에 참여한 후 무슬림이 되었다.

	남성	여성	총계
3개월 이하	3명 (6%)	10명 (20%)	13명 (27%)
3-6개월	6명 (12%)	3명 (6%)	9명 (18%)
6-12개월	19명 (39%)	2명 (4%)	21명 (43%)
1-2년	3명 (6%)	2명 (4%)	5명 (10%)
2년 이상	1명 (2%)	0명 (2%)	1명 (2%)

표 8 이슬람 접촉 후 개종까지 걸린 기간

그러나 필자의 설문에 응답한 2명의 개종자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Muhammad)가 히라 동굴(the cave of Hira)에서 체험한

영적 신비와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즉시 이슬람에 입교했다. 그 예로, 아랍 음악을 공부하던 하비블라(Habibula)는 꿈에서 무함마드가 나타나 이슬람에 입교할 것을 권고하여 개종했다. 한편, 다른 한 여성은 전직 스튜어디스였는데, 사우디 공항에 입국할 때 그에게 들려진 코란 낭독에 감동되어 즉시 샤하다를 하고 무슬림 되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무슬림들의 종교 의식을 깊이 관찰하고 오랜 시간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외에 두 가지 동기(motifs), 부흥적 동기와 강요적 동기는 한국 상황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쾨제의 연구 결과 3명의 응답자가 그들의 개종에 외부 강제성이 있었음을 답했지만, 이것은 세뇌나 사상 개조의 형태가 아니라 결혼과 함께 그들의 배우자에 의한 이슬람으로의 개종 요구였다. 이 사례 역시 두 가지 개종 요소-정의(情誼)적 요소 + 강요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종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국내 기혼 무슬림들의 경우는 영국 무슬림들과 달리 배우자가 그들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오히려 필자의 인터뷰에서 개종자들은 꾸란 2:256을 언급하며 이슬람 개종은 강요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Ⅳ. 21세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이슬람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앞서 한국 땅을 밟았지만, 아이러니하

게도 1950년대 이전까지 이슬람은 결코 한국인들에게 호감적인 종교가 되지 못했다. 필자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우선 8-9세기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아랍의 신(新)문물을 접하게 된 신라인들은 궁중을 포함, 서민들까지 이 새로운 중동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랍에서 온 무슬림들은 종교와 문화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슬람 신앙과 무슬림 문화를 소개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인과 무슬림들 사이의 긍정적 접촉이 고려시대에 이르러 부정적 이미지로 변모되었다. 그 이유는 몽골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무슬림 관료들이 보여준 부도덕함과 관료주의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피지배계층으로 살아야 하는 한국인들에게 무슬림 관료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는 그들의 종교까지 비호감적으로 만들었다. 특별히 고려가요에 등장하는 "쌍화점"은 '회회(回回)아비'라고 불리던 무슬림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고려인들에게 무슬림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존재로 기록되고 있다.[48] 그 결과 고려 시대에 외부에서 유입된 다수의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까지 세워졌으나, 이슬람으로 개종한 고려인들에 대한 기록은 소수에 불과하다.

20세기 초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함께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튀르크계 무슬림들은 그들의 성실함과 뛰어난 사업 수단으로 한국 사회의 정착 속도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 세력과 정치적 결탁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 취하는 존재로서, 한국 사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그 결과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 땅을 떠날 때, 튀르크계 무슬림들 역시 쫓겨나다시피 제 3국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지배계층과 손을 잡고 피지배민족

48)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下』, 138.

이었던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준 무슬림들은 20세기 초 한국 선교를 다시 실패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시작되면서 국내 이슬람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21세기 외국 무슬림들에 의한 선교활동보다 내국인 무슬림들의 자체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 그들의 교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필자가 2012년 만난 49명의 내국인 무슬림 설문을 기초로 해서 이 공동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는 우리가 예상하듯이 저소득/저학력자들의 개종사례보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잘 교육 받은 중산층이 이슬람 신앙에 영향을 받고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이들의 개종 시기는 청소년기보다 훨씬 늦은 20대 후반이다.

셋째, 결혼과 개종의 상관 관계에서 내국인 무슬림들은 결혼이 그들의 종교를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 무슬림과 한국인의 국제 결혼이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증가 원인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결론이다.

넷째, 내국인 무슬림들의 개종전 종교를 물었을 때, 74%의 응답자가 그들의 이전 종교를 기독교[개신교와 카톨릭 포함]라고 응답했다. 즉, 유신론자인 기독교인이 유일신 종교인 이슬람으로 개종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순간적 감정보다는 오랜 시간 이슬람을 연구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관찰 한 후 이슬람에 입교한다.

이러한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향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접근 방법을 정리해 보면, 우선 기독교 내부적으로 "교회 갱신 운동(Church Renewal Movement)"이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필자의

설문 응답자 74%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전 자신들의 종교 정체성을 "기독교"라고 응답했다. 이들의 개종 제1차적 원인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聖)스러워야 하는 교회가 돈(money), 권력(power), 성(sex)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 다른 유일신 사상을 찾아 영적 방황을 하던 중 이슬람을 만나고 개종한 사례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국내 이슬람 선교를 위해 먼저 교회의 비본질적인 구습(舊習)을 제거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공동체 정신의 부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을 주도해 나가기보다, 일주일에 한번 성도들에게 좋은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려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좋은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실증을 느낀 유일신주의자들은 좀 더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이슬람 예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무슬림 공동체의 예배 행위에서 영적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본질에 기초한 "예배 갱신"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통해 교회로부터 이탈하는 교회 내 아웃사이더(outsider)들을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2014년 청어람 대표 양희송은 '가나안 성도'에 대해 언급하며, 21세기 한국 교회가 직면한 내부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안까지 제시했다. 가나안 성도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의 교세는 약 100만명에 이른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구체적이 이유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라고 답했다.[49]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 필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꿀 가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종교 정체성 이동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교회 공동체가 그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해야 할 것이다.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이동해 가는 개종자들을 막기 위해 기독교 학자들 역시 선교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고, 스스로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이슬람 교육과 관련 서적 출판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는 극단주의적 이슬람 신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무슬림들의 테러 행위에 초점을 맞춰 이슬람을 한국 교계에 소개해 왔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는 양면성이 있다. 타종교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타종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가 있다. 한국 교계의 일부 리더자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무시하고, '이슬람포비아'적 관점으로 이슬람의 부정적인 요소들만 부각시켜 이슬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일부 '가나안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으로 새로운 유일신 종교를 찾아 나섰을 때, 이들은 이슬람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오랜 시간 무슬림 공동체에 양해를 얻어 실험적으로 예배 참여하며 이슬람을 배웠다. 그때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독교를 통해 배워 온 이슬람과 자신들이 직접 탐구한 이슬람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에 반감은 더욱 극대화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기독교 학자들은 이슬람 신앙과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성도(聖徒) 스스로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

49)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35.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전문 내국인 선교사 양성이 절실하다. 필자는 지속적인 이슬람 성원 방문과 인터넷 카페,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를 관찰하며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내국인 무슬림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성원들을 순회하며 남성 무슬림 모임을 시작했고, 최근 여성 무슬림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아랍어 꾸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 '살람 누리(Salam Nur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무슬림 전문 전도자들이 짝을 이루어 전국 성원들을 투어하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이슬람 개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종한 내국인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전문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인 케빈 크리슨 (Kevin Greeson)은 효과적인 무슬림 전도를 위한 '낙타 전도법'을 소개한다. 이 전도법은 꾸란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소개하며 전도하는 방법이다.[50] 이처럼 건강한 무슬림 선교적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무슬림을 사랑하고, 꾸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 내국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는 선교사들은 전무후무하다. 필자가 만나본 개종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인들이지만 그들의 경전인 꾸란과 이슬람 신앙,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 이들과 함께 꾸란을 읽고, 이슬람 신앙과 기독교를

50) 이명준 역, 『모슬렘을 위한 낙타 전도법(The Camel: how Muslim are coming to faith in Christ)』, 케빈 그리슨 (서울: 요단, 2009), 61.

비교하고, 무슬림 공동체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재개종(re-convert) 현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필자와 함께 꾸란-복음서 읽기를 병행하고 있는 내국인 무슬림들은 이슬람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함께 최근 자신의 종교 정체성 변화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점점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들의 가치관을 꾸란(Qur'an)적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전환 시킬 전문 선교인력 양성에 한국 교회는 힘을 쏟아야 한다.

V. 나가는 말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 인력 유입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약 79,388명이었던 국내 체류 무슬림의 수는 6년 뒤인 2015년 약 55,000명 증가한 135,485명으로 집계되었다.[51] 이러한 외국인 무슬림 증가 현상과 발맞춰 내국인 무슬림 숫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독교는 지속되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심화로 1995년 이후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슬람은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잇는 제 4의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회를 이탈한 가나안 성도들이 또 다른 유일신 신앙인 이슬람에 관심하고 개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교회는 이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슬람 선교에 있어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즉, 외국 무슬림들의 한국 유입을 막고, '이슬람

51)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인문과학연구논총」, NO. 36 (2015), 158.

포비아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이슬람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이슬람 선교를 주장하고 싶다.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들을 막기 위해 교회 갱신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아울러, 이슬람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이슬람을 바로 알고, 성도 개개인이 바른 신앙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내국인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전문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내국인 무슬림들과 접촉해 함께 꾸란 읽으며 이슬람의 실체를 알고, 아울러 복음의 가치성을 바로 인식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인도해야 한다. 더 이상 내국인 무슬림 성장을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로 접근하지 말고, 겸손하면서도 자시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고, 내국인 무슬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줄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권지윤. “한국의 이슬람.”「Muslim-Christian Encounter」Vol. 2 (2009), 53-76.

김수완. “한국인의 아랍, 이슬람 이미지 및 관련 언론보도 인식 연구.”「한국 중동학회 논총」Vol. 57 (2016): 193-213.

김창석.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내왕)과 그 배경.”「한국 고대사 연구」NO 44 (2006): 93-126.

명지대학교 중동문제 연구소.『IS를 말하다』.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박성수. “한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 연구.”「선교신학」NO. 38 (2015), 171-199.

서정민.『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서울: 시공사, 2015.

안상준. “한국 개신교인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과 대 이슬람권 선교 정책: 중동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논문, 2008.

안정국. “한국 이슬람의 현황과 종파 분화.”「인문과학연구논총」, NO. 36 (2015), 155-181.

양희송. 가나안 성도 교회밖 신앙. 서울: 포이에마, 2014.

유동식.『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6.

유왕종, 김효정, 안정국. “남아시아 출신 코슬림(Koslim)의 한국 사회 정착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중동연구」제 29권 제1호, (2010), 151-186.

이명준 역.『모슬렘을 위한 낙타 전도법(The Camel: how Muslim are coming to faith in Christ)』. 케빈 그리슨. 서울: 요단, 2009.

이정순.『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도서출판사 대서, 2012.

이희수 외 11명.『이슬람: 9/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서울: 청아 출판사, 2001.

이희수.『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서울: 청솔 출판사, 2001.

『이슬람과 문화』. 서울: 살림, 2003.

『이희수 교수의 세계 문화 기행』, 서울: 일빛, 2003.

『이슬람 학교 1, 2』. 서울: 청아, 2015.

『이슬람과 한국 문화: 걸프 해에서 경주까지 1,200년 교류사』, 서울: 청아 출판사, 2012.
"이슬람권의 한국사 관련 자료 소개,"「역사와 현실」NO 8 (1992): 367-371.
장후세인.『이슬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젠나무민북스, 2012.
정수일.『한국 속의 세계 下』. 서울: 창비, 2005.
정은주 외 2명.『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서울: 창비, 2005.
조희선외 4명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 현황과 정착 과정 연구." 「지중해 지역 연구」. 제11권 제13호 (2009), 79-115
조희선외 4명. "코슬림 (Koslim: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국제지역 연구」제 14권 제1호, (2010), 277-308.
최남선.『조선상식문답』.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5.
타머 무사.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한국 이슬람 중앙회.『Islam in Korea』. 서울: KMF, 2009.

2. 영문자료

Arnold, Thomas. The Spread of Islam in in the World: A History of Peaceful Preaching (2nd ed.). New Delhi: Goodword Books, 2001.
Broomball, Marshall. Islam in China. NJ: Gorgias Press, 2007.
Coe, George. The Psycholog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7.
Grayson, James H. Korea - A Religious History. Abingdon: RoutledgeCurzon, 2002.
Hall, Granville S.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London: Appleton and Company, 1915.
Köse, Ali. Conversion to Islam. London and NY: Kegan Paul International, 1996.

Lofland, John and Skonovd Norman. "Conversion Moti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20 (1981), 373-385.
Mehmegolu, Ali and Kim, Heonchoul, “Conversion Motifs: A Study of Present-day South Korean Converts to Islam.” Journal of Academic Studies, Vol. 4 (2002), 126-133.
Park, Sungsu. Islamic Da’wa in Korea. PH. D. Dissertation: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3.
Paloutzian, Raymond F. Invitation to the Psychology of Religion. Ill: Scott, Foresman, and Co., 1983.
Poston, Larry. Islamic Da'wah in the West. N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ratt, James. Religious Consciousness: A Psychological Study. NY: Macmillan, 1926.
Starbuck, Edwin. The Psychology of Religion. London: The Walter Scott Publishing Co., 1908.
Weatherford, Jack.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Y: Crown,
2004.
Yun, Seung-yong ed. Religious Culture in Korea. NJ & Seoul: Hollym International Corp., 1997.

3. 인터뷰

2012년 4월 21일 이태원 중앙성원에서 바시르(Basir) 인터뷰
2012년 5월 14일 이태원 이슬람 성원에서 에미르(Emir) 인터뷰

4. 인터넷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JvLdlYXJsfQ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s://www.youtube.com/watch?v=Agr9XsIrCgY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이만석-65734.html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88122/20160101/유해석-칼럼-유럽에서-이슬람-인구-증가로-나타난-다양한-문제들.htm (2017년 1월 10일 접근).
http://www.deulsor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2.
http://features.pewforum.org/muslim-population/growth.php (Last accessed on Dec. 15, 2012).
http://cafe.naver.com/islamworld;
http://chatislamonline.org/ko/;

2020 총회이슬람아카데미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

인　　쇄　2020년 7월 16일

기　　획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목사
서　기 최광영 목사　회　계 최문철 장로
위　원 박병석 목사　오종대 장로

편 집 인　총회교육전도국

발　　행　총회이슬람대책위원회

발 행 처　총회교육전도국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2동 1007-3)
전화 02) 559-5632　팩스 02) 539-0203

www.gapck.org / www. 총회교육.com